

소설가 남지심 씨
세상과 소통하는
보살행 서원으로 삼았죠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8월 7일) · 주간

제957호 2013년 9월 11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선가귀감

수행자는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해
진실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딜 가나 걸림이 없다.

고려대장경 영문 표기 문제 많다

버스웰 교수, 3일 대장경 축전 세미나서

세계기록유산인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은 영어권에서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의 혼합어로 'Tripitaka Koreana'(삼장 · 三藏)로 불리고 있다.

'세 개의 바구니'라는 뜻을 지닌 '삼장'은 인도에서 경장(經藏) · 율장(律藏) · 논장(論藏)을 새긴 패엽 입사귀를 광주리에 따로 보관해 부른데서 유래했다. 이러한 영문 표기가 고려대장경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기에는 부적절하기에 고려대장경 자체의 고유명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사진〉는 9월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삼장인 'Tripitaka Koreana' 대신 'Korean Buddhist Cannon'(한국불교전적)이나 원래명칭인 '고려대장경'을 음사해 고유명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버스웰 교수는 "대장경에는 경율논 삼장 외에도 에세이 등 다양한 문헌 형식이 있기에 영어권에서 단순히 'Tripitaka Koreana'(삼장)으로 부르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버스웰 교수는 고려대장경을 비롯한 동아시아 장경이 경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 유산을 담고 있음에 주목했다.

버스웰 교수는 "고려대장경과 같은 동아시아의 장경은 당시 사회사상을 담은 '거대한 보관소'였다"며 "그로 인해 나온 명칭이 '대' 장경"이라고 강조했다.

버스웰 교수는 "이러한 속뜻에도 현재 불교 전적을 세 개의 큰 단위로 나눈 삼장의 범주로만 평가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웰 교수 발표의 토론자로 나선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대장경에 대한 초점은 물질문화인 대장경 '판'에 관한 것이었다"며 "버스웰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고려인, 더나아가 동아시아 인들의 지적 소산이자 학문적 결실인 점에 주목해 용어 정리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Tripitaka Koreana'로는 대장경 의미 제대로 못 전해
'고려대장경' 음사하거나 Korean Buddhist Cannon으로
장경은 사회상 담긴 보관소 의미 유념한 용어정리 필요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Tripitake Koreana' 용어를 처음 쓴 것은 1960년대부터 한국 학계에서 라틴어 표현을 하면서부터"라며 "한국학계가 주도해 고려대장경 고유명사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버스웰 교수는 세미나에서 고려대장경 제작을 총책임한 수기(守其) 대사를 최초의 근대 문학 비평가로 평가하며 그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 하는 등 대장경이 문학지성사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랭카스터 버클리대 교수 또한 당시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대장경 제작은 현재 IT발달 등에도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연구영역 확대를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기사 3면



정각회 30주년 기념법회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불교 각 종단 스님 등 400여명이 모여 불법에 기반한 정치활동을 다짐했다.

"정치권에 자비·화합의 가르침 퍼지길"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4일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불자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회장 정갑윤)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고 자비와 화합 등 불교 가르침에 기반해 국민에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 정각회(회장 정갑윤)는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983년 출범한 국회 정각회는 불자 국회의원들의 신행모임으로 신행활동과 함께 정치권과 불교계 간 소통창구를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주요 스님들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 신행 및 포교단체 대표, 정갑윤 국회의원 등 정각회원 및 국회직원불교신도회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국회 불자들의 모임이 30성상이 지난 뜻깊은 날"이라고 치하하며 "인류정신문화인 불교의 가르침을 펴는 불자들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대독을 통해 "국민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도록 국정에 임해달라"며 "비움과 나눔으로 국민이 함께하는 자비행을 곳곳에서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정갑윤 정각회 회장은 "30주년을 계기로 의원불자들은 국민이 바라는 뜻과 여망이 무엇인지 적극 수렴해 국민 행복 추구에 앞장 설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로 모든이가 이고득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9월 14일 청계광장서 마음껏 사랑하세요

종지협, '17회 종교문화축제'

종교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문화축제가 열린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9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7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마음껏 사랑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종교문화축제는 '내려놓기, 어울림, 바라는 마음, 나누리' 등 소마당으로 꾸며진다. '내려놓기' 마당에서는 법륜, 건강, 심리, 종교 상담 등이 이뤄지며, '어울림' 마당에는 다양한 효능의 차를 만날 수 있는 카페와 구연동화가 진행된다.

'바라는 마음' 마당에서는 느린 우체통과 소원을 담아 나무에 설치하는 기원나무 이벤트가 마련되며 '나누리' 마당에서는 티셔츠 페인티, 켈리그래피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종교문화사진전, 희망음악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10월 10일 조계종 34대 총무원장 선거

중앙선관위 공고… 후보자 등록 9월 18~20일
특정인 지지 반대 등 선거 금지 행위 결정도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공식 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9월 3일 제275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 일정과 금지행위 등을 결정했다.

확정한 일정과 공고문에 따르면 선거 투표는 10월 10일 목요일 오후1시~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하고, 9월 18~20일 오전9시~오후5시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겸직할 수 없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9월 17일 오후 5시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점도 공지키로 했다. 교구별 선거인단은 9월 25~29일 중 선출해야 한다.

입후보하려면 △등록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제적등본 1부(출가년도 이후 호적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 제적등본 추가) △신원조회서 1부 △경력 증빙 서류 1부 △종법 준수 각서 1부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1부 △종책 공약 내용 △반명함판 사진 5매 등을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등록기간 중 제출해야 한다.

총무원장에 입후보하려면 승납 30년,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 중에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부 · 실 · 소장급 이상 2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법규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초심호계원장 역임 등의 조건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준도 마련했다. 교역직종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중립의무에 대해, 선거법에서 정한 교구본사 소속 종무원에 말사 주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거운동기간 금지되는 행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에 대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 △종책자료집 배포 △타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선거인의 숙박 및 식사 알선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9월 7일 선거 관련 담화문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담화문에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왜곡된 종단 선거 풍토를 단호히 근절하고 승가의 화합과 모범적인 선거문화 정립을 위한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종도들은 종헌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957호 INDEX

추석특집 6·7
전국사찰 템플스테이 수행 및 나눔 행사

시방세계 5
한반도 평화음악회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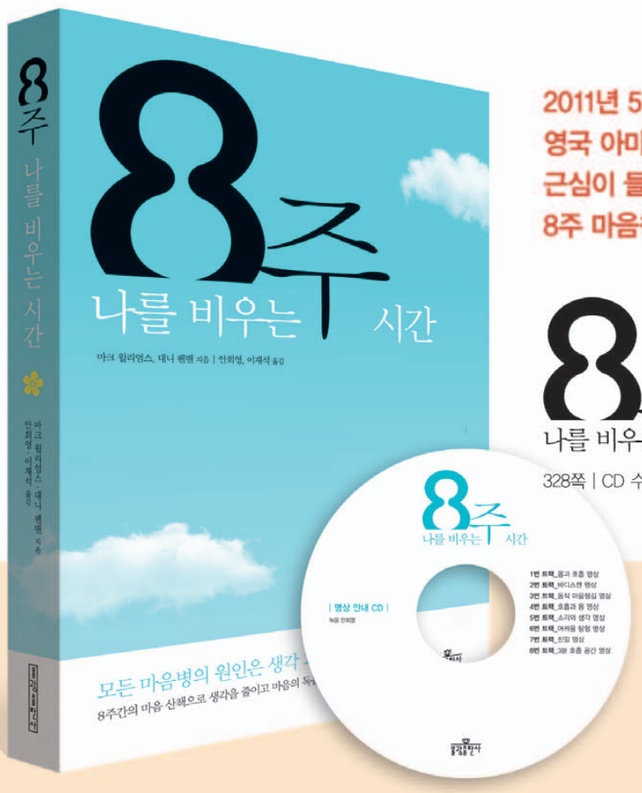


강의실 중계 8
'불교 생명관' 정연정 동국대 교수

학술 · 문화재 9
중국어 표기 통일 필요
제1회 봉녕사 학술세미나

문화 20
원효 다큐 제작 김선아 감독





2011년 5월 출간 이래 27개월 연속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근심이 들러붙을 데가 없는 마음을 만드는
8주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8주
나를 비우는 시간
328쪽 | CD 수록 | 16,000원

태연한 척해도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눈썹을 찌푸리는 횟수가 늘지 않았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들, 스스로 자기에게 지운 짐들,
어쩌면 '나는 행복해야 해!'라는 기대까지……
생각들이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따라
잠시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마음을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마크 윌리엄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이자 '옥스퍼드 마음챙김 센터' 소장이이다. 우울증과 자살 문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MBCT)'를 공동 개발했다. MBCT는 우울증 재발률을 절반으로 낮춘 효과를 인정받아 영국 국립임상보건원으로부터 우울증 치료의 최우선 처방으로 권장되고 있다.



대니 펜맨
BBC와 〈인디펜던트〉 지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로, 패러글라이딩 도중에 심각한 사고를 당해 끊임없는 통증과 간헐적인 신체 기능 마비로 고통을 겪다가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자유를 얻었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불광출판사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바깥 세상에 대한 개념은

마음 안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니

딱딱한 얼음이 물로 녹도록 놓아두거라.

겨울이 오면 호수와 강은 단단하게 얼게 됩니다. 사람들, 짐승들 그리고 마차 등이 그 얼음 표면 위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봄이 다가오면 지면이 따듯해지고 얼었던 강물은 녹아서 흐르게 됩니다. 그 딱딱했던 얼음엔 무엇이 남아 있나요? 물은 부드러운 액체이고, 얼음은 견고하고 모가 납니다.

우리들은 이것들이 같다고 말할 수 없고,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음은 물이 언 것이고 물은 얼음이 녹은 것일 뿐입니다.

바깥세상에 대한 인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하고 좋고 싫음에 의해 고통 받게 되고, '세속 팔풍'에 사로잡히는 것, 이런한 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당신의 얼어붙은 개념을 녹여 의식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얼음과 같은 개념들을 녹여보세요.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계파 간 이해관계로 공염불에 그친 '추천'

총무원장 후보 15인 추천위 무산… 본격 선거전 시작

추천과 경선의 갈림길에 선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결국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기대를 모았던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각 진영의 해석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 수경 스님이 8월 31일 대전 유성에서 만나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제도권에서 6인, 선교율 분야와 비구니 스님을 포함한 9인 등 총 15명으로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구성 시한은 9월 3일까지였다.

하지만 합의 사항을 놓고 불교광장, 舊 무량 · 무차 · 백상도량(이하 3자연대), 수좌회의 해석은 엇갈렸다.

가장 먼저 3자연대의 수장 격안 법등 스님은 9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합의에 대해 "3자연대는 수용을 전제로 결론을 유보한다. 추천위 구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원장 스님의 불출마 선언과 불교광장에서 대리 후보를 추대하지 않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광장 역시 2일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

합의 내용 놓고 각 진영별

해석 차… 정치적 수사만

불교광장 · 3자연대 대결 압축

정책보다 계파 세 싸움 우려

한 전체 회의에서 보선 스님이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먼저 철회해야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수용한다고 맞불을 놨다.

결국 3자연대는 9월 3일 오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고 종헌종법에 의거해 후보 보선스님을 중심으로 여법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진영 간의 핑퐁 게임이 이어지고 구성 시한을 넘기자 자승 스님은 9월 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자승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8월 30일 5자회담에서 우리는 종단과 불교를 위해 종도들의 뜻을 모아 신망 있는 분으로 총무원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종단 안팎의 덕망 있는 분으로 제도권에서 6인, 선교율 분야와 비구니를 포함 9인 등 모두 15인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애종의 마음으로 첫 마음을 낸 그날의 결의에 대한 뜻은 변함없다. 4일 일과시간까지 뜻을 기다리겠다"고 보선 스님 측의 추천위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추천위 구성은 마지막 시한마저 넘기고 구성이 결렬됐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전국 선원수좌회다. 수좌회 대책위는 9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31일 수좌회는 고육지책으로 자승 스님의 재임 포기와 기득권 내려놓기를 포함한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애초 합의를 지킬 마음이 전무했음에도 기득권들은 '서로 상대의 선 양보와 자신들의 후 결정'을 밀고 당기는 술수로 대중을 호도하는 추대를 보였다"고 양 진영을 모두 비판했다. 또한 9월 6일부터 자승 스님의 연임 포기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용맹 정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결국 추천위 구성은 '선 양보, 후 결정'이라는 전제조건을 양 진영이 내걸고 신경전만 벌이다가 불발로 끝났다. 결렬 과정에서 서로의 진영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수사들은 그간의 선거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인물에 선거 이슈가 맞춰져 있다보니 종책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추천위가 무산됨에 따라 제34대 총무원장은 10월10일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선거는 3자연대의 추대로 출마한 보선 스님과 불교광장 후보 간 대결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양 진영들 역시 선거 일정에 맞춰 조직 구성과 종책 제안 등의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 과제는?

불교광장, 5 · 6일 종책 마련 위한 좌담회 개최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바라는 종책 과제를 논의하는 좌담회가 마련됐다.

불교광장은 9월 5일과 6일 양일에 거쳐 '한국불교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종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1차 좌담회에서는 역대 집행부의 성과와 차기 집행부의 과제를 짚었으며 2차 좌담회에서는 종단 발전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1차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1962년 통합 종단 출범 이후 종단은 시스템적으로 안정되고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방향성을 잃고 안정적 종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 싸움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3대 집행부의 사회화 사업들은 잃어버린 방향성을 제시해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부영 불교신문 편집장은 "이번 조계종 총무원 33대 집행부의 최대 성과는 '불교의 사회화'"라며 "용산 철거민 참사를 시작으로 여러 민생현장에서 불교가 나서서 사안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되짚었다.

정웅기 불시넷 운영위원장은 "33대 집행부가 초기에 '화쟁'을 기조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시대적 과제를 잘 짚어낸 것이다. 이후 쌍용차, 4대강, 지리산 케이블카 등의 사회 현안을 중도적 입장에서 중재하려 했다"며 "'불교의 사회화'의 과제를 이어가는 것이 차기 총무원장 종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2차 좌담회에서는 핵심 발전 의제 중 △수행 종풍 진작 △종단 자성과 쇄신 방향 모색 △교구책임제 대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 결사기구가 독립적 종법 기구로 설치되어야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 나왔으며 재정 투명화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종령이 아니라 종법 수준에서, 권위를 위임 받은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권, 자료제출권, 종회 의견제출 및 권고권 등을 줌으로써 대중적 권위를 갖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의를 못한 과제에 대해 불교광장은 3차 좌담회를 열어 제시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모아진 종책 과제들은 향후 불교광장이 추천하는 총무원장 후보에게 전달된다. 신중일 기자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 도산스님 취임법회

9월 26일 오전 11시 태고총림 선암사서 봉행

태고종은 9월 26일 오전 11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 25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도산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도산 스님은 지난 7월 18일 치러진 선거에서 전체 146표 가운데 68표(46.5%)를 얻어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이날 취임법회에서 도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선거기간 내 공약했던 8대 운영기조 및 18대 핵심 실천 과제를 골자로 향후 주요 종책을 밝힐 예정이다.

태고종측은 "이번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승정 · 원로스님,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 강창희 국회의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은 행사 화환 대신 화환대금을 접수 받아 순천지역 불우이웃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에 원경 스님

3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에 원경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문중화합이 최우선이다. 잘 추슬러 교구본사의 격에 맞는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대우 스님 네 번째 출마



내장산 벽련선원 대우 스님〈사진〉이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다.

대우 스님은 9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스님의 출마는 29, 32, 33대 선거에 이어 네 번째이다.

신중일 기자

2013년 10월 BATI 불교문화창작교육원 2기 모집

얘기꾼과 산하 교육기관인 BATI불교문학창작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문학작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광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집분야 : 문 학 작 가 반 : 3학기(18개월)과정 – 소설, 동화, 수필
스토리텔링반 : 2학기(12개월)과정 – 불교문화재스토리텔링, 불교경전스토리텔링

≫ 개 강 : 2013년 10월중

≫ 접수기간 : **2013년 8월 30일~2013년 9월 30일까지**

≫ 접수방법 : http://cafe.naver.com/batihome 접수게시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후 메일첨부 batistaff@naver.com

≫ 접수안내 : 자세한 수강 내용은 http://cafe.naver.com/batihome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70-8880-8202, 010-5656-8202

문학작가반

2012년 6월에 개원한 창작교육원은 1년 동안 소설가 2명 동화작가 1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여명의 작가지망생이 창작수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특전 : ① 문단에 등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등단 후에도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후원 합니다.
②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심의를 거쳐 스토리텔링 작가 자격증을 주며
〈애기꾼〉에서 추진하는 스토리텔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토리텔링반

문화재청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얘기꾼의 전속 불교문화재스토리텔러와
불교경전스토리텔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특전 : 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불교문화재 및
불교경전 스토리텔러(해설사) 자격증을 줍니다.
② 사찰 및 공공기관에 해설사(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문화재청예비사회적기업 (주)얘기꾼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101호 | 070.8880.8202/010.5656.8202 | batistaff@naver.com

조계종 총무부장 종훈 스님
역사지구 총도감 지현 스님

자승 스님 6일 임명장 수여


종훈 스님


지현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총무부장 종훈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이번이 33대 집행부의 마지막 총무부장 임명"이라며 "많이 남진 않았지만 총무부장을 중심으로 부실장 스님들과 협력을 통해 업무를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훈 스님은 능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사미계를 받았다. 해인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결사총괄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자승 스님은 전 총무부장 지현 스님에게 견지동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사업 총도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이 꼭 이뤄내야 할 사업인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인이라면 폭력은 안된다"

종평위, 서남아 갈등 성명 발표

최근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경파 불교단체들의 무슬림 공격과 방글라데시에서의 줌머인 탄압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규탄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9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남아시아의 소수민족 탄압과 종교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종평위는 성명서에서 "폭력에 대해 비폭력 저항으로 맞서는 전통을 지켜온 불교도들이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는 종교분쟁의 주도세력으로 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자비와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이 지역에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한 스리랑카와 미얀마, 방글라데시 정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대장경, 초학문적 접근 시급"

2013년 대장경축전 국제학술심포지엄

랭카스터 등 석학 참석 승려 · 신앙 등 고찰


9월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로버트 버스웰, 루이스 랭카스터, 바바 히사유키 교수 등 석학들은 대장경 연구의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했다.

2013대장경축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대장경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위원장 홍준표)는 9월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13대장경 세계문화축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려대장경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체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식민사관에 의한 대장경 영문표기의 문제점, △대장경 편집 총책임자인 수기대사에 대한 재평가,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대장경의 모본으로서의 고려대장경 위상 등이 발표됐다.

대장경 연구, 과학과 접목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루이스 랭카스터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고려대장경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고려대장경의 연구 분야는 방대하기에 연구 방법이 한정돼서는 안된다"며 "차후 연구에는 건축학, 역사학, 예술,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예를 들어 경판을 새긴 나무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건물, 판가가 서있는 흙, 단어가 나타나는 양상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가 급속히 발전하는 환경에서 디지털화된 텍스트와 영상과 연계하는 부분이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제 개인차원 연구는 집단 중심적 연구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인문학 분야의 학문문화에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장경 총책임 수기 대사 '주목'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는 세미나에서 고려대장경 제작을 총책임한 수기(守其) 대사를 최초의 근대 문학비평가로 평가하며 수기 대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했다.

버스웰 교수는 수기대사를 '근대 문헌비평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라스무스(1466~1536)보다 200년 앞선 탁월한 문헌학자라고 극찬했다.

그는 그 근거로 수기 대사가 남겨놓은 총 30권으로 이뤄진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을 제시했다.

이 책에는 수기 대사가 이끌던 교감단이 수천 개 경전의 다양한 판본들을 어떻게 수집, 교감해 대장경 편집을 완료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버스웰 교수는 "수기 대사는 자신만의 교감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융통성과 직관을 발휘해 서양 문헌비평가들이 초기에 범하기 쉬웠던 오류를 피했다"며 "서양의 문헌비평가들이 성서 교정판을 출간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이미 수백 년 전에 피했다는 점에서 더욱 위대하다"고 했다.

日 "국가 차원서 대장경 신봉"

바바 히사유키 일본 불교대 외래교수는 일본에서 국가 차원에서 고려대장경을 독경하는 등 고려대장경 자체가 하나의 신앙으로 까지 발전했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일본이 고려와 조선 정부에 고려대장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국가기도회에서 고려대장경을 읽도록 했다는 사실은 처음 밝혀진 내용이다.

바바 히사유키 교수는 "당시 아시카가(1336~1565) 막부는 기도회에서 고려대장경 전독(轉讀 · 경전을 읽을 때 부분만을 읽는 것)을 하였으며 이러한 기도회는 교토와 수도권 일대, 혹은 전국에서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회와 소통한 조계종 33대 집행부

조계종 성과 자료집 발간… 9월 중순 배포

오는 11월로 임기가 마감되는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4년 성과에 대한 평가집이 발간된다.

조계종은 제33대 집행부의 성과를 담은 〈제33대 집행부 성과 자료집〉을 9월 중순경 발간한다.

지난 2009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주요 종무기록 및 성과를 담고 있는 이 자료집은 집행부 사상 최초로 종단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결과물이다.

제33대 집행부는 성과 총평에서 "'사회와 역사 앞에 나서서 소통'했으며, '종무행정을 중심으로 불교중흥 모색'했고 나아가 '대승보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승가교육 전면개선'에 나섰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자성과 쇄신'을 통해 '종단 운영의 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통문화 보전과 계승'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정리가 이뤄졌다. 33대 집행부는 주요 종무 성과로 △화쟁위원회, 노동위원회 출범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확산 노력 △기본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현대승가상 구현 △종단 승려복지제도 시행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노력 △쇄신입법 제정 및 시행 △1000일 정진, 야단법석, 무차대회, 대중공사 등 총 35개를 내놨다.

향후 한국불교가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도 제시됐다. 성과 자료집이 제시한 과제는 통합적인 종단 운영을 비롯해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종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종무역량 강화 등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 급선무"

불시넷, 5일 제5차 대화마당

"종헌종법에 맞춰서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는걸까?"

장주 스님의 도박 폭로전 · 자승스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수좌 스님들의 '자승스님 재임 반대' 등으로 연일 소음이 끊이지 않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시민 단체들이 대화 마당을 열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 제5차 대화마당이 9월 5일 템플스테이 기념관 3층 보현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불시넷 정웅기 운영위원장,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전준호, 홍지연 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위원장, 이향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연구소장,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김두환 불교환경연대 조직국장 등이 참여했다.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은 "(폭로전 등으로) 소문만 무성하고 신뢰를 쌓을 수 없다. 불교계 안에서 소문이 소문을 낳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일반 시민의 관점 즉 상식선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비칠 뿐이다.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웅기 불시넷 운영위원장은 수좌스님들의 주장은 종단 종법을 넘은 윤리 도덕적 문제라며 이것이 현 선거의 모순이며 종단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재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 민심이 반영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주장 등이 제기 됐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계사에 나투신 관세음보살

조계사, 5일 관세음보살 점안의식 봉행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9월 5일 새로 조성된 관음전에서 주불로 봉안된 관세음보살상 점안의식을 봉행했다.

이날 주지 도문 스님은 "수행하는 대중을 위해 공양을 올리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며 "많은 불자가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마음을 달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관음전 마련에 애써줘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점안한 관세음보살상은 통상적인 보살상과는 다르게 반가사유상으로서 대중들이 법당 안에 들어섰을 때의 눈높이와 같도록 했다. 고해에 허덕이는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서 헤쳐나가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후불탱화 대신 봉안한 99존의 관세음보살상은 과거, 현재, 미래에 상주하는 33분 관세음보살을 각각 의미한다. **신중일 기자**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이 9월 5일 새로 조성한 관음전 주불 관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하고 있다.

불교언론인모임 '인사클럽' 창간호 나와

불교언론인모임 '인사클럽'(회장 윤청광)이 창간 회보 'B&I'를 발간했다.

인사클럽은 "'B&I'의 B는 Buddha(부처 님)와 Buddhism(불 교), I에 는 Insaclub(인사클럽), Insight(통찰)의 뜻을 담았다. 또, Eye(정견)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언론인들의 모임인 인사클럽이 불교의 내일을 밝히겠다는 서원을 'B&I'로 표현했다. 이 6가지 가치를 지면에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I' 창간호는 △이학종 미디어 붓다 대표의 '불교언론(인)의 지향과 자세' △정성운 불교포커스 주간의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선거, 전망과 과제' △윤청광 인사클럽 회장의 칼럼 '떠날 때는 말없이' △윤남진 소셜리서치&멘토르 공동대표의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의 허와 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중일 기자**

지우스님과 함께하는 범음의 큰 메아리!

● 지우스님 독경 CD 신명나는 회심곡



* 지우스님 약력 *
-.1967년 대구 안국사 보성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
-.영산재 범음범패 바라밀 예술단장(범패:바라춤,법북,회심곡)
-.문화공보부 등록제411호 홍보위원
-.동국불교 전법대학교 졸업(1992년 1기생)
-.영남미술작가협회 영남총본부심사위원
-.한양미술작가협회(영남총본부 초대작가)
-.현 바라밀예술단 단장
-.2003년 3월해군 참모총장 대장 장정길 감사패
-.2006년 5월제8군단장 중장 이상위 감사패
-.2007년 2월 군수사령관 중장 양원모 감사패
-.2007년 10월 제1군사령관 대장 김태영 감사패
-.2013년 4월 경북직업훈련교 도소장 이경우 감사패

● 각종행사 사진






바라밀 예술단이 하는일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 예수재,
49재, 구병시식, 차량고사, 안택 등
각종 불교행사를 깊은 신심으로
지극정성 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립니다.
〈작법무 (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 법당마다 가득자리를 채운 지우스님 작품들



행사문의 : 010-8877-7878, 010-3597-1515

일 주 문



일자일불 사경대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12일 일자일불 사경대회를 대구 팔공산 씨네80 자동차극장에서 팔공산 승시 사경대회를 개최한다. (053)986-9575



제18회 만해추모제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8월 31일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에서 제18회 만해추모제를 봉행했다.

김종규 이사장 대통령표창 수상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환수 기여 공로로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사진〉이 문화유산신탁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대통령 표창을 지난 8월 20일 받았다.

이번 대통령 표창은 미국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102년 만에 되찾는 등 우리 문화유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문화유산신탁 이사장을 맡으며 신탁 회원 증가 운동을 통해 애초 300여명에서 현재 3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최근 김 이사장은 전남 명물 보성여관을 신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보존에서도 새로운 유형을 개척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1억원 전달

아름다운동행에 군종교구지원기금으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구룡사 회주)이 군종교구지원기금에 써달라며 1억원을 지정기탁했다.

정우 스님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최근 전국 군부대 법당을 둘러본 정우 스님은 "사단급 이하 법당은 비인가 건물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노후화로 지붕이 누수되고 건물이 균열되고 바닥이 붕괴되는 등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라며 "논산 호국 연무사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지만 집중투자로 인해 현재 군종교구에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통일음악제는 진호국가불사에 부합"

제 3회 통일음악예술제 여는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등정사

"총지종은 창종이래 매일 '국태민안'과 '조국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나라 불공을 공공서원으로 제정하고 모든 법회의궤 속에 넣어 이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통일음악예술제도 총지종의 진호국가불사(鎭護國家佛事)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청소년, 새터민,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이들이 음악을 통해 모두 하나가 되는 대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9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리는 제 3회 통일음악예술제의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평화를 노래하다'란 주제로 열리는 올 이번

9월 28일 국립박물관 극장 '용'서 9월 27~28일 단양 경로법회도

통일음악예술제는 △여는 소리 △평화의 솔 △상생의 소리 등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또한 이번 음악제에는 원영석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정행 스님(소프라노), 김재섭(바리톤), 이용구(단소), 소리꾼 김용우 등이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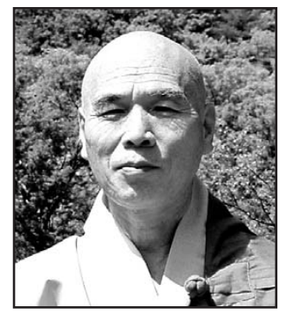
이번에 3회째를 맞은 통일음악제는 2011년 제 1회 대회를 서울 KBS홀에서, 2012년 제2회 대회를 부산 동해중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총지종은 이에 앞서 9월 27·28일 양일간 단양 대명콘도서 제 10회 경로법회를 연다.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는 65세 이상의 총지종도들이 대상이며, 전국 37개 사원에서 500여 어르신이 동참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실버 레크리에이션 △국악예술제 △사원별 장기자랑 △초대 연예인 공연 △온천욕 △통일음악예술제 관람 등이다.

법등 정사는 "우리 종단은 호국불교의 이념외에도 가정의 바탕인 경로효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최대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지리산 칠불사 회주 통광 스님 입적



하동 칠불사 회주이자 대강백인 제월 통광 스님이 9월 6일 오전 8시 45분 지리산 칠불사에서 입적했다. 법납 54세, 세납 74세. 영결식과 다비식은 10일 오전10시 칠불사에서 제월문도회장으로 봉행된다.

1963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1963년 범어사에서 수선안거이래 10하안거를 성만했다. 1975년 동국대학교 역경연수원을 수료하고, 1975년 탄허스님의 화엄경 역경교열에 참여했으며, 1977년 탄허대종사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다.

1978년부터 1995년까지 칠불사를 복원하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를 역임했고,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쌍계사승가대학 강주를 지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칠불사 주지 및 회주 소임을 맡기도 했다.

2007년 12월7일부터 2009년 12월 6일까지 조계종 역경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역서로는 〈고봉화상선요 · 어록〉(1993), 〈초의다선집〉(1996), 〈진감선사대공탑비문〉(2005), 〈證道歌 언기주〉(2008) 등이 있다.

-임종게-

生本無生何好生(생본무생하오생)
滅本無滅何惡滅(멸본무멸하오멸)
生滅好惡寂滅處(생멸호오적멸처)
法身光名遍法界(법신광명변법계)

덕수궁에서 우리 문화를 배우다

문화재청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 진행


안휘준 교수


이원복 교수


박동춘 소장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덕수궁 정관헌(靜觀軒)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문화계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9월 13일에는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 현대미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현주소에 관해 이야기한다.

9월 27일에는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가 35년간 '먼나라 이웃나라' 완간의 소회를 밝힌다.

10월 4일은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이 '차 문화,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차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각각 강연은 90분 동안 진행되며 주제별 강연과 청중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청은 사전 예약자를 180명으로 제한한다. 사전 예약은 오는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명랑운동회로 이주민 화합 도모"

마주협 9월 15일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Happy World Together' '제5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9월 15일 잠실 종합운동장내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와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 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도제)가 지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이주민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800여명이 참석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든다. 이에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도제 스님을 9월 2일 인사동 누리에서 만나 이번 대회의 특징과 불교계 이주민 정책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올 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다문화지원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8개 국가 약 800여명의 이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축구, 400M 계주 및 줄다리기 등을 통해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명랑운동회로 구성된다.

스님은 "그동안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게임들이 화합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는 누구나 참여해 웃고 즐길 수 있는 운동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한편, 마주협은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비상대책위원회와 김포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와 협력해 수도시설지원과 방글라데시 폭력사태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한 불교계 이주민 실태조사 및 각종 상담 지원도 계획 중에 있다. 이에 이주민에 대한 기초정보와 실태 확인 및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02)722-2206

정혜숙 기자

전무송, 마사이족에게 생명의 물 선사



전무송 씨(좌)와 남정덕 지구촌공생회 사무국장

"지구촌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불자 배우이자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무송 씨(72)가 케냐 마사이족에게 생명의 물을 선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무송 씨는 9월 5일 고양시 아람누리극장에서 아프리카 케냐 우물관리 후원금 100만 원을 지구촌공생회에 전달했다.

전무송 씨는 전달식에서 "존경하는 월주 스님과 활동가들의 보살행이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결과로 회향되었으면 한다"며 밝게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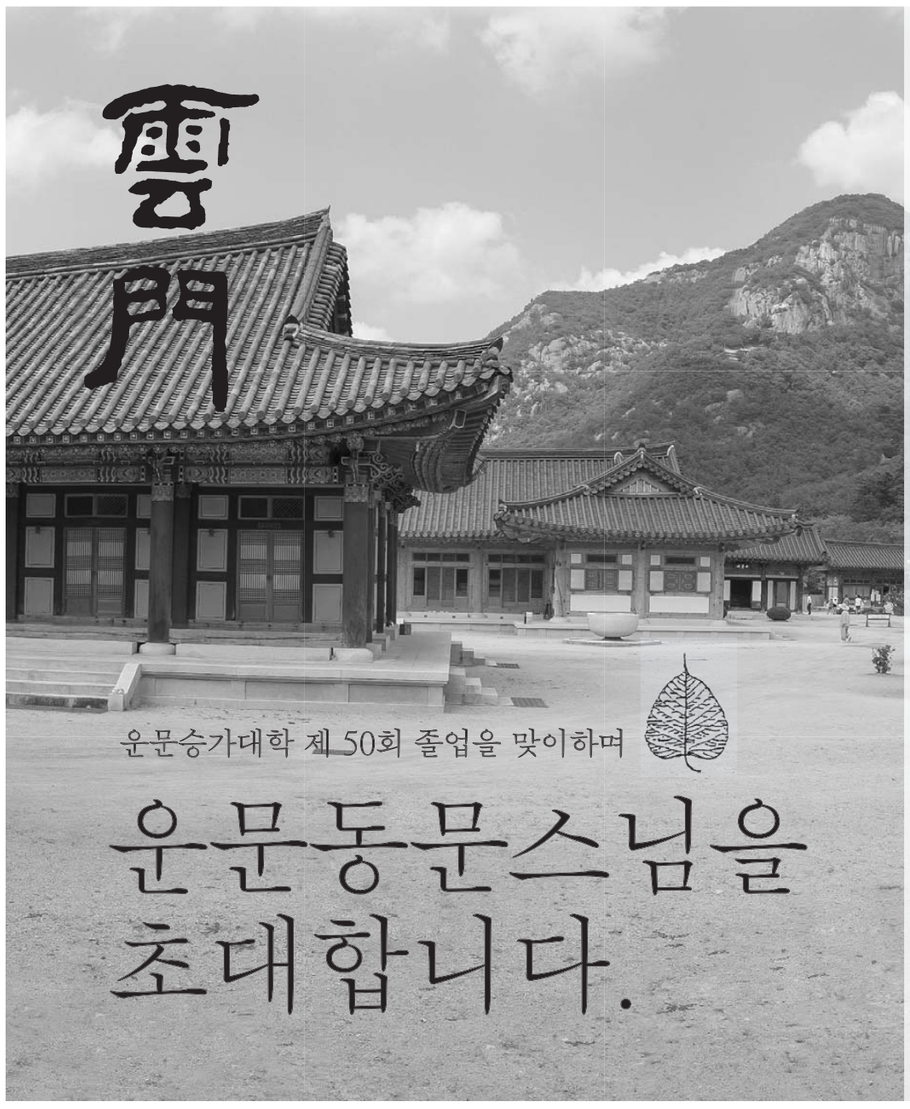
지구촌공생회 남정덕 사무국장은 "무엇이든 사람의 손길이 자꾸 닿아야 생기를 유지하듯이 생명의 우물도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무송 선생님의 기부가 목마름으로 가득한 케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미얀마 문화부 부장관 목탁 스님과 환담


목탁 스님(좌)와 우탄 쉬에 부장관

미얀마 문화부 부장관이 9월 4일 청진동 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을 방문했다. 9월 5일부터 광주에서 진행되는 '제1회 한국 동남아시아 문화부 장관 회의' 참석차 내한한 우 탄 쉬에 부장관은 내한 첫 방문지로 미얀마문화원을 방문해 목탁 스님과 환담했다.

미얀마문화원을 방문한 부장관은 한국 미얀마 불교교류와 봉사활동에 대한 목탁 스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목탁 스님은 앞으로도 상호 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우 탄 쉬에 부장관은 일정을 마치고 7일 출국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운문승가대학 제 50회 졸업을 맞이하며

운문동문스님을
초대합니다.

운문 동문스님 여러분,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은 기억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운문에서의 추억은 또렷해지기만 합니다. 그 시간, 돌이켜 보면 빛나던 초심의 시간이었으며, 긴장되고 두근거리던 젊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운문승가대학에서는 1964년에 비구니 전문강원 명칭으로 1회 6명이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0회가 되었으며, 졸업생 수는 1,85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만큼은 모든 동문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하룻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반백년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주시던 총명하신 스승님께서 아직 제자들의 법명, 얼굴, 성격을 기억하고 계시며, 후박꽃 향기 속에 묻어둔 우리의 이야기들도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문스님 여러분,

올 동문회에는 선후배의 그리움을 전하는 자리, 현재를 사는 동문들의 열정을 경청하는 자리,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배들의 꿈을 설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 동참하시길 고대합니다.

동문회기간 | 2013년 9월 24~25일(1박 2일)
개 최 일 시 | 2013년 9월 24일 오전 10시
장 소 | 운문사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신원리 1789) / 054.372.8800

운문사 雲門寺
www.unmunsa.or.kr

동문회장 우송
운문승가대학 학장 홍륜 합장
주지 일진



가수 소냐와 유열이 '아름다운 강산' 을 열창하고 있다. 이날 음악회가 열린 용산전쟁기념관에는 1만여 불자들이 모여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열린음악회 시작에 앞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정진을 당부했다.



열린음악회에서 1만여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秋夜를 뜨겁게 달군 '평화의 음성공양'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 9월 3일 열린음악회 성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 땅의 평화를 노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 (위원장 자승)와 KBS는 9월 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인기가수 장윤정, 조성모를 비롯해 유열, 소냐, 박현빈, 웅산, 아웃사이더, 노브레인 등이 출연해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공연 시작 한시간 전부터 용산 일대는 음악회를 보기 위해 온 1만여 불자들로 북적였다.

음악회는 불교를 홍보하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1700년 역사를 이어온 한국불교의 곳곳과 간화선, 불교세계화 등이 영상을 통해 소개됐다.



장윤정이 '어머나' 를 부르고 있다.



노래를 함께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스님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한반도평화대회 주최 측 스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부르는 평화의 노래도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이날 열린음악회는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 을 주제로 평화대회의 의미를 문화와 공연예술로 표출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가슴에 평화에 대한 염원을 굳게 하는 커다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스님은 또 "민족이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 긴장하며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불자들이 앞장서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인류평화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9월 27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자비구현 인류화합 한반도평화대회' 에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가 주관한 행사에 이어 KBS열린음악회가 곧바로 이어졌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가을을 맞아 첫 열린음악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반갑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자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노래하게 돼 영광입니다."

음악회의 첫 순서는 유열과 소냐가 맡았다. 의정부시립합창단과 함께 부른 '아름다운 강산' 등 노래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평화를 바라는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가운데 내빈석에 자리한 스님들과 1만여 불자들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노래했다.

1만명 한 목소리로 평화 합창
태극기 흔들며 애국선열 기려
장윤정 등 열창으로 신명 더해

다소 차분한 첫 무대를 이어받은 이는 트로트 가수 박현빈. '샤방샤방' '오빠만 믿어' 등 박현빈의 무대에서 관중들은 함께 춤도 추며 흥을 더했다.

울산에서 올라온 김현숙 씨는 "서울까지 먼 길이라 고민했지만 잘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관중석이 가득차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음악회를 보고 있던 시민들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LED화면을 통해 함께 공연을 즐겼다.

박현빈의 무대로 이미 흥이 오를 대로 오른 무대는 국민가수 장윤정이 등장하며 방점을 찍었다. 장윤정은 '왔구나 왔어' '어머나' '짠짜라' 등 자신의 히트곡을 모두 불렀다. 이어 KBS 예술단의 라틴댄스와 웅산, 아웃사이더, 노브레인, 조성모 등의 열창이 이어졌다.

서울 가락동에서 온 이임자 씨는 유난히 즐거워 보였다. 그녀는 "불교계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불자로서 기분이 좋다. 여러 생명의 안녕을 바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잘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겠다"고 활짝 웃었다. 한편,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운영위원회(상임운영위원장 수불)' 는 9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7일 진행하는 '한반도 평화대회' 의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먼저 오후 10시 부산 UN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천도재가 열린다. 천도재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과 UN군 14만 명과 북한군, 중국군 등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운영위원회 측은 전쟁기념관에 보관된 전사자 명부에서 국군과 UN군 명단을 받아 분류해 이날 영가천도를 기원할 계획이다. 호국선열의 희생을 하나하나 기억하겠다는 의지다.

천도재를 봉행한 스님들이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오후 2시에는 본격적인 대회 일정이 시작된다.

범종 타종과 승무 공연이 먼저 장엄하게 펼쳐진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개막 선언과 상임운영위원장 수불 스님의 경과 보고,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네팔 룸비니에서 길어 올린 평화의 불을 안좌하며 행사 시작을 알린다.

뮤지컬 음악감독 1호 박칼린, 신영일 MC의 사회로 기념공연 1회차에는 오케스트라 가수 폴 포츠,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어린이합창단,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화합의 노래를 부른다. 이어 고불문과 함께 봉행사, 대회연설 등이 진행되며 황병기 지휘자의 지휘 아래 기념공연 2회차로 부산시립국악관련악단의 무대가 마련된다.

2회차 공연 이후에는 기념사와 축사, 한반도평화연대사 및 평화 기원 타종 등이 진행되며 바비킴, 인순이, 이선희 등 대중가수 들이 신명나는 노래를 뽐낸다. 끝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살풀이 한마당이 대미를 장식한다.

행사장에는 50m 높이의 초대형 LED 모니터가 설치되며 남대문과 사찰을 의미하는 대형 세트장에 가로 72m, 높이 20m의 연꽃을 상징하는 무대가 세워질 예정이다.(02)575-912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전쟁 정전60주년 2013 한반도평화대회 기념행사 발자취

2월 20일	대회 선포 기자회견
2월 27일	제1회 한반도 평화 세미나
3월 15일	조계종 국립현충원 참배
3월 16일	범어사 수륙재
4월 23일	범어사 한반도 평화 기원 100일 기도 입재
4월 30일	통도사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
5월 2일	임진각 평화의불 이운법회 통도사 한반도 평화통일 100일 기도 입재
5월 8일	진관사 주한회국대사 참석 리셉션
5월 10~13일	틱낫한 스님 초청 평화법회
5월 24일	제2회 한반도 평화 세미나
6월 8일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영령위령대재
6월 25일	통도사 평화 기원 100일 기도 입재
7월 26~28일	조계종 어린이청소년 DMZ평화순례
8월 15일	풍등제
8월 28일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국제포럼
9월 3일	KBS열린음악회 녹화
9월 27일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본행사

2013 제5차 봉녕사 세계 사찰음식 대향연

10월4일(금)~5일(토)



'이제는 세계다!'

사찰음식 본찰 봉녕사에서 국내최초

전 세계 불교국가를 초청하여 세계사찰음식대향연을 엽니다!

2013 WORLD TEMPLE FOOD FESTIVAL

○ 보시-사찰음식 경연대회
○ 지계-한국의 전통사찰음식과 7개국 불교국가의 사찰음식 전시
○ 인욕-7개국 스님들의 장엄한 탁발순례
○ 정진-우관스님/지견스님 사찰음식 강의
○ 선정-B-Boy, 색소폰, 풍물놀이패, 쟁강춤, 다문화어린이 공연
○ 지혜-7개국 세계사찰음식부스, 먹거리부스, 체험부스
(단주, 연꽃컵등, 꼬치만들기, 무채 가늘게 썰기, 떡메치기, 투호던지기)

사찰음식 경연대회 참가요강

접수마감: 9월22일(일)17시(개인10팀/단체2팀) 참가자 전원 20만원 재료비 지원
제출서류: 봉녕사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파일 다운로드, 양식에 맞춰서 제출
시상내용: 육바라밀상 시상-시상식:10월5일(토)16:30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참가한 모든 팀에게 기념품 증정
주소 442-1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248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담당자 앞]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
이메일 templefood@bongnyeongsa.org
전화번호 031-242-5412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주관: 세계사찰음식대향연 조직위원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경찰청, (사)세주불교문화원

올 추석연휴는 '불교스타일'로

불교문화사업단, '2013 추석 템플스테이' 실시
전국 사찰 추석합동차례 및 집중수련 진행


용주사 한가위 템플스테이 모습. 참가자들이 추석 당일 합동 차례를 올리고 있다(우).
〈사진 제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올해 추석 연휴는 말 그대로 황금연휴이다. 추석 연휴와 함께 주말 휴일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적지 않은 국민들은 황금연휴를 만끽할 계획들을 세워 놓았다.

전국 사찰과 수행단체는 9월 19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합동차례 지내기를 비롯해 추석 선수련회 및 집중수행 등 추석 연휴를 힐링으로 채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산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을 기운이 완연한 산사에서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는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먼저 전라북도 부안 **내소사**는 작년에 이어 '달빛 맞이 추석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송편 빚기, 발우공양, 용채포 만들기를 비롯해 보름달 아래에서 연등을 들고 소원을 비는 '탑돌이 안행'도 마련돼 있다. 또, 내변산의 직소폭포, 전나무 숲을 걷는 트레킹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 정취도 느낄 수 있다.

강원도 동해 **삼화사**는 '함께 하는 한가위, 행복나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무릉계곡으로 유명한 삼화사의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계곡명상과 달빛 명상을 비롯해 범종체험, 나를 깨우는 108배, 송편 빚기, 제기 만들기와 투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삼화사 추석 템플스테이는 한국전통문화 홍보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경우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충청남도 예산 **수덕사**는 한가위를 맞이해 '달, 숲, 길 그리고 禪 2013'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템플스테이 기간 중 달빛바다 보러가기, 달빛숲길 걷기, 달빛 참선, 달빛마당 작은 음악회 등 매일매일 '즐거운 달빛 이벤트'를 개최해 신나는 명절여행을 선사할 예정. 또 스님들과 함께 하는 송편콘테스트와 국보 49호로 지정된 수덕사 대웅전에서 차례를 지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선무도의 본산 경주 **골굴사**의 추석 템플스테이도 가볼만 한 곳이다. 골굴사의 추석 템플스테이는 달빛 명상, 선무드라 수련, 솔잎 따기, 송편 빚기, 합동차례, 전통 민속놀이, 국궁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오감을 즐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 비용을 내면 기림사와 문무대왕 수중릉, 감은사지를 답사할 수 있다.

경남 산청 **대원사**에서는 송편 빚기와 단청그리기, 달맞이 탑돌이, 가을 숲 포행을 비롯해 한방약초찜질 체험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 가을 숲, 달빛 템플스테이'를 개최하며, 경기도 용인시 **법륜사**는 송편 빚기, 발우공양, 문수봉 산행, 고려불화 세상, 나를 깨우는 108배(자율), 감사명상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 추석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 하동 **금봉사**는 명절 후유증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한가위 달빛소나타' 템플스테이를 연다. 9월 18~20일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한가위 달빛을 받으며 소원 보내기 △아름다운 달빛아래 명상하기 △월광소나타 음악명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픈 송편빚기 △나의 뿌리를 생각하며 차례지내기 △소나무 숲속 걸으며 방하착, 생각 내려놓기 등을 진행한다.

가족들 눈치 보는 것이 불편한 젊은 남녀를 위한 템플스테이도 있다. 수원 **봉녕사**는 9월 18~19일 '추석맞이 남녀방콕탈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모든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팔관재계 수계 △마음나누기 △발우공양 △다도 △걷기명상 △예불 △사찰명절음식 체험 △생명의 소리 △사찰예절과 문화 △명절산사놀이 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 충남 계룡시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대봉)는 9월 19~22일 '추석 선 수련회'를 진행하며, 위빠사나명상센터 **호두마을**은 추석연휴기간인 9월 13~19일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지도법사는 도경스님으로, 부처님 당시 전통적 수행법과 쉐우민센터(마음 보는 법)를 지도받을 수 있다. 연. 108배, 예불, 결제 등을 한다.

조상의 공덕을 기리는 합동차례제도 열린다.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는 9월 19일 조상을 기리는 '한가위다례제'를 진행하며, 송편을 나누어주는 '한가위 송편나눔' 행사도 연다. 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가족 · 친지들의 귀성길이 무탈하기를 발원하는 '한가위 3일기도'를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또한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9월 19일 일체 조상과 만물만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합동천도재를 봉행되며, 서울 불광사, 부산 홍법사 등 전국 사찰에서도 조상을 추모하고 천도하는 합동차례법회를 연다.

신중일 · 이나은 기자

2013년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사찰명	기간	프로그램	연락처
화운사(용인)	9.18~9.19	가족 행복 만다라, 달빛명상, 새벽예불, 너와 나를 위한108배	031-335-2576
법륜사(용인)	9.18 ~ 9.20	송편 빚기, 발우공양, 문수봉 산행, 고려불화 세상, 나를 깨우는 108배(자율), 감사명상	031-332-5702
마곡사(공주)	9.18 ~ 9.20	범종체험, 108 염주 만들기, 송편 빚기, 스님과의 차담, 솔바람길 산행, 연등 만들어 달빛 맞으며 탑돌이(소원등 날리기), 운력	041-841-6226
영평사(공주)	9.18 ~ 9.19	합동차례 지내기, 보름달맞이 탑돌이, 소원지 쓰기, 자비명상 등	044-857-1854
	9.20~ 9.22	자비명상, 주지스님과의 즉문즉설, 트래킹	〃
수덕사(예산)	9.17 ~ 9.18 9.19 ~ 9.20 9.21 ~ 9.22	달빛바다 보러가기, 달빛숲길 걷기, 달빛 참선, 달빛마당 작은 음악회, 합동차례, 스님과 함께 하는 송편콘테스트와 전통놀이	041-330-7789
금봉사(하동)	9.18 ~ 9.20	달빛소원 보내기, 달빛명상, 음악명상, 송편 빚기, 소나무 숲길 포행명상	055-882-2371
골굴사(경주)	9.18 ~ 9.24	달빛 명상, 선무드라 수련, 솔잎 따기, 송편 빚기, 발우공양, 주지스님과 차담 합동차례, 전통 민속놀이(윷놀이, 제기차기), 국궁체험 – 성지순례(기림사와 문무대왕 수중릉, 감은사지–추가비용 .)	054-775-1689
범어사(부산)	9.17 ~ 9.18 / 9.18 ~ 9.19 9.19 ~ 9.20 / 9.20 ~ 9.21 9.21 ~ 9.22	108배, 행복을 위한 서원주 만들기, 달빛명상, 사불 그리기 체험, 스님과의 대화, 편백나무 숲길 포행	051-508-5726
대원사(산청)	9.19 ~ 9.20	송편 빚기. 단청 체험. 사찰요리. 한방약초 찜질체험. 달맞이 탑돌이. 가을 숲 포행.	055-974-1112
내소사(부안)	9.18 ~ 9.20	사찰 답사, 스님과의 대화 및 송편 빚기, 발우공양, 전나무숲 포행, 108배 염주만들기, 윷놀이, 용채포 만드리, 탑돌이 안행 및 달빛아래 소원빌기, 트레킹	063-583-3035
미황사(해남)	9.19 ~ 9.22	추석맞이 템플스테이/연등 만들기, 송편 빚기, 노을바라보기	061-533-3521
백담사(인제)	9.18 ~ 9.19	송편 빚기, 108배, 추석맞이 차례지내기, 자비명상(행복한 산행)	033-462-5035
삼화사(동해)	9.18 ~ 9.20	범종체험, 스님과의 대화, 송편 빚기, 전통놀이체험(제기만들기,투호), 달빛명상,계곡명상	033-534-7676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불교여성개발원 가을맞아 강좌 다채

불교경전 · 힐링명상 · 승만경 공부 등 마련


승만경 강좌를 듣고 있는 여성 불자들

가을을 맞아 여성불자를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불교경전, 힐링명상, 승만경 공부 등 다양한 강좌가 열린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교육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불교경전강좌를 연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며 △불교총론 및 대승불교(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초기경전 니까야 산책 · 화엄경 보현행원품 보살의 길 (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반야심경과 공(空) · 법화경(오지연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수행의 이해(전 봉인사 선원장 진경 스님) △불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혜숙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객원교수) 등을 주제로 여성 불교학자들과 같이 읽으며 부처님의 메시지를 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매년 봄 · 가을에 승만경 강좌를 꾸준히 마련해온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 연구회는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제8기 승만경 공부'를 시작한다.

강사는 중앙승가대 불교상담교육원 교육국장 도영 스님으로 승만경 경전을 상담심리학 관점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몸 · 마음 통합' 힐링 명상도 10월 10일부터 11월 28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마가 스님(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지장 스님(한국차명상협회 상임이사), 황수경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장성화 해피로터스 명상연구소 대표, 서윤숙 명상마사지 심리상담연구소 대표, 신혜영 교수(춘천교대 음악교육과), 정진희 불교정통꽃꽂이 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진들이 △스트레스 관리 마인드케어 명상 △명상 마사지 △몸 · 숨 · 맘 이완요가 △차 명상 △화예명상 등을 강의한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봉은사, 불교영어강좌 수강생 모집

10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12회 진행

봉은사(주지 진화)는 불자 인재를 양성하는 '불교영어강좌'를 개강한다.

강좌는 10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봉은사 수련원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혜연 스님(봉은사 템플 지도법사), 무진 스님(스위스 법계사 주지), 대진 스님(무상사 국제선원 주지) 등이 △부처님의 일생(The life of the Buddha) △선과 업(Meditation and Karma) △불교의 발전(The Spread of Buddhism)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기본적인 문장을 읽고 해석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60명 모집이다. (02)3218-4895

이나은 기자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 6돌 맞아

9월 7일 기념법회…동국대 9월부터 '소통과 공감' 주제 행사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은 9월 7일 토요법회 6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도불공과 더불어 한밭국악회 최윤희 이사장의 전통문화공연, 정각원 합창단 축가 등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동국대는 6돌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법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이날 "법사와 대중이 함께 소통하는 토크 법회, 불교계 큰 스님과 동국대 교수진을 모신 지혜와 복덕의 행복 법회, 교법사 마가 스님을 비롯한 국내 최고의 몸과 마음치유 전문가를 초청한 힐링법회 등 다양한 법회를 열 예정"이라며 "정각원 토요법회가 더욱 환희로운 행복법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정각원은 토요법회 외에도 △조계종 사찰 등록 △포교원인가 정각원 불교대학 설립운영 △정각원장학생 선발 △복지시설 수탁경영(황학동 단우물 어린이집, 신당5동어린이집, 보리수 신당데이케어센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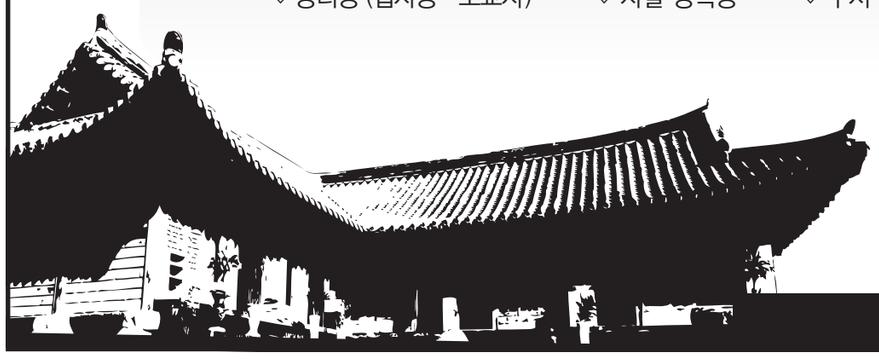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원각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 불기 2557년 하계 종도 연수 교육 및 포살 대법회에 동참하신 종도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8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합동차례·세시풍속행사 등 '풍성'…소외이웃도 한가족처럼

불교복지관 추석맞아 자비나눔 보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여 조상의 공덕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 이웃들 중에는 이런 명절이 더욱 쓸쓸하고 힘겹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불교 복지관들은 소외 이웃들을 위해 합동차례를 비롯해 어울림 한마당, 송편나눔행사, 자비쌀나누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 02-989-4214)은 9월 12일 복지관에서 '2013년 한가위 큰잔치 및 제 8회 강북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한다. 복지관은 흰쌀 20㎏을 120가정에 전달하는 '백미전달식'과 함께 복지관 이용자 및 보호자 250명을 대상으로 대중공양을 마련한다. 이밖에 본관 앞에서 '한가위 큰잔치 놀이'를 열어 다양한 먹거리 행사와 네일아트, 리본공예, 오륜콘 고리걸기 등 놀이·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강북노래자랑을 열어 초대가수 축하공연과 더불어 15팀의 본선 진출자들의 열띤 경연을 볼 수 있는 흥겨운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02-742-9500)은 9월 13일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한화호텔&리조트'와 함께하는 한가위 세시풍속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어르신 40명과 한화호텔&리조트 직원 40명, 낙산어린이집 아동 20명이 함께 참여해 송편·한과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 02-385-1351)에서 운영하는 지역재가포괄복지센터는 기초생활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2013 계사년 추석 명절맞이 합동차례'를 실시한다.

합동차례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홀로 사는 어르신, 노인부부, 실향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식전공연으로 민요공연을 실시하며 개회사, 인사말, 내빈 축사, 합동차례, 음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당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한영라이온스클럽 354A지구에서 후원하는 중식이 무료제공 된다.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 02-362-3348)은 추석을 앞두고 개관 1주년을 맞아 9월 13일 기념식 및 행복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개관 1주년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 후원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1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날 축하공연은 자폐성장애 1급을 가지고 있으나 뛰어난 청음실력과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김민수 학생이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한다.

행복나눔바자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복지관 야외주차장에서 실시된다. 물품판매, 먹거리 한마당,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들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바자회에 홍보대사 탤런트 한혜린이 애장품을 기증하고 직접 물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전액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행복나눔바자회에서 사용할 물품을 후원받고 있으며 의류·도서·가방·유아용품·완구 등 중고·미사용품 모두 기부가 가능하다.

서울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학, 02-806-1377)은 9월 12일 오전 11시 복지관 강당 및 대상자 가정에서 자비 쌀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쌀쌀한 마음, 쌀로 훈훈하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식생활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금천구 지역 내 저소득 가정들이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관은 저소득 가정 250가정에 쌀 20㎏를 각 가정에 전달하고 독거노인들을 복지관으로 초청해 점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비 쌀나눔 행사에 동참을 원하는 불자는 후원금이나 쌀 20㎏ 현물을 후원하면 된다.

경기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신운화, 031-637-6720)은 9월 11일 오후 2시 이천시종합복지타운 내 야외놀이터에서 이천시 장애가족과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한가위 송편나눔 행사 '보름달만큼 아름다운 이웃' 행사를 개최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천시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450가정을 선정해 송편을 전달한다. 또한 당일 행사에는 150여 명의 지역 주민과 장애가족이 참여해 송편을 만들고 전통놀이를 즐기며 한가위 행사를 열 계획이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051-628-6737)은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복지관 2층 강당에서 '한가위 어울림 한마당'을 연다. 서용교 국회의원, 이종철 남구청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세대 등 총 400세대를 초청해 쌀 및 생필품을 전달하고 트로트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한다. 또한 용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추석인사를 드리고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춘성 관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핵가족화로 한가위 명절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용호복지관은 소외계층에게 가족과 같은 의미로 한가위 명절을 함께 하고 이웃의 사랑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석을 맞아 불교복지관들이 자비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한가위 어울림 한마당 행사.

한편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와 **신흥사복지재단**은 추석을 맞아 속초노인복지관 광장에서 9월 10일 '제16회 자비나누기=행복더하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추석자비나눔에는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300세대에 재래시장상품권 10만원권, 승소세트 1박스, 배 1박스 등 5천1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에서 운영하는 **불광노인복지관**은 9월 6일 진관사에서 '한가위맞이 만발공양 및 문화공연'을 진행했다.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발우공양을 대접하고 어르신 에어로빅 공연, 회심곡, 민요공연 등 문화행사와 '웃음과 장수, 웃음과 건강, 웃음으로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조계종 무산복지재단(대표이사 정념)과 **양양군노인복지관**은 9월 6일 양양군내 60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초청해 점심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했다. 또한 10일 관내에서 어르신과 함께 '추석맞이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를 열어 윷놀이, 탁구, 바둑, 장기, 당구 등을 실시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자 트로트 가수 3인방 장기기증희망등록

선배 가수 정삼 씨 추천으로 9월 4일 등록

민성·안정심·이학열 씨 등 신인 불자 트로트 가수 3인방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4일 직접 사무실을 찾은 세 분은 선배이자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인 가수 정삼 씨의 추천으로 희망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일면 스님은 "세 분의 마음기부 동참에 진심으로 고맙다"면서 "여러분들도 정삼 씨처럼 주변에 꾸준히 장기기증을 홍보해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성 씨는 "가수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세상, 즐겁고 신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래한다"며 "우리의 희망을 담았다는 점에서 노래와 희망등록이 일치하는 만큼 더욱 즐겁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불자 트로트 3인방이 장기기증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성·안정심·이학열 씨

안정심 씨는 "장기기증 인식개선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주변 분들에게 제대로 알려 희망의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학열 씨는 "특히 인식개선에 기여하면 장차 내가 아플 때 기증을 받을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가수 민성은 '맞짱'이라는 곡으로 알려졌으며, 안정심은 '불이야', 이학열은 '사랑하는 사람아' 등의 대표곡을 불렀다. 이나은 기자

엄마와 아기가 함께 책 읽는 도서관

신사종합복지관 '옐로우 트리 모자방' 열어

신사종합복지관(관장 보련)은 9월 3일 신사어린이도서관 '옐로우 트리 모자방' 개관식을 가졌다.

'옐로우 트리 모자방'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존의 프로그램실을 도서관과 연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번 후원은 립톤이 5년째 진행하는 아동 후원 사회공헌 활동인 '옐로우 트리 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됐다. 유한킴벌리·이마트도 동참해 1천만원을 신사어린이도서관에 후원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장 보련 스님은 "서울시 복지재단과 진행 중인 '마을지향 복지관' 사업을 전개하는데 도서관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데 '옐로우 트리 모자방'까지 개관하게 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도서관 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031)376-4141 이나은 기자



신사종합복지관은 9월 3일 신사어린이도서관 '옐로우 트리 모자방'을 개관했다.

스님·시설종사자 연수교육 진행

조계종복지재단, 복지시설 설치 교육 및 복지포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산하시설 종사자들과 불교복지에 관심 있는 스님과 재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재단은 9월 30일~10월 2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2013년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복지시설 설치(유치)과정'을 개설해 연수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복지시설 유치과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불교계 복지시설 운영사례 등 불교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다.

복지시설 설립에 관심있는 사찰과 스님, 복지계 종사하는 재가자들은 참여가능하다. 특히 조계종 교육원 인증교육으로 연수교육 대상 스님들이 교육을 이수할 경우 인증점수 30점이 부여된다. 오는 23일까지 총 50명을 모집한다.

또한 불교사회복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9월 25~26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2013년 법인산하 실무자 협의회 워크숍 및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을 개최한다.

법인산하 실무자 협의회 워크숍 및 총회와 함께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략과 종교계의 역할 △사회복지조직의 갈등요인과 관리전략 등을 주제로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9월 12일 오후 3시 조계종 전법회관 6층 재단 프로그램실에서 '나눔을 생산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9월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사회적경제사업의 실무와 발전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룬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 교 조 계 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및사찰등록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 무 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 무 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장기기증은 자비의 실천…평등성 담아

8월 24일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

정연정 교수(동국대 생태환경연구소)

박노해 시인의 '인다라의 구슬' 에는 '나 하나 바로 살면 시든 희망이 살아난다' 는 구절이 있다. '세상의 관계 그물에서 세상도, 인생도, 나도, 생동하는 우주 그물에 이어진 존재' 라는 것이다. 8월 2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진행된 법회. 정연정 교수는 불교의 연기적 생명관과 무아설을 설명하며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와 보시의 보살행이, 장기기증이라는 나눔의 실천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내 그대 그리운 눈부처 되리
그대 눈동자 푸른 하늘가
잎새들 지고 산새들 잠든
그대 눈동자 들길 밖으로
내 그대 일평생 눈부처 되리
그대는 이 세상
그 누구의 곁에도 있지 못하고
오늘도 마음의 길을 걸으며 슬퍼하노니
그대 눈동자 어두운 골목
바람이 불고 저녁별 뜰 때
내 그대 일평생 눈부처 되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눈부처가 되길 바라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정 교수는 … 시인, 문학평론가, 문학박사. 현재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불교생태학, 생태문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시의 전통성과 불교생태의식〉, 〈에코토피아를 위한 풍경과 시선〉 등이 있고,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김시습 한시에 구현된 불교생태학적 세계관〉, 〈조지훈 시의 불교생태학적 세계관 연구〉 등이 있다.

반생명의 시대

21세기가 되면서 우리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했습니다. 20세기 규율사회는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마라' 등과 같은 부정성과 강제성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제재로 이어져 범죄율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죠. 반면 성과 사회는 '할 수 있다' 는 긍정성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도 자기착취라는 부정적 한계가 깃들어있습니다. 사회가 실적위주, 결과위주다 보니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지칠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세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신경성 질병으로 고통 받고, 사회에는 소진증후군이 만연하게 됩니다.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반생명의 시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동체대비가르침에 따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 나눔의 실천적 지혜를 불교인으로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타인과의 만남에서 부처를 발견하다

병은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만 현대 사회가 가진 질병에는 가장 강력한 침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낯선 마주침입니다. 아마 우리 일생일대에 가장 강력한 정문일침일 겁니다. 서로를 마주 바라보십시오. 민망하고 낯설지 않나요? 상대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상대의 눈에서 부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색함을 느꼈다면 거대한 벽을,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수라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아가의 눈을 들여다보며 부처님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을 뒤져가며 발견한 단어가 바로 '눈부처' 였답니다. '상대의 눈동자에 나타난 사람의 형상'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상대를 부처로도, 벽으로도, 아수라로도 느끼겠죠. 잠시 정호승 시인의 '눈부처' 라는 시를 감상해보겠습니다.

불교의 생명관

불교의 생명관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명과 생물학적 생명,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다 할 보편적 정의가 없기에, 생명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지곤 합니다. 생물학은 인간과 식물,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체란 DNA 사슬에 담긴 유전정보가 조성된 몸을 말합니다. 자기복제가 가능하죠. 불교에서는 죽여서는 안 되는 생명체인 중생을 생명으로 봅니다. 육도중생을 떠도는 존재죠. 인간, 축생, 천신, 아수라, 아귀, 지옥을 오가는, DNA와는 무관한 중생이죠. 생명에 대한 생물학과 불교적 관점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생물학에서는 식물을 생명으로 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식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인간의 몸에 의식이 결합되어야만 불교적 생명체, 중생으로 봅니다. 반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마음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논의에서 넘어가 이제는 불교적 인간관과 죽음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불상생' 이라고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걸림 없는 생사관을 가지고 있고, 자비와 윤리의 보시 또한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보자면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존재의 다발이죠. 인간은 오온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고(苦)와 연결됩니다. 즉 오온이 고인 셈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도 연기론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아론은 장기이식의 불교적 근거

무아설을 보면 비실체성, 탈집착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런 의미에서 무아설은 불교의 근본적 인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존재에 대한 실체적 인식이 담겨있죠.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불교에서는 보기에, 무아설은 장기이식을 위한 불교적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죽을 때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장기이식을 한다면 불교적 생명윤리로 봤을 때 더욱 좋은 일 아닐까요.

의사들은 장기이식에 있어 뇌사상태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뇌사는 죽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뇌사 상태를 죽음으로 간주합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수명(壽命), 체열(體熱), 의식(意識)이 없다면 육체는 동물을 위한 희생물, 즉 고기로 버려진다고 원시불교에서 이야기하니까요.

예전에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의 발달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식물인간은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뇌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기에 호흡기를 떼는 순간 뇌사환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는데 호흡기에 의지할 경우 이는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 요즘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는 걸까요. 의료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증, 즉 생체기증보다 뇌사기증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사기증은 한사람의 기증자로부터 동시에 여러 장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또한 생체기증과는 달리 기증자의 건강과 안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사장기기증 활성화 돼야

혹시 '은서법' 에 대해 아시나요? 법에서 정한 이식 허용 장기를 확대하자는 주장으로, 작년에 은서가 7개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살아났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습니다. 장기이식을 한꺼번에 7개씩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의사의 윤리적 행동과 법률상의 충돌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은서법' 을 만들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장을 이식할 때 대장 · 위 · 십이지장 · 비장 등 연결부수 장기의 동시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인간 몸에 의식 결합하는 것이
불교적 생명체 · 중생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 2만명
생명나눔은 행복사회 밑거름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아 환자에게 장기이식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은 어른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유교 전통이 강하다보니, 소아어린이 장기기증자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면 어른이 먼저 가져가고 없답니다. 소아기증자의 경우 소아한테 가는 게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제2의 은서법'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장기 이식 대기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식 신청을 하면 2~3년이 걸린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급한 환자들은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중국이나 저소득국가로 관광을 핑계 삼아 암암리에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건너가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장기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불법매매가 통용되고 신장 하나는 3억 정도에 거래가 된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체기증자가 이식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불법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암암리에서로 거래가 오가면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장기기증의 형태는 뇌사기증, 사후기증, 생체기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체기증 비율이 높습니다. 가족 전통과 유대감이 끈끈하다 보니 주위에서도 종종 가족 간에 신장과 간이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나라 생체기증 비율을 높이는 데 한 몫 합니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죠. 장기기증의 역사는 40년이나 넘었고 되었고 신장이식은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기이식 성공률 또한 95%이상이고 항생제도 개발이 잘 되어 있기에 장기이식의 부작용은 없는 편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에 대한 문제는 뇌사판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뇌사판정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기에 판정까지는 절차상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증을 하려해도 그 시간동안 기증 장기의 기능 손상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죠. 물론 뇌사판정을 너무 빠르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뇌사기증 희망자수를 세계별로 비교해보면 1위는 스페인입니다. 뇌사기증자수가 100명당 3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0명당 5.5명 수준입니다. 한국은 장기기증 희망신청자에 한해서만 장기를 기증받지만, 스페인은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다는 사람 빼고는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 희망자 명단에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잠재적 장기기증자인 셈이죠. 때문에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기간은 스페인의 경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 이라는 유교적 전통문화 문화와 함께 타인의 장기이식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장기기증 활성화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설사 본인이 희망한다 해도 가족이 반대하면 결코 기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기증에는 연기론 담겨 있어

오늘날 자비는 하나의 낱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자(慈)와 비(悲)는 별개의 말입니다. 자(慈)란 생명 있는 모든 일체중생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뜻하며, 비(悲)란 불행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불교 윤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 , 즉 중생(衆生)의 윤리라는 점을 특색으로 삼고 있으므로, 자비사상은 일체의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평등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비와 연계된 보시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귀하고 아까운 것을 보시하고 둘째,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셋째,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며 넷째, 인과법을 믿으면서 보시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 공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선업이 됩니다. 따라서 나눔의 실천으로서 장기이식은 연기론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좋은 밑바탕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분한신고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사)한국불교조계종 종단은 오늘에 이어 종도들의 새로운 원융화합과 그 이상을 높이고,범불교적인 여러문제들을 해결하고 청정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조계종은 다종교 다문화와의 충돌과 갈등속에서 신심이 떨어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한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각 사암 및 종도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4일

(사)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대봉 합장

분한 안내

분한신고 기간 : 2013년 9월4일부터 10월30일까지

접 수 처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신고요령 및 절차

-. 승려 및 분한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통 -.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등록증 사본 1부 -. 주지 임명장 사본 1부 -. 명암판 사진 2매

유의사항

1. 기간내에 본 종단에 분한 신청하지 않는 종도는 탈종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기간내 분한신고을 필하지 않은 종도님들은 본 종단에서 앞서 발행한 모든 증빙서류는 효력이 상실되며, 분한신고를 필하신 종도님께서는 제반 서류를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구 종무원 및 총무원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교구 종무원

교 구	종무원장	사 찰 명	연 락 처
서울교구	능혜스님	용화선원	010-3133-9252
경기교구	법성스님	성 안 사	017-798-1259
부산교구	지암스님	약 사 암	010-4082-1933
경북교구	지연스님	장 룡 사	010-2618-3673
전북교구	탄오스님	금 당 사	010-5423-7767
전남교구	진성스님	매 봉 사	010-6405-2244
대구교구	대화스님	무 상 사	010-3566-7989
경남교구	혜원스님	대 광 사	010-3117-3265
충북교구	해성스님	관 음 사	011-9844-7799

■ **총무원**(총본산 백봉사)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리 300번지 **전화** : 1577-1016 / 054)572-1034 / 571-1030 **전송** : 054)571-7498

불교계 중국어 표기 혼용, 바로잡아야

중국계 국문학자 소열령 박사, 〈불교평론〉 55집에서 주장

"어차피 중국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 원음표기는 무의미하다. 한국인들의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 방식인 한문 한자음 표기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셩옌' '싱윈' '성운'. 세 표기는 대만 불광산사 회주 성운 스님을 한국에서 표기하고 있는 말이다. 최근 사회의 외래어 표기 방법이 도입되며 불교계에도 이처럼 외래어 표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불교용어를 한국한자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열령 박사(성균관대 중어중문학 박사)는 최근 〈불교평론〉 55집에 실린 '불교 관련 중국어 고유명사 한글표기의 문제점' 투고 글을 통해 "최근 불교관련 기사와 서적에서 표기방식 혼용으로 인해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 발음 대로 표기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 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박사가 예시로 제시한 교계 신문과 논문 등의 자료를 보면 '구룡화사'를 '꾸롱화사'로, '자제공덕회'는 '츠지공덕회'로 표기하는 등 최근 중국관련 지명 및 고유명사를 쓰는 용어가 다양했다.

소 박사는 "외래어 표기 원칙은 현지발음대로 적는 것이지만 현재 중국어 외래어 표기의 경우 어쩌피 현지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표기"라며 "현지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 조차 각양각색으로 다양해 독자들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맹주억 박사 등 중국 어문 학자들이 외국에서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하면 중국인들이 오히려 발음이 이상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내용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소 박사는 완벽히 중국 현지음 대로 표기할 시 한국어 음운규칙에 부합되지 않

중국인도 외래어 표기 못알아 들어

불교는 한국한자음이 대다수

최근 외래어표기 도입하며 혼란

는 '볜' '롄' 등과 같은 기형음절이 등장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소 박사는 이어 1911년 신해혁명을 전후로 전자는 한국한자음으로, 후자는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소 박사는 "맹자(孟子)는 과거인으로 '맹자'로 표현하고 맹자의 후손은 맹을 '멍'으로 표기해 조상과 후손의 성씨가 달라진 상식에 맞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불교용어에 있어 대웅보전, 지장전 등이 고유명사가 된 것과 같이 불광산, 법고산사 등 불교용어의 한국한자음 표기가 고유명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박사는 "법고산사를 보면 불전사물 중 '법고'와 법고산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 한자음은 언어학적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원음 표기만을 고집한다면 이 표기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소 박사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연관성과 전통,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 인명과 지명을 자국 한자음으로 읽는 반면 한국에서는 최근 전통 한자음을 버리고 다른 나라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발음한다. 이는 외래해 토착화한 용어와 외국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불교계에는 조선시대 불경 언해 문헌과 근현대 스님들의 한글 법어집이나 선행 번역을 통해 한국한자음이 자리해온 만큼 불교계 만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끝으로 "중국어 고유명사 표기에 불교계에서 문제 본질을 직시하고 지혜를 하나로 모아달라"며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표〉 불교계 중국어 표기 혼용 사례(소열령 박사 글에서 인용)

중국어를 모르는 대중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
– 츠지기금회의 전신은 '츠지공덕회'(慈濟功德會)로 1966년 '정옌'(證嚴)이… –조계종 불학연구소 편찬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
– 대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스님은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를 설립한 '증엄'(證嚴) 스님이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이해론〉
– 지금도 '파구산'(法鼓山)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승들은 일본어를 필수로 해야 한다. – 불광연구원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 우리의 노력으로 '법고산'(法鼓山)은 대반의 4대 불교조직의 하나가 되었다. – 성엄 선사 지음 〈눈 속의 발자국; 성엄선사 자전〉
같은 기사 내에도 표기 원칙이 혼용되는 사례
– 미국 '만불성성(萬佛聖城)' 방장 '헝리(恒律)' 스님과 스님 18명이 방한해 3대 총림 등 주요사찰 순례에 들어갔다.
– 〈불교신문〉 2012년 10월 4일 '미국 만불성성 방장 헝리 스님 방한' 기사

봉녕사, 지리산 수정결사 정신과 왕실 효심으로 건립

황인규 동국대 교수, 제1회 봉녕사 역사와 문화 세미나서 주장

"봉녕사는 원각국사 덕소 스님이 지리산 수정사 결사 정신의 발현을 위해 창건한 결사 사찰로 그 연원이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 봉녕사가 지리산 수정결사의 정신을 잇는 사찰이라는 발표가 눈길을 끈다.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9월 2일 봉녕사 경내 소요삼장에서 '봉녕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봉녕사의 근원부터 전근대기 봉녕사의 역사와 변천과정, 봉녕사에 주석했던 고승을 고찰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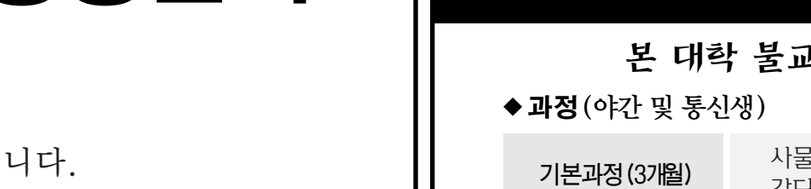
첫 발제자로 나선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사진 박스)는 '전근대 봉녕사의 역사 검토와 화령전 원찰' 주제 발표에서 봉녕사의 연원에 대해 고찰했다.

그동안 봉녕사는 인근에 위치했던 광교산 창성사 또는 성창사가 전신이 아닐까하는 추측 만이 있어왔다. 황 교수는 봉녕사 연원에 대해 "창성사는 진각국사 천희가 머물며 화엄종 사세를 진작시키려 했으며 여말 선초 문집류에도 창성사로 나오고 있다. 창성사는 1800년 수원 읍지류에 나타나다가 그 이후 폐사된 듯하다"며 "창성사를 창건한 원각국사 덕소가 결사정신으로 다시 전신인 성창사를 창건하고 조선 초 중수되며 봉덕사로 개칭, 이후 봉녕사로 불리게 됐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이어 "봉녕사 전신인 봉덕사가 역사 전면에 크게 부각된 것은 1800년대 순조 대 정조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어진을 봉안할 화령전을 짓고 봉녕이란 사액을 내리면서부터"라며 "순조가 화령전에 제향을 올리는 등 봉녕사는 왕실 원찰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영 중앙승사대 불교학과 교수는 근대의 봉녕사 활동과 지역 포교 거점으로서의 봉녕사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봉녕사는 근대에 들어 묘엄스님 이전과 이후로 크게 사세가 변화하는



근대에 중창된 수원 봉녕사는 비구니 사찰의 대표사찰이었지만 연원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교산에 있었던 창성사와 성창사와의 연관관계 등이 조명됐다.

데 1974년 비구니 강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 계기"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99년 세계 최로 비구니 율원인 금강율원을 개원하는 등 비구니 사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2009년부터 사찰음식 대향연을 통해 사찰음식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여성 전문 템플스테이 등 지역문화 선도공간으로서 사찰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며 "수원지역 제반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녕사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계율과 수행의 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이 주관하는 이 특강은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과 대만 본인, 소인 스님이 강의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신행 대표, 108산사순례 '재조명'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세미나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 기도회'와 서울 도선사가 9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성과와 과제를 짚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혜자 스님의 기조발표를 기작으로 △박규리 동국대 강사가 '108산사순례의 기도와 형태 분석' △윤원철 서울대 교수가 '108산사순례의 사회구제 활동' △이덕진 충남대 교수가 '108산사순례에서 엿보이는 불교사상'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한국불교에서의 108산사순례의 의미와 성과'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가 '108산사순례의 신행과 형태'를 각각 발표한다. 학술세미나 총평은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맡는다.

선묵스님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 7년 동안의 순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걸어 갈 남은 일정을 원만히 회향하도록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06년 9월 시작된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지금까지 총 83곳의 사찰을 순례했다. 특히 농어촌 직거래 장터와 농촌사랑봉사단, 군장병 사랑 초코파이 보시, 환경사랑 실천, 108장학금, 108효행상, 다문화가정인연맺기, 108약사여래보시상, 북한동포돕기 공양미 300석 모으기 운동 등을 펼치며 한국불교 신행 문화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9월 27일 열리는 한반도평화대회를 기념해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해 온 '평화의 불'을 순례 사찰에 분등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보물 지정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9월 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중 역사적 · 예술적 · 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808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南陽州 水鐘寺 八角五層石塔)'은 건립 연대가 확실하고, 각부의 부재가 온전하게 유지된 조선시대 유일의 팔각오층석탑이다. 고려시대 팔각석탑의 전통을 이어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으로 출토된 사리장엄(舍利莊嚴)과 명문(銘文)을 통해 1493년에 건립돼 1628년 중수(重修) 됐음이 밝혀졌다.

또 왕실 발원(發願)의 석탑임이 확인됐는데 양식을 보면 기단부(基壇部)는 불상대좌(佛像臺座)의 양식, 탑신부(塔身部)는 목조건축의 양식, 상륜부(相輪部)는 팔작(八作) 기와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하여 이번에 보물로 지정되는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15집 원고 모집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12월 31일 발간예정인 〈선문화연구〉 제15집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모집분야는 불교학, 불교사학, 불교문화 및 불교복지 등의 응용불교학 분야로 투고마감일은 11월 15일까지다.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분량으로 이메일(seonhakwon@daum.net)로 접수할 수 있다.

원고작성요령은 홈페이지(www.seonhakwon.or.kr/seonli) '논문투고 원칙 및 요령'을 참고하면 된다. 게재 확정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한다.

한편,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불교와 불교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학(禪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합니다.
늦더위가 시작되어 긴 여름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청안하신지요?
많이도 더웠던 여름 보내고 가을이 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암의 계곡에 모여 앉아 소중한 날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9월 24일 (음 8월20일) 화요일
| 장 소 – 청 암 사(054-439-9511)
| 총동문회의 – 오후 7시

청암사승가대학총동문회 회장 도림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3년 9월 중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영암 월산사는 조선전기 왕실사찰로 중창

9월 2일 대한문화재연구원 3차 발굴조사 결과 명문 다량 확인


영암 월산사지 발굴 세부사진과 월산대군(月山大君) 명문이 적힌 출토 기와(박스 안).

전남 영암 월산사가 조선시대 왕실원찰(王室願刹) 중 하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군은 9월 2일 대한문화재연구원(대표 이영철)을 통해 월산사지(前 월암사지)에서 조선 초기 왕실 가람의 면모를 알 수 있는 명문와와 관사명 분청사기 등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통일신라 말 도선 국사의 출가지로 알려져 있는 월산사지는 2004년 이후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 전기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중창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3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는 '月山君 · 粹賓宮(1470년 이전)', '月山大君 · 仁粹王妃(1471년 이후)' 등 왕실 후원자가 새겨진 명문와, '丁酉(1477) · 成化 十七年(1481) · 乙卯(1495)' 등 연호와 간지가 새겨진 명문와, 이외 왕실 소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內贍' 명 등 관사명 분청사기 등이 출토돼 주목된다.

명문내용을 토대로 하였을 때 영암 월산사지는 성종연간 왕실의 후원으로 중창된 왕실원찰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선 전기 왕실을 기반으로 한 사찰중창의 배경, 사찰 조영의 계획과 조성과정 등 관련 분야의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말 도선 국사 출가지로 알려져
조선 성종 대 월산대군과 밀접한 관련
영암 도갑사, 강진 무위사 등 연관

아울러 사찰의 위상과 규모를 알 수 있는 건물지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으며, 중창된 건물지 하층으로 이전 시대의 건물지와 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번 발굴조사는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일대 500㎡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1차), 2009년(2차)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의 축조방법, 중측 양상 등을 확인하고, 잔존상태가 양호한 곳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하부문화층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2013년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월산사의 중창은 월산대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월산대군(1454~1488)은 조선조 9대 성종의 친형으로, 세종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나 왕위에는 오르지 못하고 책과 자연을 가까이 하여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한편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영암 도갑사, 강진 무위사 등 몇몇 주요사찰들이 왕실의 지원에 의해 중창되었다. 월산사지가 위치한 월출산 주변으로 천황사, 용암사지, 월남사지, 무위사, 도갑사 등 많은 불교유적들이 존재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보살들의 일요 찬불가 배우기


실버음성공양단원이 오카리나 등을 들고 불법 홍포를 다짐하고있다. 앞줄 왼쪽에서 3번째가 지도교사 일주향 보살.

전북불교회관 실버음성공양단

연세가 지긋하신 노보살님들이 음성공양단을 조직하고 매주 일요법회마다 음성공양에 나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전북불교회관 실버음성공양단(단장 윤정숙, 지도교사 유일주향)으로 모두 65세 이상의 여성불자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찬불가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으로 전북불교회관의 무료경로식당과 법당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불자들이 모여 찬불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더구나 전북불교회관의 일요법회에는 특별히 찬불가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되어 자연스럽게 찬불가를 배워서 부르는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경전의 가르침과 불보살을 찬탄하는 찬불가 가사와 음률에 맞추어 노래하다 보면 어느새 환희심으로 가득차오르는 것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늦은 나이지만 악기도 다룰 줄 알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지도교사인 일주향 보살로부터 직접 오카리나를 배워 연주하면서 찬불가를 배우고 있다. 그동안 실력도 일취월장해 이제는 전북불교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에서도 찬불가를 불러달라고 초청해 오는 것도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당시 원감이던 일원 스님이 '실버음성공양단' 이라는 멋진 이름도 지어주었다.

군법당의 법회나 전북대학교병원불자들의 법회에서도 찬불가를 불러주고 있어 이제는 제법 공연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매달 관음재일에는 금산사 법회에 동참해 '관세음의 노래' 를 불러 불자들에게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올해 70세인 최덕순 씨는 "이웃종교에 나가는 친구들이 실버합창단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워하곤 했다"며 "함께 모여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법회 후 2시간정도 연습을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 아쉽다고 한다. 한곡 한곡 배워나가는 재미도 있지만 가사에 녹아있는 가르침을 새기며 노래하다보면 오리혀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최연장자인 김옥남 씨(73세)는 "찬불가를 좋아하는 분들만 모여 신심이 흔들릴 겨를이 없다"며 "단원들간의 유대감도 좋고 찬불가를 부르다 보면 나이를 잊어버리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전북불교회관 원감 보륭 스님은 "노보살님들이 자발적으로 환희심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젊은 불자들도 어르신들처럼 자발적인 신행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신행회 독거어르신 위한 합동제사


9월 5일 합동제사를 지내는 광주 복암사 주지 도성 스님과 독거 어른신들

"몸도 아프고 형편이 힘들어 부모님께 제사를 못해 항상 죄스러웠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조금례(73) 할머니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다. 매일 동사무소에서 주는 도시락 1개와 자비신행회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는 것으로 하루 식사를 대신한다. 할머니는 벌써 심장수술을 비롯해 큰 수술을 3번이나 하여, 주변의 도움없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이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제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자비신행회 한꽃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삼옥)는 지난 9월 5일 법당에서 지역에서 홀로사는 어르신 15세대를 위한 '어르신합동제사' 를 봉행했다.

이번 합동제사는 '어르신소원기금' 운영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제사를 모시지 못하는 조금례 할머니와 같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제사는 스포츠토토 전라지사의 후 하에 광주 복암사 주지 도성 스님이 집전을 노력봉사 했으며 증심사 봉사단 등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조금례 할머니는 부모님과 먼저 보낸 동생을 위패로 모시고 7년 만에 제사를 올렸다. 할머니 외에도 15세대의 어르신과 가족들도 정성스레 준비한 제사상에 큰 절을 올리며, 그동안 못다한 효도의 한을 풀었다.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은 "어르신 합동제사 프로그램을 지역의 힘든 어른들에게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포교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매일 지역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소원기금, 어르신나들이기금, 어르신생신 잔치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꽃피움절 지역 아동 다도 교육나서


문화예절공간이 '다비움' 에서 다도시범을 보이고 있는 꽃피움절 신도들

'밥상머리교육' 으로 일컬어지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할 공간이 광주에 생겼다.

광주 북구 꽃피움절(주지 목언)과 협동조합 피움(대표 나현옥)은 지난 8월 30일 광주문화초등학교 인근에 아이들의 문화예절공간인 '다(茶)비움' 을 개관하고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절, 다도교육을 실시한다.

다(茶)비움은 꽃피움절과 신도, 그리고 지역의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지난 5월 창립한 협동조합 피움의 첫 교육공간이다.

이날 개관한 다(茶)비움은 60여 평의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위한 예절교육, 밥상교육, 인문학 강좌, 음악교실, 독서토론, 명상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언 스님은 개관 인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예절과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공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큰 기쁨이다. 마을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관식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을 비롯해 신도와 지역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도(임희자 외 4명)들로 구성된 다도례(茶道禮)를 시작으로 춤(김옥현), 시낭송(이미래), 국악(임희장, 임지화), 플룻(문윤정) 연주 등 작은음악회가 개최됐다.

협종조합 피움은 무등산 군왕봉 및 참판골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두암동 주민과 사찰이 지난 4월 자발적으로 만든 자생단체다. 지난 2011년 11월 사찰과 주민들의 모임인 '두암골 사람들' 을 기초로 활동을 시작해 음악회, 인문학 강좌, 다도시연회, 기금마련 일일찻집 등을 진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생명존중포럼 및 생명사랑 콘서트

2013년 세계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 '종교계와 함께하는 생명존중 포럼 및 생명사랑 콘서트' 가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전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전북의 4대 종교 대표들이 생명존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생명존중 포럼' 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장수 팔성사 주지 법륜 스님이 '불교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 을 주제로 발표하고, 원불교 김선명 교무(덕진교당) 천주교 이금재 신부(전주교구), 기독교 이형렬 목사(전북기독교연합회)가 각각 토론자로 나서 생명존중 실천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명존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가수 유리상자를 초대해 감미로운 음악을 통해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명사랑 콘서트' 도 진행됐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 Day)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에 의해 2003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날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강경요해 金剛經了解
화제의 신간
반야, 깨달음의 지혜로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 요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경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지침서
♣ 깨달음의 경계와 자기 점검
♣ 깨달음 세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반야지혜로 밝힌 금강경의 지혜세계
♣ 법인지(法印智)로 깨달음을 여는 길
♣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수행 성취의 지혜가 아니다.
♣ 무엇이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 깨달음의 지혜 여래의 뜻을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실체
♣ 일각요의(一覺了義)로 꿰뚫은 금강경요해
♣ 금강 실상과 부사의 공덕세계를 드러낸 지혜의 가르침
♣ 불지혜 최고최상의 깨달음,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 경계는 어떠한가?
♣ 무위실상 일성원융 본심과 본각과 본성의 세계

신국판 / 45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운 무위실상 불법과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의 실체와 본심, 본성, 본각의 일성원융 법계를 금강경요해 강의의 인연으로 누구나 깊은 불법대해를 이해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에 들도록 금강반야바라밀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수행 경계와 자증의 세계를 정성으로 세심히 살피어 깨달음과 불지혜를 향한 누구에게나 소중한 지혜의 가르침, 금강경요해 인연 공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상각 불지혜 청정한 믿음과 불법 실상과 청정본심을 깨달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누구나 빠짐없이 성취하시기를 바라옵고, 자성불을 원만히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염원하며 발원합니다. – 대구시 불국정토 세웅스님 –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한글 법화경
一大事 因緣

이 세상(三界)이 편한함이 없는 것은 마치 불난집과 같으며, 많은 괴로움이 가득차서 가히 힘이 겁나고 두려우니라... 그 가운데 중생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거늘 ...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 하느니라!
한글 법화경은 구마라집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불성(佛性)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들어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케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 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茶飯事)며 삼세제불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송월스님옮김 / 신국변형판 / 584쪽 / 정가 2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자비 실천하는 지역문화 공간 탄생

통도사 9월 5일 영축문화회관 개관


통도사가 9월 5일 지역문화와 포교의 중심 역할 마련을 위한 영축문화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대지 5천평 규모에 지상 5층 건물
법회공간과 도서관 등 갖춰
방과후 교실 · 탈북자 지원 등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스님)는 9월 5일 지역문화와 포교의 중심 역할 마련을 위한 영축문화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상 5층 규모의 영축문화회관은 하북면 순지리에 위치 구 통도사유치원의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며 총면적 대지 16,528㎡(5,000평) 건평 2,644m2(800평) 규모다. 현재 1층 어린이법회 공간과 어린이 도서관, 마하 이주민행복센터 2층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문화재지킴이교실, 청소년 법회 공간과 사무실, 영축환경위원회, 포교사회 3층 신도회, 청년회, 회의실 4층 법당, 5층 도서관이 들어서 있으며, 향후 지역 문화의 선도와 자비실천의 산실이 될 전망이다.

주지 원산 스님은 개관식에서 "성장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결실의 가을을 맞아 과거 유치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될 영축문화회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방과후 공부방, 다문화가족 문화공간, 탈북자 지원 등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복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문화센터 개관을 통해 통도사가 한국불교의 중심,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데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을 비롯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박수곤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시민불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통도사 포교국장 선본 스님은 "영축문화회관은 현재 신행단체 위주로 입주해 있지만 10월까지 지역현황과 사찰별 모범사례를 입수해 지역단체와의 결합 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통도사다운 독자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또한 4층 법당은 시민 · 불자들을 위한 무료 결혼식장으로 대여하고, 5층 도서관 역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도사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불법의 인연을 이어줄 어린이 불서 기증을 신청 받고 있다. 기증 받은 불서는 현재 1층 어린이도서관에 소장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의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진정한 화두공부"

9월 2일 부산연합회 수불 스님 특강


조계종부산연합회가 9월 2일 부산MBC아트홀에서 '수불 스님 몽산법어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사단법인으로 거듭난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9월 2일 부산MBC아트홀에서 '하반기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불스님 몽산법어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초청특강에는 조계종 연합회장 수진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을 비롯 시민불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 수진 스님은 특강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8월 부산시로부터 '사단법인 조계종부산연합회' 승인을 받았다"며 "성도재일 기념 대법회, 종단 교육원 인증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겠다"며 법인 설립의 취지를 전했다.

수불 스님은 특강에서 "화두공부에 의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참 의심에 들어간다"며 "물이 80도 90도에 멈추어서는 끓지 않고 100도가 되어야 비로서 끓는 이치와 같다"며 간화선 수행의 요지를 강조했다.

특히,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 "부산에는 조계종 소속스님이 400여명이 상주하고 있어 스님들의 결집과 소통을 바탕으로 범종단적 교류에도 앞장서 부산 발전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이끄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10월 14일~11월18일 매주 월요일 오후2~5시 안국선원교육관에서 대강백 무비 스님의 '서장' 특강을 진행한다. 총 5회 5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교육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삼광사-부산시설공단 사회공헌 위해 손잡다



삼광사와 부산시설공단 업무협약식 장면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와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이 9월 2일 삼광사에서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광사는 공익사업인 동티모르 유소년축구팀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템플스테이 등의 사업에서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설공단은 공단의 시책사업 홍보와 공원 및 각종 시설의 환경 활동과 봉사자 지원 및 다양한 후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지 무원 스님은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머리를 맞대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웃음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추석맞아 사랑의 쌀 나누기

추석을 앞두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9월 13일 오후 2시 양정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결식 및 독거 장애인 · 노인 등 총 150세대에게 쌀과 라면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전달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노인들이 직접 준비한 라인댄스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051)867-9119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 주차장,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멀리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외라도 가려는 사람들에게 대도시 근교의 사찰은 정말 딱 들어맞는 여가공간이 아닐 수 없다. 산 좋고 물 맑은 자연이 거기에 있고,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문화재까지 관람할 수 있으니말이다.

예전에는 사찰이 단순히 종교공간으로만 여겨져 불자가 아닌 일반사람들은 사찰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찰이 종교공간이라는 특수한 장소성과 더불어 자연을 향유할 수 있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볼만한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야말로 사찰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찰이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대도시 근교의 사찰은 불자말고도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게 되면서 당장 걱정거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주차문제이다. 심지어는 탐방객들이 타고 온 차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다보니 해당 사찰에 적을 둔 불자들이 차를 세울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대도시 근교의 여러 사찰들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을 증설하는 일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사찰의 주차장은 대부분 사찰입구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러한 사찰의 주차장은 산문이나 일주문과 더불어 사찰의 얼굴이 되기도 한다. 특히 훌륭한 자연환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찰의 경우에는 주차장도 자연의 일부가 될 정도로 잘 만들어야만 제격이다. 그런데 당장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급급하다보면 나무 한그루 없이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된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도심에서조차도 주차장을 만들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바닥에 잔디블럭을 깔아서 복사열까지도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연친화적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에 녹음수를 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면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사찰의 주차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찰환경은 일반적인 환경과는 조금이라도 차별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콘크리트로 급하게 만든 사찰 주차장에 나무를 심으면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다. 사진은 경기도 ㅂ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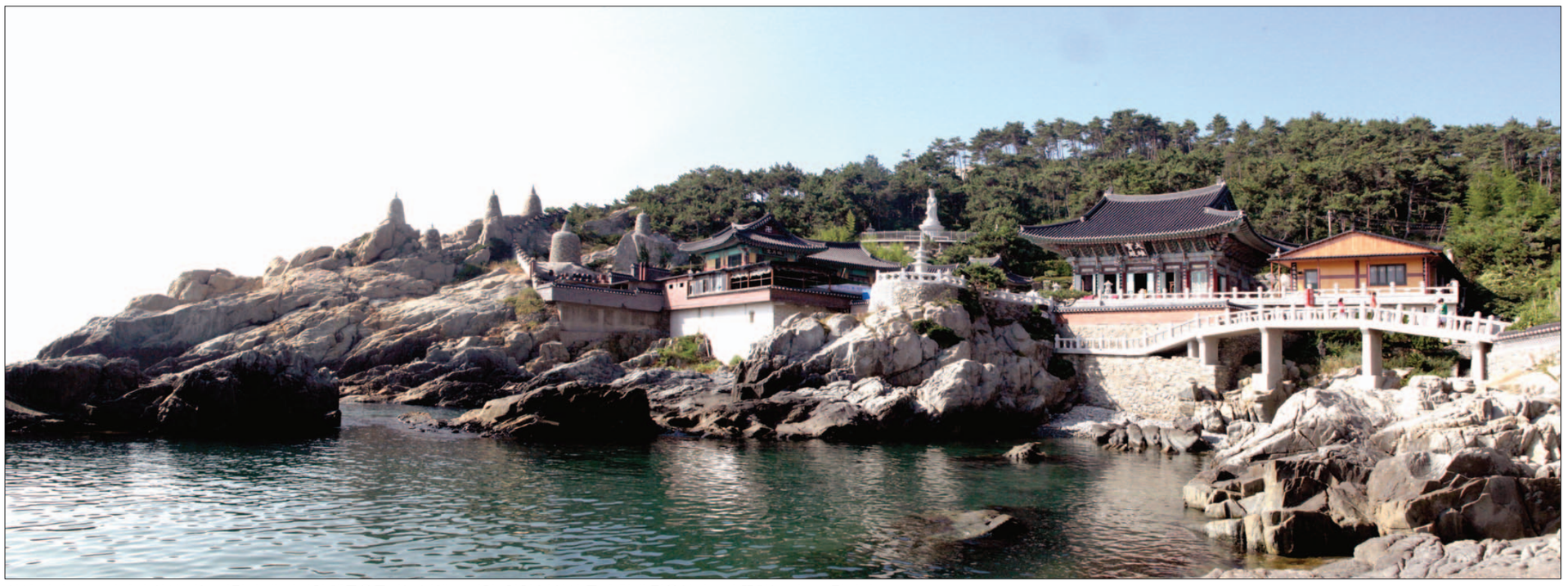
바다와 청산이 한 곳에…선경인가 하노라

〈仙境〉

바다와 산이 만나는 사찰 - 부산 해동용궁사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절이 있다. 부산 해동용궁사다. 부산은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다. 백두대간의 정기가 태백산을 지나고 낙동강을 따라 동쪽으로 굽이치며 낙동정맥인 울진 통고산, 청송 주왕산을 따라 굽이치다 부산의 진산 금정산에서 숨을 고른 뒤 드넓은 바다의 품으로 뛰어든 곳이다. 해동용궁사는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그 부산의 정점에 있다.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곳에 머물면서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그 풍광에 춘원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바다도 좋다하고 청산도 좋다거늘
바다와 청산이 한 곳에 뫼단 말가
하물며 청풍명월이 있으니
여기 곧 선경(仙境)인가 하노라



신이 바다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비경 속에 자리한 해동용궁사는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 등과 함께 관음성지로 손꼽히는 기도도량이다.

해동용궁사는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 등과 함께 관음성지로 손꼽히는 기도처일 뿐 아니라, 춘원의 시처럼 바다와 산이 한껏 어우러져 만들어 낸 빼어난 자연풍광으로 연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부산 제일명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사찰 입구 표지석에 '한가지의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라는 말처럼 기도도량으로 이름난 해동용궁사다. 주지 정암 스님은 "용궁사는 1376년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화상에 의해 창건되었다. 나옹화상이 법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만행을 할 때 이곳에 도달해 지세를 살펴보니, '배산임수 조성모복지(背山臨水 朝誠慕福地)' 즉,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 바다로 아침에 불공을 올리면 저녁에 복을 받는 신령스런 곳이어서 이곳에 토굴을 짓고 수행정진을 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는데 1930년대 초 통도사 운강 스님이 보문사로 중창한 후, 1970년대 초 현재의 주지 정암 스님이 주석하면서 지금의 해동용궁사란 이름을 갖게 됐다."고 용궁사의 역사에 대해 말해주었다.

용궁사 가는 길

갯내음으로 가득한 동해의 바닷길을 따라 내려오면 동해 최남단의 사찰이 바로 해동용궁사다. 또한, 국제해양도시 부산에 들어서면 해운대에서 차로 10여 분의 거리이며, 기장군으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



해수관음대불



해동용궁사 사리탑 일출모습



해동용궁사 전경

춘원 이광수도 감탄한 비경 한 가지 소원 꼭 이뤄주는 도량

해동용궁사다.

해동용궁사 가는 길로 들어서면 진한 바다 내음과 만나게 된다. 다시마, 미역, 멸치 등 기장지역의 갖가지 특산물에서부터 각종 기념품, 먹거리를 파는 난전이 이어지는데, 연일 사람들로 북적인다. 북적이는 골목길을 벗어나면 십이지신상과 십일면관세음보살입상이 도량으로 안내한다.

용궁사에 들어서면

도량으로 들어서면 8각 7층의 교통안전탑 뒤로 일주문이 있다. 황금용 두 마리가 기둥을 대신하고 있는 일주문 현판에는 '해동제일관음성지' 라고 씌여 있다. 일주문을 지나 백팔계단 가는 길에서 처음 만나는 것은 포대화상을 닮은 득남불이다. 아들을 원하는 이들의 염원이 스쳐간 배와 코끝이 새까맣다. 용궁에 들어서는 석굴문이란 뜻에서 지워진 용문석굴을 지나면 백팔장수계단이 있고, 가파른 대숲 터널을 따라 한 계단씩 발을 옮기다보면 어느새 계단이 바다속으로 자맥질 하듯 내리 뻗는 바람에 깜짝 놀라게 된다. 놀란 시선을 들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한 번 깜짝 놀란다. 비산비수의 비경이 한 눈에 들어와, 순간 가슴이 탁 트이고 시름을 잊게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춘원 이광수의 시상이 필시 여기 이 자리에서 비롯했으리라 짐작되는 대목이다. 홀연히 나타났으나 한 눈에 드러나고, 바다와 산이 굽이쳐 만나지만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그리고 다시 산이고 바다인 그 광경에 누구라도 벅찬 감흥을 쉽게 수습하기 힘들다. 범인도 그러할 진데 시인의 가슴이야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불이문을 지나 바닷길 위로 아슬아슬하게 놓인 돌다리는 마치 피안의 세계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다리의 폭이 좁고 좁다. 돌다리를 지나 경내에 들어서면 다시 장쾌한 동해가 한 눈에 들어오고, 고개를 들어 사찰의 가장 높은 곳을 올려다보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해수관음상이 보인다.

용궁사 8경의 하나 '일출'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해동용궁사는 늘 아침부터 부산스럽다. 일출 전 대웅전에 들러 부처님을 뵙고 나오면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다. 붉게 물든 바다 위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석탑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일출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몰려온 사진쟁이들이 용궁사의 아침을 담고 있다.

도량의 마당이 붉게 물들어 가고, 주지 정암 스님이 마당의 그 붉은 햇살을 정성스럽게 쓸어내고 있다. 경전을 넘기듯, 행선을 하듯 비질을 하고 있는 정암 스님을 만났다. 정암 스님은 "용궁사의 아침일출은 '용궁사 8경' 의 하나로 그 외에 보름 달빛에 비친 풍경, 해무에 덮힌 아침 풍경, 만경창파, 시랑망해, 석양에 들려오는 종소리, 봉축연등물결, 벚꽃길과 함께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풍경이다."고 전했다.

풍부한 주변 콘텐츠

바다에 자리한 사찰답게 민간신앙의 교섭도 상당수 눈에 띈다. 용궁단, 마이산 탑사를 연상케 하는 칠성탑, 교통안전기원탑 등이 그것이다. 외에도 제2의 갓바위로 부르는 석조약사여래불과 방생터의 지장보살은 해수관음대불과 함께 기도객들이 몰리는 곳이다. 또한, 부산 제일 관광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해동용궁사는 득남불, 학업성취불, 행운의 연못, 황금돼지, 소원의 부적판, 십이지신상 등 관광사찰로서의 콘텐츠도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동용궁사를 둘러싼 관광 인프라도 대단하다. 차로 10여 분 거리 내에 해운대 · 송정 해수욕장, 청사포, 광안대교 등이 있고, 누리마루 APEC하우스, 영화의 전당, 벡스코 등 국제적 규모의 시설과 기장미역, 멸치축제로 유명한 대변항, 해안산책로인 부산 갈맷길, 기장 오랑대-동암마을-해동용궁사-공수마을-송정 그리고 달맞이 길로 이어지는 문텐로드가 절묘하게 이어져 있다. 특히 해동용궁사에서 홍룡교를 건너면 국내최초 해양수산 종합과학관인 수산과학관이 있다. 이곳은 무료로 운영되며 해양과 관련한 교육, 전시, 놀이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유익한 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동용궁사=박경수 부산 지사장

주변보기

〈사찰〉

¡ **장안사** /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1 (051-727-2392)

신라 문무왕13년(67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쌍계사라 부르다가 애장왕이 다녀간 후 장안사라 개칭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탄 것을 1638년(인조16년)에 중건하였으며 대웅전이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됐다.

¡ **안적사, 척판암**

〈맛집〉

흙시루 전통한식집 / 051-722-1377
기장 종가집 짚불곰장어 / 051-722-8958
손큰할매 전복죽집 / 051-721-2959
다그리메 퓨전전통찻집 / 051-723-5959

〈숙박〉

마루하우스펜션 / 010-5013-2146
바우하우스펜션 / 010-2552-2081
니나인모텔 / 051-704-3003
모텔하얀성 / 051-704-0456
송정바다민박 / 051-703-0262

〈가볼만한 곳〉

송정해수욕장 / 해운대해수욕장 / 청사포 / 광안대교 / 해운대달맞이길 해안산책길 "문텐로드" / 국립수산과학원 / 기장 대변항 / 누리마루 APEC하우스 / 영화의 전당 / 벡스코



전국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불교와 미학

나한상의 예술세계

나한상, 옛 사람이 전하는 환상과 사실



거조암의 오백 나한상〈사진 위〉과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사진 아래〉의 한 장면. 예술작품에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종교적인 경험도 비슷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예술작품의 비평기준은 "대상을 얼마나 닮게 그리느냐"였다. 예술작품과 그 원본이 된 실제 사물 사이의 관계를 서양에서는 "미메시스(모방)"이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似(닮음)' 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들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동양에서는 대상의 외관을 유사하게 그린 것을 '형사(形似)' 라고 하고 대상의 정신성이나 기운을 생동적으로 그려낸 것을 '신사(神似)' 라고 하여 구별하고 전자보다 후자를 높이 평가하는데, 서양미학에는 이러한 구별이 없다.

그렇다면 아예 예술작품의 대상이 실존하지 않는 종교예술작품은 무엇으로 모방의 대상을 삼을 수 있을까? 이처럼 신화적 인물이나 초인간적인 대상을 묘사한 종교적 도상에 대해서도 '미메시스' 나 '似' 라고 하는 비평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 나아가 과학과 상식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현대사회에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대상을 재현하는 종교예술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한도에 대한 옛 사람들의 글에

대상의 정신을 묘사한 '신사'

동양에만 있는 중요 미학 개념

유명 나한상, '신사' 평가 많아

"핍진하다",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자주 보인다. 1618년 양양부사 정엽이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쓴 〈금강록(金剛錄)〉에는 금강산 장안사에 모셔진 나한상이 "그 모습이 각각 다르고 자세가 기이하지만 아름답거나 추한 모습이 극진하여 묘하기가 승려의 모습을 조각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조선 후기 예림의 총수였던 강세황이 1788년 금강산을 유람한 후 남긴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도 장안사의 나한상에 대한 감회가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장안사는 이미 쇠락했으나 "이른바 사성전에는 흙으로 빚은 십육나한상이 있었는데, 교묘하기가 입신의 경지에 들었으며 완연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모두 처음 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 김창흡의 〈남유일기(南遊日記)〉에도 나한상이 "극히 정교하고 오묘하며 빽빽이 늘어서 생기가 있었다"는 표현이 나온다.

사실, 실존하지 않는 종교적 도상에 대하여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생기가 있다"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엄격히 말해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나한상에 대하여 어떻게 옛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일까?

미술사 연구에서 나한상은 도석인물화로 분류된다. 중국에서 나한상은 남북조시대부터 그려지기 시작하여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많이 그려졌다. 오대와 송나라, 원나라 때는 나한신앙이 크게 성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나한도가 제작되었다. 현존하는 북송시대 나한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현재 일본 경도의 청량사에 소장되어 있는 십육나한도 16폭인데, 현존하는 십육나한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교와 불교의 종교적 인물을 그린 도석인물화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제작되었지만, 오대 이후에는 도석인물화에 새로운 경향이 출현했다. 불상이나 보살상보다 나한과 관음의 상이 더 많이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감상의 대상으로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나한상은 직업화가나 승려화가뿐 아니라 문인화가들도 즐겨 그렸다고 하는데, 송대 문인화가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의 나한도가 유명하다.

옛 사람들은 나한도를 그릴 때 무엇을 그렸을까? 상상속의 나한을 그렸을까? 아니면 그들만 특별히 볼 수 있었던 나한이 있었을까? 나한은 부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곁을 지켜주는 존재로 알려졌기 때문에 불교의 다른 도상들과 달리 인간적인 특징을 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한은 부처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 승려화가 관휴(貫休)가 그린 나한도 중 한 인물이 그의 초상을 투영했다는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실제 승려, 특히 조사스님을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호인(胡人), 즉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를 한 서역인의 모습으로 재현된 나한상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나한도의 사실성을 논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괴하게 과장된 얼굴과 백발, 긴 눈썹과 같은 것들은 아무리 나한의 비범하고 초월적인 특징을 재현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성과 거리가 멀다. 심지어 호랑이에 기대거나 드러누워 있거나 등을 긁는 모습은 세상을 초탈한 나한의 신통자재를 표현한다고 생각했지만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서 어울리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이 도상들이 "살아있는 듯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나한들도 실존한다고 믿었던 것일까?

과학과 상식은 눈에 보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들만 사실이라고 믿는다.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한 한 청년과 호랑이의 표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성' 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가족을 잃고 태평양 한 가운데에서 홀로 살아남은 인도 청년 파이는 아버지의 동물원에서 기르던 오랑우탄, 얼룩말, 하이에나, 그리고 벵갈 호랑이 리차드 파커와 함께 작은 구명보트에 있게 된다. 곧 하이에나가 얼룩말과 오랑우탄을 잡아먹고 다시 파이를 공격하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만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호랑이와 함께 있다니! 살아남은 두 생명, 호랑이와 파이는 어떻게 이 구명보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파이는 구조된 뒤 그를 조사했던 일본인 선박회사 직원들에게 그가 작은 구명보트에서 호랑이와 함께 지냈으며 아름다운 식인섬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다. 환상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누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3D 영화로 보는 〈라이프 오브 파이〉의 별빛에 빛나는 바다와 고래, 식인섬의 환상적인 장면은 영화사에 남을 만큼 아름답고 매혹적인 장면이지만 호랑이와 식인섬의 이야기는 합리적인 지성을 적용하면 도저히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에 불과하다. 과연 파이는 구명보트에 호랑이와 함께 있었을까? 식인섬은 실제로 존재했을까? 파이의 조난 이야기는 그의 환각이 아닐까?

그래서 파이는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물들 대신 그는 프랑스 요리사와 다리를 다친 일본인 선원, 그리고 파이의 엄마와 파이의 이야기로 바꾸어 이야기를 들려준다. 요리사가 선원을 죽이고 그 다음 엄마를 죽인다. 그것을 보고 분노한 파이가 요리사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먹으며 살아남았다는 새로운 이야기는 동물들의 이야기와 달리 믿을 만하지만 잔인하고 슬픈 이야기가 된다. 동물 이야기에서 아름답게 묘사되었던 식인섬의 이야기도 파이가 식인에 대한 죄의식을 은폐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은 파이가 가족을 잃고 망망대해를 떠돌며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뿐이다. 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로 해주었다. 하나는 아름답고 환상적이지만 믿기 힘든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럴듯하지만 삭막하고 잔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믿기 어렵지만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믿을만하지만 잔혹한 이야기-영화는 어떤 이야기가 사실인지 말하지 않고 선택을 관객에게 맡긴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화 자체는 공상적이지 않다. 환상과 과학 사이에서 놀랍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영화는 처음부터 호랑이와 인간의 우정을 말하지 않으며, 호랑이의 야수성과 인간 파이의 지성을 파이의 무의식과 의식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여지도 계속 열어놓는다. 또한 파이는 순수하게 신을 믿고 호랑이와의 소통을 꿈꾸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과학과 합리적 지성, 그리고 구명보트에 준비된 비상구조용 책자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고 호랑이를 길들이며 조난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사실과 환상의 경계 미묘히 유지

종교 · 과학도 사실성 근거는 믿음

을 찾아간다. 영화는 우리에게 파이의 이야기를 믿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사실' 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사실' 이 거기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일까?

예술작품에서 '사실' 은 궁극적으로 가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종교적인 경험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호랑이를 길들이고 낚시를 하는 과학적 지식이, 다른 한편으로 호랑이와 친구가 되고 식인섬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파이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어쩌면 과학도 종교도 '사실성' 의 근거는 믿음일 것이다.

환상이고 꿈일지 모르지만 호랑이와 식인섬의 이야기와 믿을 만하지만 조리사와 항해사, 엄마가 살인을 하고 식인을 하는 이야기 중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동아시아의 옛 사람들은 나한의 이야기를 선택했다. 그래서 나한을 바위에 걸터 앉았거나 나무 아래 쉬고 있는 현실적인 선승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했지만 호랑이를 타고 용을 안고 있는 공상적인 모습을 그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매우 생동적' 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하나의 이야기를 선택하면 우리는 또 다른 현실을 체험하게 된다. 나한을 선택한 옛 사람들의 이야기는 산신과 호랑이, 조사와 까치 등등 연속되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진다. 옛날이야기가 전하는 환상적이지만 진실한 이야기를 동아시아 예술에서 읽어보도록 하자.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 총무원 070-4187-4747 /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봉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기원 수륙대재' 행

부처님의 진리를 홍포하여 평화로운 불국정토의 구현이 본 종단의 사명임을 알고 정법구현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범종단이 함께하는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기원 수륙대재'**를 성대하게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단을 불문하고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 2013년 9월 29일 (음력 8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장 소 : 삼천포 대교 바닷가 야외무대 (경남 사천시 대방동 681-9)
문 의 : 010-3565-2462 총무원장 / 055)364-4747 종정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스님의 유지 한국불교 세계화에 활용해야



方山老의 無影樹 〈29〉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명우 스님

-영은사에 간 과정과 탄허 스님에게 인사드린 것을 말씀해 주세요.

들어갈 때가 1962년 가을이었어요. 영은사로 들어가는 트럭을 얻어 타고 들어갔지요. 영은사에 가서는 일소굴에 계신 탄허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겨우 스물네 살이었어요. 저를 처음 보신 스님은 저에게 "지혜도 많고, 모든 것을 다 알지만 너와 더불어 짝할 사람이 없구나. 참 안됐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를 몰랐지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화두가 되었어요.

-영은사에서 배운 것을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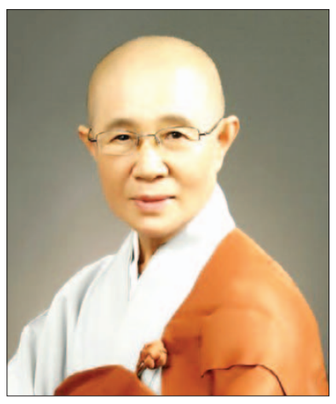
저희 비구니 세 명은 영은사의 작은채에 살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는 영은사 큰방에서 아침 공양을 하고 배웠는데, 대중 전체와 함께 배웠습니다. 배운 과목은 기신론, 노자 도덕경, 주역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스님에게 배웠던 과목들의 노트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스님에게 배우면서, 스님의 말씀과 판서해 주시는 것을 잘 모르지만 전부 기록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스님은 저에게 "필체가 참 좋구나" 그러셨지요. 제가 거기에서 스님에게 배우면서 감명이 깊었던 것은 경 공부를 하기 이전에 매일 새벽 꼭 참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대중들이 각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큰방으로 들어와서는 참선을 했어요. 탄허 스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비구 스님들이 상판에 앉으시고, 비구니들은 떨어져서 앉았지요. 참선을 30~40분씩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탄허 스님은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렇게 참선을 하고, 아침 공양을 한 다음에 경공부를 사시마지 올리기 전까지 했어요. 제가 동화사 내원암으로 출가를 했기에, 거기는 선방이어서 비구니 노스님들과 함께 정진도 했지만 탄허 스님과 같이 딱 하니 정진을 하면서 화두라는 것을 그때에 알았어요. 제가 영은사에 오기 전에 탄허 스님에 대해서 듣기로는, 스님은 유가와 노장, 불경을 잘 아시는 학자 스님으로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 새벽마다 큰방에 앉아서 정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셨군요. 탄허 스님은 경전에만 능한 강백스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언입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으로 앉아서 참선을 하시고, 그 후에 공양을 하고는, 저희 대중들에게 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님은 말을 않고서, 참선 수행을 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저는 그때에 중 되고 몇 년이 안 되어서 그런지, 그것이 제 마음에 남았지요.

-그 무렵 탄허 스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스님은 저희들에게 마음을 찾고, 마음을 잘 써야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때에 탄허 스님은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마음을 잘 써야 한다고 하신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 스님은 "네가 아무리 노자 도덕경을 배워서 도(道)를 잘 안다 하여도, 마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셨어요. 그러시고 스님은 노자 도덕경과 주역을 가르치시면서도 그것을 꼭 불교로써 설명을 해주셨어요. 유교, 장자 등을 말씀하셔도 꼭 불교로 회통을 쳐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들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에 제가 스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스님은 그 내용을 칠판에 써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다 베껴서 배우고 그랬지요. 저는 그래서 스님에게 가르침 받은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우 스님
영은사 수행, 성심사 주지 역임, 전국비구니회 회장

"짝할 이 없으니 열심히 공부해라"
스님이 처음 주신 말씀 화두
'학자' 로만 알았는데 매일 참선정진
"마음을 찾고, 마음을 잘 써야"
가르침 대상에 차별 안 둬
유불선 회통, 불교를 떠난 '유불선' 없어
스님 잊히는듯해 안타까워

-그러면 언제 영은사에서 나오셨는가요?

제가 거기에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공부를 하였어요. 그런데 제 노스님인 본공 스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 영은사에서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노스님은 제가 대중생활을 하지 않고, 비구 스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혹시 제가 비구스님네들이 있는 곳에서 있다가, 중노릇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엄청했어요. 할 수 없이 탄허 스님에 말씀을 드리니까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라는 뜻을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되었지요. 그때 제가 간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저에게 글씨를 하나 써주셨어요. 그것은 여기 성심사 관음전에 액자로 보관하여 걸어두었는데, 그 내용은 "불여만법여려무시삼마(不與萬法如侶無是甚磨)"입니다. 이것은 제가 영은사에 와서 처음으로 스님을 뵈었을 때에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을 써 주신 것입니다. 그 글씨 말미에는 '명우상인(明又上人)에게 탄허(呑虛)'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뜻은 저에게는 만법을 함께 짝할 사람이 없으니, 오직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영은사에서 나와 바닷가에서 버스를 타려고 한참 기다릴 때에 혼자 막 울었어요. 제가 간다고 하니, 어느 행자가 가다가 먹으라고 감을 세 개를 주더라구요. 도로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감 하나를 먹다가,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명우 스님은 탄허 스님에게 배운 의미를 어디에서 찾으시는가요?

저는 스님에게 배운 의미를 '마음을 제대로 잘 써야 하는 것' 에 두고 싶어요. 스님은 주역이나 도덕경 같은 것을 가르치시면서 마음을 잘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잘 씀으로 인해서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노자나 성현이 될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도, 참선할 때에도, 오직 마음 집중을 잘 해야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요(要)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 스님의 말씀이었지요. 저는 그런 스님의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어요. 무엇보다도 그 유묵을 갖고 나와서, 그 유묵에 담긴 내용을 저의 전체 생활의 길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주신 글, "너는 공부를 잘 하더라도 너와 짝할 벗이 없을 것이니, 그것이 왜 그런가"에 나온 화두를 항상 가슴에 새겼지요. 이것이 제 마음에 닿는 말씀이었어요.

-그후 탄허 스님을 어디에서 다시 만났는가요?

저는 청암사에서 배우고, 다시 개심사로 왔어요. 개심사에서는 성능 스님에게 전강을 받았지요. 성능 스님은 박한영 스님에게 전강을 받아서 강맥을 이은 비구 스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서울의 청룡사로 오게 되었지요. 청룡사의 주지이셨던 윤호 스님이 저의 문중이고 그래서 청룡사의 학인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그 전에 제가 영은사에 있다가 서봉사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명성 스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청룡사로 오라고 그래서 간 것이지요. 청룡사에 가니 명성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 다녔고, 저는 학인으로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에 명성 스님이 일중 · 여초 선생에게서 붓글씨를 배웠어요. 제가 중고교에 다닐 적에 서예첩의 교본에 나오시던 유명한 서예가였지요. 그래서 저도 명성 스님과 같이 서예를 배우다가, 나도 동국대에 가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동국대에 들어갔지요. 그렇게 동국대에 가서 공부하다가 졸업할 무렵에 탄허 스님이 청룡사에 오셨어요. 탄허 스님은 거기에 오시기 전에는 홍은사에 계셨는데, 사실은 저는 탄허 스님이 청룡사에 오시기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윤호 스님과 스님을 모시는 것을 상의도 하였어요. 저는 탄허 스님이 큰스님이시니깐 청룡사의 조실방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문간방으로 들

어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무척 마음이 아팠지요. 저로서는 배우던 스승이니깐, 문간방에 계신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저는 그 절의 주지도 아니고, 그 절에 얹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학교에 다니는 처지이니 제 의견을 낼 형편도 아니었지요. 스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깐, 스님은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시면서도 제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저는 스님을 뵈면서 반갑기도 하였지만, 괴롭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었지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탄허 스님은 청룡사에서 동양학 특강을 하였는데 그 강의를 들으셨지요?

그럼요. 스님이 보제루에서 몇 달간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었어요. 동국대 상무이사를 보던 법안 스님, 그리고 명성여고 교장을 하던 황진경 스님도 와서 들었어요. 또 스님을 무척 따라다니던 명호근, 전창열, 손창대 같은 사람도 와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탄허 스님을 따르고 배우던 사람들과 인연이 깊었어요. 그때 탄허 스님을 시봉하던 사람이 지금 민족사의 윤창화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스님 방에서 중국어 선생을 초청해서 탄허 스님과 함께 몇 명이 중국어를 배운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스님과 같이 배웠어요. 저는 그때에 배운 노트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스님은 그때에 언제인가는 중국이 개방될 것이고, 일본은 물에 가라앉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인연을 가지셨군요.

저는 그 이후에도 스님에게 인사를 다니고 그랬죠. 석파정, 대원암, 학하리에 찾아갔어요. 진관 스님, 자민 스님과 많이 갔습니다. 찾아가면 스님은 어떤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냥 '왔냐' 는 정도이지요. 그리고 스님은 사진을 절대 안 찍으시려고 그랬어요. 스님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그냥 계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님을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저를 보시면 국수를 먹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스님은 저에게 "명우야, 나 국수 먹으러 갈까" 그러십니다. 그러면 저는 "예, 그래요" 하고는 국수 대접을 해드렸지요. 스님이 청룡사로 오시면 청룡사에서 해 드렸고, 그 이후에 이곳 성심사를 제가 지은 후로는 성심사에도 자주 오셨어요. 오시면 항상 국수를 정성껏 만들어 드렸어요.

-성심사에는 스님의 흔적이 남아 있지요?

이곳 성심사 대웅전의 대들보에 스님의 글씨가 있어요. 그 대들보를 대패로 싹 깎아 놓았더니, 스님이 그 대들보에 오르셔서 붓으로 직접 쓰셨지요. 그리고 관음전을 지을 때에도 오셔서 상량문을 써주셨어요. 관음전 낙성식에 오셔서는 관음전의 앞문을 활짝 여시고는, 성심사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성심사에 날아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성심사를 위해 노력한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무렵에는 이곳 성심사 주변에 주택이 없었어요. 성심사에서 멀리 보이는 인왕산, 관악산이 성심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런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소박하게 그리 살아라, 산란하게 살지 말고 언제든지 부처님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의 말씀대로 이곳 성심사를 옛 모습 그대로 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큰스님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스님의 뜻과 가르침을 기리는 데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할 뿐이지요.

-탄허 스님은 오대산 수도원, 영은사 수도원을 다시 복구해서 인재양성을 하시겠다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게 스님의 원(願)이었지요. 저는 스님에게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스님은 누구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고, 좋은 도량을 만들어서 인재양성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스님께서는 사부대중이면 비구니건, 재가자건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어요. 비구니들이 비구 스님이 있는 절에 가서 배우는 것이 힘들잖아요. 저희들을 영은사에 오게 해서, 영은사 작은 채에 머물게 하면서 배우게 한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우 스님은 최근에 전국비구니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후배 비구니 스님들에게 탄허 스님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탄허 스님은 불교를 으뜸으로 하시면서도, 유불선 삼교를 통해서 불교의 법문을 하신 어른입니다. 유불선 모든 것을 하셨어도, 그 근본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두셨습니다. 요컨대 불교를 떠난 유불선이 없다고 하셨어요.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나타나셨지만 그렇게 삼교를 회통해서 불교를 세우신 분은 없었어요. 이런 스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역사 이래로 없는 분입니다. 스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분이 가시고 나서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이면 스님 탄생 100년이 되는데 소감은 어떠신지요?

스님은 우리 스님네들이 공부하는 기본 경전을 다 현토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리 다 해놓았지만 탄허 스님은 종단과 스님네들에게 잊혀졌어요. 그래서 탄허 스님 기념사업은 문도 · 재단 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 차원에서 받들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 유지를 받들어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저도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껏 스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스님에게 받은 은혜는 많지만 저도 너무 무심했다는 것을 자책했어요. 며칠 전 윤창화 사장님으로부터 교수님이 오신다는 전화를 받고서는 저 혼자, '이럴 수가 있나' 하였지요. 그러면서 제가 스님에게 배울 때 쓰던 노트를 찾아서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수강신청 : **10월 8일까지 (서류접수 10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개 강 : **2013년 10월 16일** (각 지역 별도 개강)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부처와 중생 함께 놓아버려야 '중도'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다른 견해도 없다. 부처라는 견해를 내기만 하면, 바로 중생이라는 견해도 따라서 일어난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0〉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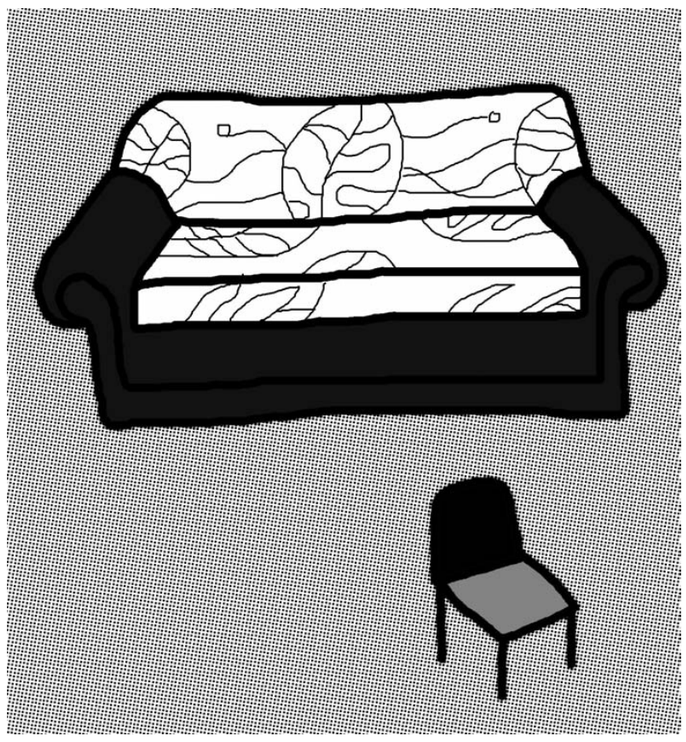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마음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교법을 설명하기 위해 마지못해 일컬은 '부처' 나 '중생' 이라는 말인데도, 어리석은 중생은 그런 말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양 집착한다. 부처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중생되는 소견이다. 부처를 구하면, 즉시 '부처 아닌 것' 즉 중생이 따라붙는다. 부처는 중생과 함께 양변을 이루기에, 불이법(不二法)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을 함께 놓아버려야, 중도인 한 마음이 드러난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영원불변 하다는 견해[常見]와 단멸한다는 견해[斷見]가 바로 두 철위산을 이루어 견해의 장애를 받게 된다. 따라서 조사들께선 일체 중생의 본심(本心)과 본체(本體)가 본래 부처여서,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밝음도 어둠도 아님을 바로 가리키신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무차별이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고 했다.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조사들께선 이 사실을 바로 가리킬 뿐, 에둘러 설명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설명하면 알음알이만 심어주게 되지만, 직지하면 언하에 깨닫는 기연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의심을 더 깊게 만들어서 돈오의 기연을 앞당겨주기 때문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어서, 닦아서 증득하는 것도 아니고 단계를 밟아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소화할 수 없어서, 도대체 공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기 쉽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공부의 요점이 있어서, 진실 된 공부인은 이 한 마디에서 마음의 정체를 파악하고 공부의 바른 길로 접어들게 된다.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도 없으며,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도 없다. 그러므로 무명(無明)도 없으며 또한 무명이 다함[無明盡]도 없다. 우리 이 종문에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뜻을 간절하게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이름 하여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며, 부처와 법이 모두 함께 없는 것을 승(僧)이라고 한다.

허공 자체에는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다. 빛이 있으면 밝아지고, 빛이 없으면 어두워질 뿐이다. 밝음과 어둠에 상관없이 허공은 텅 빈 그대로 여여하다. 그래서 본래 마음자리에는 무명이라는 어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명이 다함이라는 밝음까지도 함께 없다. 그러면서도 인연 따라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그 자리에는 무엇이라도 이름을 붙일 수 없으므로, 법도 없고 부처도 없다. 부처와 법이 다 함께 꼭지 떨어진, 그 모습을 승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말하자면, 승려는 정진하여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 선(禪)은 이런 면에서 가차 없이 바른 말을 한다.

볼 수 있는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라 하며
부처·법 함께 없는 것 '승'

정진해 깨달은 사람이 '승려'
부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눈앞에 법 살펴 깨달으면
집착하라 마라 할 것 없이
저절로 구하는 바 끊어진다

본래 마음자리에는 그 무엇도
법이라 정해진 것 없어서
깨닫기 전에는 불·법·승도
망상이고, 마음을 열면
일체가 불·법·승이다.

승마저도 됨이 없다면, 또한 일컬어 일체삼보(一體三寶)라 한다.

불 · 법 · 승 삼보가 일체라는 것은 깨달음의 당처에 계합한 것을 말한다. 그 자리에는 불 · 법 · 승이 이미 무차별이다. 부처와 법은 물론 승이라고 할 것도 없다. 여기에 계합한 사람은 이미 삼보에 귀의를 했나니, 새삼 승이 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대저 법을 구하는 이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아서,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이미 다 드러나 있는 법을 깨닫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없는 법을 만들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다. 눈앞에 있는 법을 바르게 살펴서 깨달으면, 집착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저절로 구하는 바가 끊어진다. 그래서 영가대사는 '증도가' 에서 "배움을 끊고 하릴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絕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고 노래한 것이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랄 것도 없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랄 것도 없으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이랄 것도 없다."

삼승십이분교에서는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하라고 강조하지만, 일불승의 최상승 도리는 모든 문자를 싹 쓸어버려도 전혀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문자라는 상(相)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자리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법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어서, 불 · 법 · 승 삼보조차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일체삼보에 진실 되게 계합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일단 계합한 사람에게는 두두물물이 불 · 법 · 승 삼보라서 하나라도 버릴 게 없다. 깨닫기 전에는 불 · 법 · 승도 망상이고, 마음을 열면 일체가 불 · 법 · 승이다.

8. 진리의 도량

배휴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말씀하고 계시거늘, 어찌하여 승(僧)도 없고 법(法)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배휴는 아직도 말에 떨어져, 황벽스님 말씀의 낙처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황벽스님이 곧 승이며 또한 그 말씀이 법인데, 어째서 승도 법도 모두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또 묻고 있는 것이다. 비록 아직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 배휴의 처지가 답답한 노릇이긴 하지만, 뒷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그 덕분에 걸출한 선사인 황벽스님의 자상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⑧⑥



본래 청정한 마음은 번뇌에 의해서 오염된다

〈승만경〉

인간의 얼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말은, 실제로는 어느 신전에서 얻은 신탁(神託)이라 한다. 이 말을 듣고서, 소크라테스는 깊이 깊이 스스로를 성찰해 보았다. 그 결과, 그는 '무지(無知)한 자신' 을 인식하게 된다.

소크라테스가 받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죄인" 이라는 것이다. 원죄(原罪)는, 그 죄인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는 빼낼 수 없는 생선가시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절대자 신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길을 유일의 구제책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무엇이라 대답할까?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불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부처!" 그렇다.

불교에서는, 우리 자신이 부처라고 말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산천초목도 다 부처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대답이나 예수의 대답에 비한다면, 불교는 훨씬 더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나는 부처다", "우리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불교인은 얼마나 될까?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불교에서는 인간이, 중생이 사실은 다 불성을 갖춘 부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현실의 삶 속에서 "그래, 그렇다. 나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부처로서의 삶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라는 것은 '속' 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겉' 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겉' 으로는 수많은 번뇌에 오염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게는 이러한 이중구조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인식이 가장 타당한 인간이해가 아닌가 싶다. 본래 청정한 부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번뇌의 중생이고, 현실적으로는 번뇌의 중생이지만 실제로는 부처라는 것. 그러한 이중구조, 어쩌면 모순 속에 놓여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모순 속의 삶

인간의 이중구조, 혹은 모순을 〈승만경〉에서는 여래장(如來藏)이라 말한다. 물론 우리는 이중구조 속에서 어느 한 편에 초점을 두면서, 다른 한 편을 포섭하는(혹은 이해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선(禪)은 본래 청정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서 수행법을 제시한다. 그 반면에 정토신앙은 오염에 초점을 두고서 수행법을 제시한다.

물론 선이라 해도 오염의 측면을 고려하는 선이 있다. 돈오점수를 주장하는 선이 그렇다. 돈오는 본래 청정을 깨닫는 것이지만, 점수는 현실적인 오염이나 번뇌를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제어해 나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 반면, 타력신앙이라 말해지는 정토신앙에서도 본래 청정함을 말하는 입장이 없지도 않다. "나무아미타불" 이라는 염불은, 중생이 부처님께 구원을 청하는 소리가 아니라 본래 청정한 아미타불인 내가



그림 · 박구원

내 속의 아미타불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이다. 이른바 자성미타(自性彌陀)설이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불교의 사상이나 수행법이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양한 진폭 속에서 자기 길을 발견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수행일 것이다.

청정과 오염, 불성과 번뇌의 이중구조는 모순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모순은 통일을 요구한다. 하지만 섣부른 통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을 외면하거나 정도 이상으로 축소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뜻하지 않게, 모순된 존재로서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인식 그 자체가, 지금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모순의 직시, 모순된 나 자신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新製品

「Stuart YD-675 마이크」
단 한 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 고음질 YD-675
가격 : 115,000원

『YD-675 高音質 다이나믹 마이크』의
담백하고, 맑고, 힘찬 소리는 스님의
품위를 한층 높여 드릴 것입니다.

이런 스님께 구입을 권합니다
- 법당 마이크 사용에 너무 힘이 드시는 스님
- 스피커의 소리가 안 좋은 법당
- 오래된 앰프와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스님
-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비구니스님
- 여러 마이크로 바꿔봐도 효과를 못 보신 스님

Stuart 상표는?
유코음향연구소 김문화 소장이 특허청으로부터 1986년 12월 27일자로 상표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도록 제조하는 모든 마이크에 사용하고있는 고유 브랜드로서 대표적인 마이크로 "DX-707" "V-606LC" "V-620" 신제품 "YD-675"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마이크는 사찰 외에 일반 시중에는 단 1개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 주문방법 :
- 은행 계좌로 입금후 주소를 Fax나 전화 문자로 넣어주십시오.
- 입금확인 순서에 의해 3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 마이크 코드가 필요하시면 프러그의 종류와 길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2-610-963886 예금주 : 김문화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walbup Apitherapy Correct Master
벌(蜂)침관리사
일침 이구 삼약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벌침(蜂)관리사란?

벌(蜂)꽁무니에 있는 침을 손과 핀셋으로 압통점 및 경혈에 직침과 자침을 하여 일침이구삼약(침/뜸/약)의 동시 효과로 밸런스가 무너진 몸의 균형을 신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활법 교정술과 접목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평생 유지되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벌침관리 전문가다.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바른자세와 근육론 / 경혈론 / 증상론 ● 벌(蜂)침의 척추신경 / 경락의 활용법 ● 척추와 아시혈 찾기 / 주의사항 ● 활법교정과 벌침의 직,자침 실기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 교육기간 : 6주과정 (토) 오후 1시 ~ 5시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
▶ 특 전 : 봉산물 및 가축(봉침)용 양봉기술 전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범부 말 보고 안 보고는…초의께 맡길 뿐"

〈주상운타첩〉에 수록된 이 추사 편지는 그의 문집이나 또 다른 추사의 간찰제첩본에도 소개된 적이 없는 자료이다. 간지가 없어 그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편지의 말미에 특구(泐具)라는 특 관련 후미운(後尾韻)이 있어서 그 시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추사의 명호를 연구한 최준호선생의 〈추사, 명호처럼 살다〉를 살펴보니 특구(泐具)란 "형식만 갖추어 글월을 씁니다"로 해석하였고, 초의를 비롯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추사의 편지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추사의 편지를 연재하면서 어렴풋이 짐작한 것은 특구란 후미운이 있는 편지는 대부분 추사의 제주 유배 시절이나 이들이 활발했던 교유 시기인 1830년 이후의 편지일 것이라 짐작된다. 추후 이 편지의 연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출현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상운타첩〉에 수록된 추사 편지

추사 '선언', 초의에게나 씀직한 언어
'특구' 후미운…1830년 이후 편지 추정

근래 사오년간 산중에 머물며, 마음에 증장된 것이라 여기는 것은 옛날처럼 변함없이 모두가 뜻밖이고 초조하고 시끄러운 것뿐입니다. 또 지난번 두릉에 간 것은 특별히 그대를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종이 가득히 장황한 말들은 모두 구두선의 기만과 희롱일 뿐입니다. 범부의 말을 보면 보는 것이고,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것이니 또한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초의에게 맡길 뿐입니다. 이만… 특구(邇來四五年之間 住定山中 意謂有所增長 依舊是千猝燥擾 又向斗陵去殊非所望於師也 滿紙張皇 盡是口頭禪 弄凡夫語 見則見之 不見則不見 亦不願見 如此 艸衣任之而已 不式 泐具)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를 제첩한 후, 1862년 윤 8월에 쓴 〈주상운타첩〉 후발에는 그가 1830년 두 번째 상경에서 그의 스승 완호의 탑명을 해거 홍현주에게 받기 위해 상경했으며, 두릉으로 다산 정약용을 찾아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추사 집안이 어려움이 있어서 해거 홍현주의 별서 청량산방에 머문 사연을 소상히 기록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1831년 정월 중순경 청량산방의 보상암에서 봄밤을 즐기는 아회를 열었고, 이 아회에 모인 인사들은 홍현주, 윤정진, 이만용, 정학연, 홍희인, 홍성모, 초의 등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의 스승 완호의 탑명을 홍현주가 쓰게 된 연유와 이 탑의 서문을 신위가 쓰게 된 동기를 아울러 밝혀두었다. 이때 초의와 함께 온 승려가 취연이었음도 이 자료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초의는 금강산 유람을 계획하여 자신의 제자 취연과 만휴뿐 만 아니라 아암의 고제(高第) 철선도 함께 가려했던 사실이 이 후발(後跋)을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초의의 이런 장대한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만휴와 철선이 대둔사로 돌아가는 사단이 생겼으니 초의의 금강산 유람은 결국 1838년에야 실현된다.

따라서 추사가 이 편지에서 "또 지난 번 두릉에 간 것은 특별히 그대를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한 내용은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초의가 상경한 사실을 알았지만 집안 상황을 전하기 위해 두릉을 찾은 것은 아닐까. 당시 추사는 초의의 두 번 째 상경을 도와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한 후, 초의가 원하는 완호의 탑명과 문사들과의 폭 넓은 교유를 도와 주려하였다. 하지만 집안에 큰 변고가 생겼으니 이는 곧 그의 부친인 김노경이 유배되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그가 "종이 가득히 장황한 말들은 모두 구두선의 기만과 희롱일 뿐입니다"라 하여, 그의 장황한 설명들은 모두 헛된 말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추사는 "범부의 말을 보면 보는 것이고,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것이니 또한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초의에게 맡길 뿐입니다"라 하니 범부의 쓸모없는 말을 보거나 보지 않는 것은 초의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 이러한 추사의 선언(禪言)은 지인 초의에게나 씀직한 언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94년도 보이차茶

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漢)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쪄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 × 지름 7㎝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상과 소통하는 보살행은 삶의 근원

소설가 **남지심 씨** (불교문학창작교육원 원장)

불교적 글쓰기를 결심하다

"보살도의 실천은 제 삶의 모든 근원이죠. 그러니 저는 작가이기 이전에 보살행을 실천하는 구도자에요. 제가 배운 것을 끊임없이 행하며 나를 완성하는 과정에 있죠. 완성도가 높은 보살이 되기 위해 경험을 넓히고 세상과 소통하며 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죠. 일단 방향을 잡았으니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 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면 되죠. 그렇게 끝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베스트셀러 소설 〈우담바라〉로 유명한 남지심 작가는 자신의 삶을 보살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기에 데뷔초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녀에게 글쓰기는 불교적 보살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한다.

고희를 맞은 작가는 이제 재가불교운동의 거목이 되었다. 스토리텔링사회적기업 얘기꾼, 불교문학창작교육원,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33통일바라밀숲 운동 등 고희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끝없는 경험을 통해 보살도를 이루어가고 있는 남지심 작가를 8월 27일 종로구 낙원동 작업실에서 만났다.

작가에게 불교와 문학 또는 문학과 불교의 연결고리는 어디서부터 맺어진 것일까? 그 답은 〈톨스토이〉의 인생독본을 선물 받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의 책이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아 모두 외워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의문점이 그의 머리에 남았다. '정말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의문은 그녀의 20대를 따라다녔고 이를 풀기 위해 밤을 새워 책을 읽어 나갔지만 그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32살 때 우연하게 〈화엄경의 세계〉라는 책을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화엄경 보살십지품을 만났을 때 이것이 제가 원하고 찾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보살의 삶이 제가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죠."

36살이 되던 설날 무렵 그녀는 소설 한 편을 완성하게 되었고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된다. 불교적 내용을 소재로 한 〈솔바람 물결소리〉였다. 등단 소감에서부터 불교적 글쓰기를 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작가는 이후 〈우담바라〉 〈연꽃을 피운 돌〉 〈욕심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새벽하늘에 향 하나를 피우고〉 〈도가다의 푸른 종소리〉 등 불교 관련 소설을 내놓았다.

"불교를 떠난 글쓰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물론 지인들이 왜 불교 이야기만 하느냐 그러면 작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충고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 꿈은 작가가 아니라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었으니 불교적 글쓰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이후 토굴수행을 하는 청화 스님과 만나면서 불교와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청화 스님은 생전에 하루 한 끼의 공양을 하시며 토굴수행을 하셨죠. 태안사의 한 칸짜리 가건물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처음 얼굴을 뵈었는데 웃는 모습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에서 도를 느꼈어요. 도라는 것이 실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이후 한 달에 한번씩 태안사를 들러 스님을 찾아뵈었어요. 그것이 불교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또다른 계기가 됐죠. 청화 스님 입적 후에는 전기 〈청화큰스님〉을 쓰기도 했습니다."

인재 · 콘텐츠 양성을 최우선으로

그렇다면 작가의 보살행은 무엇일까? 혼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가는 것이 보살도의 실천이라면 작가인 그녀가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일까?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불교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도 대중의 사랑을 받은 작가의 보살행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쌓아왔던 작가적 경험을 세상과 나누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불교문학창작교육원과 스토리텔링사회적기업 얘기꾼이다.

지난해 남 씨는 불교문학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불교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불교문학창작교육원을 개원했다. 소설 동화 수필 시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교육하고 있는 이곳은 개원 1년만에 3명의 작가를 배출할만큼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기관은 수없이 많지만 여기서 배출된 작가가 지속적인 수입을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현실이 안타까웠던 그녀는 불교문학창작교육원에서 기른 인재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사회적기업 '얘기꾼'을 창립하기에 이른다. 문화재청 소속의 이 기업은 불교문화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불교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작가들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국보 문화재 중 77%가 불교문화재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서술한 논문들은 많아도 진정 쉽고 재미있게 우리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대중들에게 불교가 좀 더 쉽게 다가가려면 또다른 변신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문화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해요."

현재 '얘기꾼'은 국립공원 힐링로 100개와 북한산 봉우리 30여개를 스토리텔링 작업중에 있다. "북한산 봉우리 절반 가량이 불교 관련 명칭일 만큼 불교와 북한산은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 작업이죠."

특히 북한산 봉우리 이야기는 9월부터 본지의 연재로 만날 수 있으며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보살십지품 만나면서 해답 얻어
〈우담바라〉 등 불교적 소재로 창작
불교문학창작교육원 '인재양성' 매진

일체중생과 함께 하는 대승불교 실천
캄보디아 지원 · 탈북 대학생 지원 등
보살행 실천하며 종교적 완성 발원

세상과 함께 나누는 일

"중생이 없으면 성불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나누면서 자비심을 증장시키는 것이 대승불교 보살사상의 핵심이죠.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부처님처럼 진실하게 행하고 있나 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죠. 일체중생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목숨을 걸어 해볼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노력하고 점검하며 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오지마을을 지원하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과 탈북대학생 지원을 위한 '33통일바라밀숲' 등은 대중과 함께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남 씨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자비를나르는수레꾼'의 대표이기도 한 그녀는 지난 2009년 캄보디아 오지마을 뗍뽀디봉에 초등학교를 세우면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와의 인연은 이보다 훨씬 전인 2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어요. 폴포트 정권이 물러나면서 스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리는데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7년 전이었는데 당시 월 3만원이면 스님 한 분을 공부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문사 명성 스님과 함께 캄보디아를 찾아갔어요. 그때 만났던 분이 캄보디아 승왕으로 불리는 텝붕 스님이에요. 스님을 통해 승가대 학생 중 33명을 선발해 월 3만원의 장학금을 약속했죠."


캄보디아 승왕 텝붕 스님 한국 방문 당시 해인사 장경각에서


1980년대 후반 〈우담바라〉 집필을 마치고 경주를 여행하며 찍은 기념사진



남지심 작가는 … 강릉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를 졸업했다. 198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솔바람 물결소리〉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온 이후 애환 가득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특유의 섬세하고 종교적인 시선으로 그려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장편소설 〈솔바람 물결소리〉, 〈연꽃을 피운 돌〉, 〈담무갈〉, 〈청화 큰스님〉, 수필집 〈욕심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꽁트집 〈새벽 하늘에 향 하나를 피우고〉 등이 있다. 특히 〈우담바라〉는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전 4권이 150만부 이상 판매되는 밀리언셀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 불교문학창작교육원 원장,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간절하게 원을 세우니 도와주는 인연이 절로 생겼다. "대구에 강의가 있어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을 갔는데 당시 불국사 주지였던 설조 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스님과 근황을 얘기하던 중 캄보디아에 다녀온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스님 개인이 50만원, 불국사 대중이 50만원을 내어 월 100만원을 맞춰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3년동안 스님들을 지원할 수 있었죠."

20여년 넘게 텝붕 스님과 인연을 맺어오던 중 스님이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지역 오지인 뗍뽀디봉 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어줄 수 없냐는 제안을 한다. "5만불 정도의 비용이 드는 터라 거절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보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외손녀를 본 기쁨을 회향하겠다며 흔쾌히 학교 건립비용을 희사해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었어요. 이후 김재형 법사, 이평래 교수 등이 학교운영 후원자로 나서면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이 탄생하게 되었죠. 현재는 오시환 사무총장, 박기동 금속학 교수, 왕정은 사회봉사단장 등 3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나르는수레꾼' 은 30여개 마을 우물만들기 사업에 이어 프놈펜 대학 한국어학과 장학금 지급을 이어오고 있으며 작년 뗍뽀디봉 마을에 수레꾼 중학교 건립까지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뗍뽀디봉 마을은 군사적으로 위험 지역인데다 워낙 오지인지라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마을이었는데 이렇게 학교와 우물이 생기면서 큰 마을이 형성이 되었어요. 현재는 1천 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 정도로 사람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하게 되었죠."

최근 남 씨는 탈북 대학생 교육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름하여 통일바라밀숲 운동으로 탈북 대학생 1명에게 월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 대학생들은 한국으로 들어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형편이 어렵다보니 다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물론 국가에서 학비를 지급받지만 대부분이 생활비를 벌어써야 하는 형편이다 보니 학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월 30만원 정도면 탈북 대학생들이 최소한의 용돈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죠. 그래서 한 명당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후원자 연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 대학생을 돕는 길이 통일을 위한 불교 인재 불사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말하는 남 씨. "통일이 된다는 것은 남한의 경제적 손실만 가져오진 않아요. 좀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통일은 민족적 당위성을 넘어 대한민국 성장의 대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고 동북아를 잇는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불교에서 통일 인재를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탈북자들의 탈북과 그들의 한국 내 정착을 돕는 일은 대부분 이웃종교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불교는 설 자리가 없을 거에요. 그래서 통일 한국을 위한 인재 불사를 위해서는 탈북 대학생들을 돕는 일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들이 불자가 되어 북한에 불교를 알리는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작 단계인 현재 7명의 후원자가 결성된 상태이며 앞으로 33후원자가 완성된 후 108 후원자까지 만들어 가는 것이 그녀의 목표다.

뜨겁던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 그녀의 행보는 여전히 바쁘다. 새롭게 시작된 얘기꾼의 스토리텔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불교문학창작교육원 신입생 모집에 통일바라밀숲 후원자 모집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남지심 작가. 불교적 글쓰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으로 뛰어들어 보살도의 완성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 가는 작가의 모습은 재가수행자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답다고 했던가? 그녀의 삶은 단풍처럼 그렇게 곱게 익어가며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자비를나르는수레꾼은 2009년부터 캄보디아 오지마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건립해 국제구호사업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학교를 방문한 남지심 씨.

전법일기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영어담마캠프(3)

아이들과 5박 6일 캠프. 그것도 70명 가량의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지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매년 3월이 되면 마력에 걸린 사람처럼 캠프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장소 물색에 나선다. 나는 왜 이일을 할까? 사실 어른들 수련회 보다 열배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캠프에서 친구와 화해하는 법을 익히는 아이들,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래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본다. 말썽을 피우고 돌아서서는 아주 순진한 눈빛으로 "스님! 캠프 너무 재미있어요. 내년에도 꼭 올게요." 하는 순간 나는 묘한 보람을 느낀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노력과 정성' 이다. 정성을 쏟다보면 반듯이 상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매해 캠프마다 선물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면 좋아 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캠프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내면의 고요함과 무한한 능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은 어머니들의 욕심으로 가끔 무너지기도 한다.

이번에 경북지역에서는 열 명 가량의 아이들이 참가했다. 그중 5학년 태수와 민영이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밀려온다. 태수와 민영이는 저녁 늦게 도착했다. 사연인즉 아이들이 안 간다고 해서 엄마가 달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다. 보통은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도 처음에는 입이 한발 나오고 시큰둥 하지만 일단 캠프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신나한다. 하지만 민수와 보현이는 달랐다. 둘은 처음부터 프로그램에 참석할 의사가 아예 없어 보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드디어 담임교사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스님! 민수와 보현이 난리났어요. 울면서 집에 가겠대요. 어쩌죠?" 나는 화들짝 놀라서 아이들을 교사 회의실로 불렀다.



그림 · 박구원

"너희들 정말 집에 가고 싶니?" 여전히 힘없고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네" 한다.

"그럼 캠프는 왜 왔지? 너희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니?"

"네. 그랬지만. 저는 1박 2일 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5박 6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집 떠나서 하루 이상은 잔적이 없어요. 엄마가 하루만 자면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저는 있을 수 없어요." 태수의 말이다.

아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다. 엄마를 탓하며 달래자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듯 했지만 둘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너무도 완강했다.

"이곳에서 무엇이 제일 힘드니?"

"많은 아이들 하고 같이 자는 거요. 어제 밤에도 못 잤어요. 지금 집에 갈래요"

"지금은 밤10시가 넘었어. 산속은 깜깜하고 차도 끊겼어. 어떻게 갈래?"

"그냥 우리 둘이 걸어서 갈래요" 세상을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걷다보면 대구가 나온다 생각하나 보다. 나는 묘안으로 "절에서는 밤10시가 넘으면 누구도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단다. 내일 엄마에게 꼭 와서 데려가라 할테니 오늘 밤은 이곳에서 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저는 절에서는 잠을 잘 수 없어요? 갈래요."

끝까지 가겠단다. "잠이 안 오면 앉아서 참선해. 옛날 스님들은 몇 년씩도 앉아서 참선했대. 혹시, 알아? 오늘밤 참선하다 너희 둘 다 도인이 될지. 얼마나 좋아. 절대 잠자지 말고 참선해라."

나의 말에 아이들은 할 말을 잃고 겨우 방으로 돌아갔다. 취침당번 교사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은 그날 밤 아주 잘 잤다고 했다.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면서 존중받기를 원한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될 때 어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형성된다. 결국 다음날 아이들은 웃으며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지만 그래도 2박 3일 집 떠나 생활하는 쾌거를 올렸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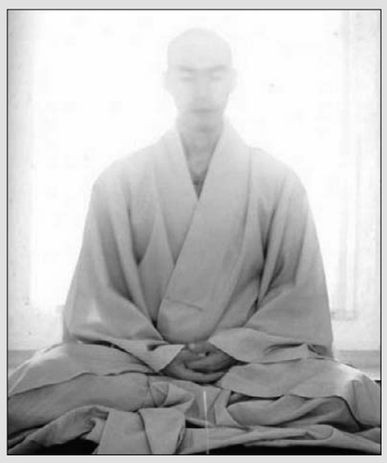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비첸지오 판매 비취)
  - B비취 : 원석에 착색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을 향한 정중동(靜中動)

미국 선센터와 한국의 절에서 진행한 "이 뭣고" 프로젝트로 왼쪽과 같은 사진이 나왔다. 스님들의 명상과 동시에 사진작가 신준식(뉴욕 파슨스 디자인 학교 졸업생) 씨도 함께 카메라를 들었다.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스님들이 가부좌를 풀 때까지 카메라의 셔터 또한 열린 채였다.

빨간 선을 그리고 있는 향이 시간의 경과를 설명해준다. 노출을 길게 줄수록 셔터가 닫히는 속도 또한 느려지기에 그동안의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움직임이 많을수록 사진 속 형체는 흐려진 반면 명상에 깊게 들어 얼굴 표정까지 오롯이 남기도 했다. 인물이 삼매경에 들었는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 작가가 그리고자 했던 건 흐트러진 정신을 쉼 없이 가다듬는 스님들의 치열함이었다. "많이 움직였든 아니든, 사진에 공통적으로 새겨진 건 알아차림과 깨달음을 위한 인간적 노력이었다"고 신 작가는 말했다. **배현진 기자**

과학과 불교가 일러주는 10가지 행복비법

불교 행복론, 실제로 효과 있어

불교가 얘기하면 과학이 맞장구를 친다. '불교 행복론'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미국의 작가이자 교사인 보디파스카는 불교명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와일드마인드(www.wildmind.org)서 불교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니까야 초기경전과 비교한 글을 게재했다.

①관대하라

"기부자의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주기 전에도 기쁠 것, 주면서도 밝은 마음일 것, 주고 난 후도 기쁠 것." (앙굿따라 니까야)

불교는 항상 기부를 강조한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교육, 자신감, 지혜 등도 포함하는 베풂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다고 한다.

②일상을 맛보라

"그들은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미래를 원하지도 않으며 현재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그들이 빛나는 이유다." (상윳따 니까야)

기쁜 순간을 떠올리면서 일상을 즐길 줄 아는 이들은 우울함 대신 행복감을 증대시킨다고 한다.

③비교를 피하라

"자신을 타인보다 낫다거나 동등하다고 혹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견주지 말라." (숫타니파타)

불교에서는 자만을 경계한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남과 동등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남과의 비교는 자아존중감을 해친다. 대신 성취에 집중하면 더 큰 만족을 얻는다고 많은 연구 결과는 말한다.

④돈을 최하위에 위치시켜라

"아무리 금화가 많더라도 욕망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한다." (법구경)

부처님이 돈 버는 것을 장려한 이유는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써 유용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질을 통해 얻는 만족은 한 순간이다.

돈을 최우선으로 삼은 사람은 우울증, 불안, 낮은 자존감 등을 가지게 된다는 통계가 있다.

⑤의미있는 목표를 가져라

"법에 대한 열의를 가질 때 기쁨도 얻을 수 있다." (맛지마 니까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매순간 알아차림으로써 노력하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버드 대학의 탈 벤샤퍼 교수에 따르면 행복은 기쁨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 한다.

⑥독창적으로 일하라

"직업을 구하거나 일을 할때 주의를 기울이라. 이것은 행복과 만족의 요소들이다." (앙굿따라 니까야)

직장에서 행복해지는 법은 얼마나 창의적으로 일하는가에 달렸다. 창의성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일을 제어한다는 느낌과 보상 받는 기분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⑦친구와 가족을 귀하게 여겨

"순수하고 고매한 친구를 만나 진실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기쁨에 가득 차 고통을 끝내게 될 것이다." (법구경)

부처는 종교적 삶에 있어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정을 유지하는 요소로 관대함, 상냥한 말, 도움, 일관성 등을 꼽기도 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친밀함이라는 조사가 있다.

⑧밝은 면을 보라

"강도가 톱으로 자신의 사지를 절단하더라도 마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추악한 말을 뱉지도 않을 것이며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자비로써 광대히 채울 것이다." (맛지마 니까야)

불교의 가르침은 어느 상황에서나 최선과 긍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어디서나 가능성, 기회, 성공을 보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며 과거를 돌아볼 때는 인생에서 정점을 이뤘던 시간을 되새긴다고 한다.

⑨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말하라

"고결한 이는 감사할 줄 아는 이다." (앙굿따라 니까야)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고마운 것들을 하루 5개씩 꾸준히 기록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고 건강하고 낙천적이라고 했다.

⑩야외활동을 즐기고 운동하라

"걷기는 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체력을 기르는 일에도 도움이 된다. 질병을 줄여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며 걸으면서 얻는 안정감은 길게 지속된다." (앙굿따라 니까야)

불경은 좌식생활을 하는 승려들에게 시간을 내 걸으면서 몸을 움직이라고 권하고 있다.

듀크대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부작용없는 우울증 치료제다. **배현진 기자**

中, 99미터 지장보살상 세워

황금 35㎏, 한화 600억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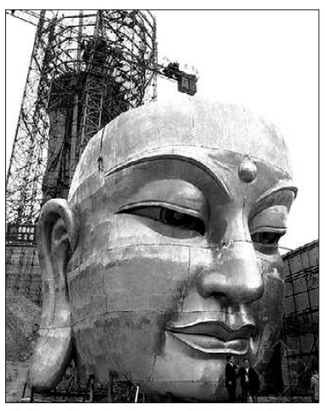
중국에 높이 99미터의 세계 최고 지장보살상이 세워졌다.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46m인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과 40m 높이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그리스도상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높다.

불교 명산 중 하나인 안후이 성 구화산에서 8월 31일 지장보살상 개안식이 열렸다. 금도금에만 황금 35㎏이 소요되는 등 우리 돈 6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불사.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개안식을 보려고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 한국 등지에서 100만 명이 넘는 스님들 또한 자리에 참석했다.

구화산은 관세음보살의 영지로 꼽히는 보타산, 문수보살의 도량 오대산, 보현보살의 아미산과 더불어 중국 사대명산으로 꼽힌다. 신라 고승 김교각 스님이 이곳에서 수도에 정진하며 사람들에게 지장보살로 추앙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장 도량으로 손꼽혀왔다.

하얼빈에 거주하는 짜오쥔홍 씨는 "지장보살님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욕과 절제를 중시하는 불교와 화려한 지장보살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는 갈수록 커지고 부유해지는 중국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중국 지장보살 성지로 꼽히는 구화산에 조성된 지장보살상. 99미터라는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한다.



"재소자도 채식 하게 해달라"

美 재소자 하워드 코스비, 교도소 내 채식 권리 주장


미국 코네티컷에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한 불자 수감자가 채식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한 불자 재소자가 교도소 내 '채식의 권리'를 주장하고,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옹호하고 나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데일리 뉴스(Daily News)〉 지는 지난 9월 3일 "2004년부터 코네티컷 코리겐(Connecticut Corrigan, 이하 코리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하워드 코스비(Howard Cosby, 35) 씨가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의 도움을 받아, 교도소 내 채식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코스비 씨는 재소기간 동안 '완전한 채식'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고, 교도소 측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이 매주 3차례 '생선 요리'를 채식 식단으로 내놓으면서 교도소와 코스비 씨의 불협화음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현재 하워드 코스비 씨는 교도소 내 '채식의 권리'를 주장하며 단식에 들어갔고, 이를 접한 PETA 측은 코스비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데일리 뉴스〉 지는 "지난 2000년 통과 된 연방법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종교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는 PETA 측의 강경한 입장에 주목, "PETA이라는 세계적인 동

동물보호단체 적극지지

교도소 "교정위 입장 나올것"

물보호단체의 서한이 코네티컷 교정위원회 측에 전달된 만큼, 코스비 씨의 요구는 조만간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예단했다.

한편 코리겐 교도소 측은 〈데일리 뉴스〉 지와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내에서 생선은 '채식'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코네티컷 교정위원회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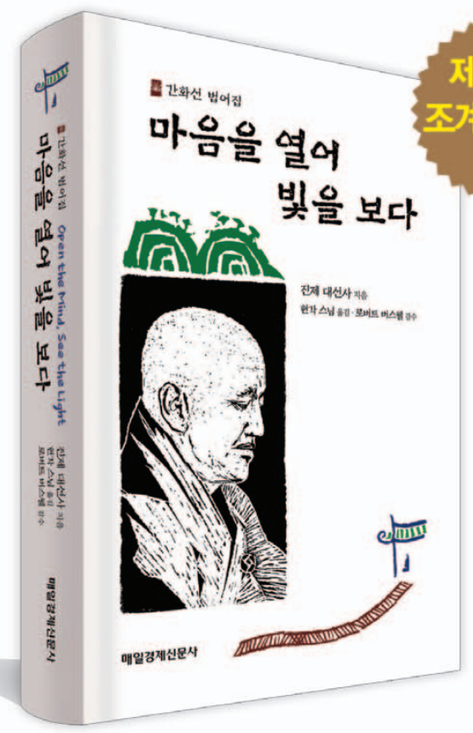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당대 최고의 선지식, 진제 대선사가 알려주는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수행법!

마음을 열어 빛을 보다





제 13 대 조계종 종정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번역하고,
세계적인 불교석학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감수하고 극찬한 참선법문집!

이 책의 편집 방식은 특별하다.
책의 앞면에서부터는 한글판이 시작되고 뒷면에서부터는 영문판이 시작된다.
전 세계인들은 진제 대선사의 참선 수행법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며,
한국독자들은 법문 공부와 동시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선사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것이지만, 그 응용에 있어서는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의 방법에 관한 선사님의 생각과 통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루이스 랭카스터** UCLA 명예교수

진제 대선사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법맥인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제 79대 법손으로 珙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대선사 지음 | 현각 스님 옮김 | 로버트 버스웰 감수 | 신국판 변형 양장 436면 | 값 25,000원
Tel: 02)2000-2636 Fax: 02)2000-2609 www.mkbook.co.kr

진제 대선사 법어집

"영원한 행복을 위한 자기 성품계발서"

石人은 물을 긷고 木女는 꽃을 따네

"진제 대종사가 이처럼 선풍을 휘날리지 아니했다면, 오늘의 대한불교조계종이 어찌 불조의 정맥을 이은 종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 **종산 대종사** 원로회의 의장

"구구절절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라고 화두를 참구하라는 자비의 말씀이 귀를 때리고 마음을 울린다"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올바른 삶을 위한 국민 필독서!

'참선'으로 지혜 계발하면
출세 · 성공은 따라오는 것!

진제 대선사 지음
신국판 348면 | 값 15,000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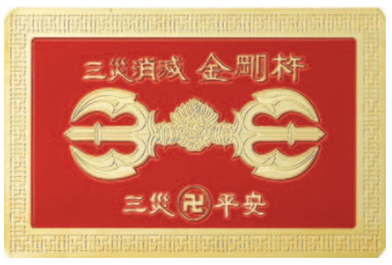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출발일 : 2013년 9월 21일, 9월 28일 (단, 2회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출발일 : 2013년 9월 25일

■ 인천 / 김해공항 출발 – 실속 (타이항공 초특가)
* 국내선 항공 이용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7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강력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10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2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29만원
• 대만	5일	12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불미전 대상에 류종상의 '금동준제…'

10월 1일 시상식 및 개막식… 불교중앙박물관서 전시

제2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대상에 류종상의 '금동준제관음보살좌상' 이 선정됐다. 이번 불미전에는 8월 27~29일까지 총10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8월 31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작품 심사를 완료했다. 수상작품은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14점, 입선 20점으로 총 46점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 2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문화재청장상이 추가 수여된다.

조계종은 "이번 불미전의 응모작은 작품과 함께 작품설명서에 제작 과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심사보다 공정하고 구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또한 올해부터는 대상작의 상금은 유지하되 대상 수상 작품종단귀속 부분을 삭제하여 작가들의 폭 넓은 작품 활동과 공모전 출품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조각부문 류종상 작가의 '금동준제보살좌상' 으로 상장과 함께 상금 1,500만원, 최우수상은 회화부문 정일오(일오 스님) 작가의 '법화사 대웅전 석가모니후불탱' 과 정찬민 작가의 '대불정수능엄경 변상도(목판화)' 로 상금 5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대상작 류종상 작가의 '금동준제보살좌상'

시상식 및 전시개막은 10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10월 17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오색단풍과 더불어 음악 향연 즐기자

청량사 산사음악회…10월 5일

'2013 청량사 산사음악회' 가 10월 5일 오후 7시 청량산 청량사 경내에서 열린다. '오색단풍으로 노래하리' 라는 주제로 깊어가는 가을밤을 장식할 이번 공연은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소울가수 BMK, 국민 여가수 정수라, 노래하는 스님 심진 스님, 불자 성악인 허철영 등이 출연한다.

여기에 봄 · 여름내 땀흘리며 연습해 온 청량사의 어린이 꼬마풍경, 어린이 사물놀이팀, 둥근소리 합창단도 무대를 펼친다.

이번 음악회는 오색으로 물든 청량사 도량에서 각기 다른 색을 지닌 가수들이 나와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지현 스님은 "대중들은 색의 조화로움 속에서 자신의 색과 어울리는 색감에 저절로 끌리게 될 것이며 그런 색을 만나 마음은 진정 행복을 얻을 것"이라며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통해 대중들의 마음속에 보다 밝고 화사한 그림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지난 2001년 '천년의 속삭임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이란 주제로 시작되어 '원조 산사음악회' 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꾸준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산사음악회의 원조라 불리는 청량사 산사음악회가 10월 5일 열린다.

장사익 · BMK · 심진 스님 등 출연

꼬마풍경 · 사물놀이도 무대에

또한 청량사는 경북지역 어린이, 청소년, 농민 포교에 힘써 지역의 대표적 포교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포교의 중심축을 변화시키고 있는 주지 지현 스님은 "이번 '2013 산사음악회' 역시 단순한 포교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올가을 알록달록 오색으로 물든 고즈넉한 청량사에서 자연에게 묻고 답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02)723-9836

정혜숙 기자

"원효 스님 소크라테스보다 몇백배 위대한 사상가"

영화 '원효대사' 제작하는 재미교포 김선아 감독


김선아 감독은 내년 9월 개봉을 목표로 다큐영화 '원효 대사' 를 제작한다. 이 영화는 원효 스님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 존재론적 문제에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제가 생각하는 원효 스님은 소크라테스나 노자보다 몇 백배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원효 스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명상훈련을 하고 철학을 논하는 서양인들의 책장에 노자의 〈도덕경〉이 꽂혀있는 건 기본인데, 한국 사상가의 책은 알려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 원효 스님의 삶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재미교포 김선아 감독은 원효 스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불교를 넘어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 스님의 사상과 삶이 다큐영화로 다시 피어난다. 내년 9월 개봉을 목표로 '원효 대사' 는 원효 스님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 존재론적 문제에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케이팝과 한국드라마는 전세계인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문화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세계에 내세울만한 한국인 사상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만난 원효 스님은 제 인생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철학을 좋아해 서양 사상가들의 책을 읽어 오던 그녀는 어느날 서양철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서양 철학이 우리의 삶에

원효 사상 만나 삶 전환점 맞아

다큐 영화 제작 결심 한국행

2013년 9월 개봉 목표로 촬영

텀블벅으로 제작비 모금중


프로젝트의 일러스트레이션 박제동 화백의 '원효 스님'.

어떤 문제를 제시해주고 이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고 깊게 만들어 주지만 그것이 삶의 의문을 해결해주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몇해전 만난 원효 스님의 사상은 달랐어요. 존재론적 의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었죠."

당시, 노장사상에 빠져 있었던 김 감독은 언젠가는 세속을 등지고 산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동생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다. 생계를 위해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지인이 보내준 〈길에서 원효를 만나다〉라는 책 한권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스님의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애행 등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죠. 그리고 '진속불이(眞俗不二)' 라는 한 단어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진리와 세속이 다르지 않다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진리도 깨칠 수 있다는 뜻이죠. 무척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가 현실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업인 영화였다. 그렇게 김 감독은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기로 결심한다. "천재적 사상가이자 뛰어난 문장가이며, 계급과 시대를 뛰어넘어 민중을 계몽한 진정한 자유인이 바로 원효 스님이죠. 1350여년 전 원효 스님은 한반도를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을 넘어 인도에까지 이름을 떨쳤고, 그의 가르침은 현대를 사는 세계인들에게도 유용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영화는 원효 스님의 업적과 이를 노래로 만드는 아티스트의 작업 과정과 공연, 여기에 현재 무애행을 펼치고 있는 인물들의 삶을 조명한다. 또한 박제동 화백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물론 상업적 목적의 영화가 아니기에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의 후원을 받고자 한편 9월 15일까지 인터넷 후원사이트인 텀블벅(https://tumblbug.com/ko/ master_wonhyo)을 통해 영화제작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영화는 내년 5월 분황사에서 열리는 원효 스님 다례재를 끝으로 촬영을 마치고 내년 9월 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비롯해 깐느, 트라이베카, 부산 국제영화제 등 각종 국제 영화제에 출품 예정이며 국내외 개봉과 TV와 온라인방영도 추진한다. 김 감독은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제 3세계의 학교 및 커뮤니티 센터 등을 방문해 영화 상영 및 토크 콘서트를 통해 원효 스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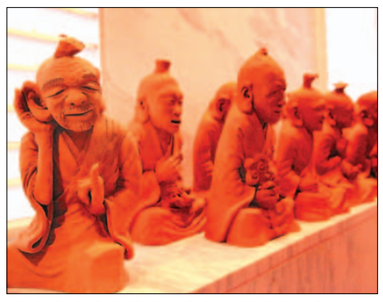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오백나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꿈'

'천영배 전' 9월 17일까지 보송갤러리서

동래야류 무형문화재 후계자 천영배 작가의 오백나한전이 부산여여선원 2층 보송갤러리에서 9월 17일까지 대중을 찾아간다. 천 작가는 부산 동래야류 무형문화재 중곡 천재동 선생의 아들로 토우 및 탈 제작 기술을 전수 받았다.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는 '천재동 · 천영배 토우 부자전', '천재동 · 천영배 창작탈 부자전', '천영배 테라코타전' 등을 개최해왔다. 다양한 토우 전시를 열었지만 그에게 있어 오백나한 테라코타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 작가와 오백나한의 인연은 기구하다. 불교에 문외한인 그는 우연히 오백나한 제작을 의뢰받았다. "손끝 행위 하나만으로 성자를 만들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불교에 문외한인 내가 어찌 성물을 만드냐?"며 거절도 했지만 우연히 한 사찰의 의뢰로 수도하는 마음으로 오백나한을 조성


천영배 작가의 테라코타인 오백나한 토우

하게 됐지만 사찰의 사정으로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오백나한 제작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고 4년여에 걸쳐 180여 기의 작품을 조성하게 되었다.

머리가 희끗한 천 작가의 이번 전시는 그의 구도적 혼이 알려지면서 전시를 열게됐다. 4년 여의 숱한 작업의 성공과 실패 속에 180여기가 조성됐지만, 자비로 진행하다 보니 현재 흙을 구입하고 가마를 돌릴 경비가 바닥이 났다. 재원 마련을 위해 아파트 경비 면접을 보고 왔다는 천 작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인다.

천 작가는 "오백나한이 한 자리에 모셔진 모습을 내 눈으로 본다면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쁠 것"이라며 환한 웃음으로 대신했다.(051)853-8001

정혜숙 기자

2014 삼보불교카렌다 특별가 보급 (기간: 9.5 ~ 10.31 까지)


관세음보살도(한지카렌다)


지혜동자


법음이 깃든 산사


민족의 산하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산사와 주련


연꽃향기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특별가로 보급합니다.

- 법음이 깃든 산사
- 지혜동자
- 구도자의 길
- 관음응신도
- 연꽃향기
- 천진동자
- 산사와 주련
- 산사에 피는 야생화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 산사의 미(발원)
- 민족의 산하
- 보현스님의 동승이야기
- 인생의 도
- 생활한방차
- 운봉스님의 달마도
- 불보살님의 미소
- 풍경소리
- 한국의 보탑
- 심우도
- 반야심경

※ 위의 벽걸이카렌다 외 미니수첩, 미니스프링, 미니차걸이, 탁상, 마닐라카렌다, 불교용품 및 책자도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문의. 031) 732-9905 Fax. 031) 732-8972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현실의 연꽃 조형적으로 영화시켜 진리표현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연꽃[蓮花] → 영기꽃[靈氣花]

드디어 연꽃의 정체를 밝힐 때가 왔다. 불교미술에서 역사적으로 표현된 연꽃을 연꽃이 아니고 영기꽃[靈氣花] 혹은 영화[靈花]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깜짝 놀랄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귀면(鬼面)을 귀면이 아니고 용면(龍面)이라 깨달은 이후 10년 만에 각 박물관에서 귀면을 용면이라고 바꿀 때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일 것이다.

조형미술의 역사에서 연꽃의 무한한 변형은 왜 이루어져왔을까? 그 무수하고 다양한 연꽃들의 조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티브만 연꽃 모양처럼 보일뿐, 연꽃이 영화(靈化)되었음을 즉, 다른 차원의 신령스러운 꽃으로 변형되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즉 왜 이토록 변형되어 왔는지 의문을 품지 않고 무조건 연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인식하여 왔기 때문에 오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연꽃이라고 하면 누구나 현실에서 보는 연꽃을 상기할 것이지만 그 연꽃에서는 만물이 탄생할 수 없다. 그 연꽃을 조형적으로 영화시켜서 차원이 전혀 다른 '영기꽃[靈氣花]' 으로 변형시켜야 비로소 만물이 화생할 수 있다. 영기화는 영화(靈花)라고 약하여 쓸 수 있으나 반드시 한자(漢字)로 써야 한다.

그 밖에 예를 들면, 연꽃 이외에 모란 또는 국화, 보상화 등도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이 용어들을 바로 잡으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증거자료를 들면서 설명해야 하므로 후일을 기한다.

나는 영화된 다양한 꽃들을 '무량한 보주를 발산하는 영기꽃' 이라고 포괄적으로 부르고 있다. 이를 줄여서 '영기꽃' 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무슨 꽃이든 모두가 씨방 안에 생명의 근원인 수많은 씨앗을 지니고 있기에 꽃이 중요한 것이다. 아름다운 꽃잎 모양은 다만 씨방을 감싸며 보호해왔던 겉껍질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 겉껍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던져왔다. 본질은 씨앗에 있다.

바로 그 씨앗을 고차원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씨앗을 더 강력한 생명의 근원인 '보주' 로 변형시키며 영화된 상태로 만들어서 만물을 탄생케 해왔다. 말하자면, 형이하학적 상태를 탈바꿈하여 형이상학적인 조형으로 변형시킨 것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형된 형이상학적 상태를 보여주는 조형을 보고 현실의 형이하학적 용어로 불러왔으므로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형이상학적 변형에 따른 새로운 용어가 필요해서 명명한 것이 바로 '영기꽃' 혹은 '영화' 다.

일찍이 석가여래께서 아무 말도 없이 연꽃을 들어 올리자 마하가섭(摩訶迦葉)만이 역시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는 염화미소(拈華微笑)이야기는 후대에 지어낸 것이다.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염화미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꽃이 아니다. 그 때 만일 석가여래가 막대기를 들었어도 가섭은 같은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광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마음' 의 문제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후세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연꽃에 불교의 진리가 숨어있다고 들어오면서 연꽃 즉 불교, '연꽃=불교' 라는 등식이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연꽃과 관련된 상징적 행위에 의문을 품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날이 갈수록 그 상징이 강화되어 갈 뿐이다. 진흙탕에서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게 꽃피는 유일한 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진흙탕에서는 파피루스도 피고 수련도 피고 그 밖에 그런 꽃은 무수히 많이 있으며, 더구나 대부분의 꽃은 온갖 균이나 벌레들이나 득실거리는 딱딱한 땅에서 기적적으로 순수한 생명이 탄생하고 있지 않은가.

〈아미타경〉에서 말하기를, 중생 가운데 선업을 쌓으면 극락세계 연지(蓮池)의 연꽃에서 '연화화생(蓮花化生)' 한다는 말이 유일하게 있으므로 더구나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되었다. 더구나 연화화생이라는 경전의 기록 때문에 우리는 여래와 보살을 탄생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읽을 수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다. 불교미술에서는 여래가 연꽃에서만 화생하지 않고 수많은 화생의 도상이 있음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더구나 경전을 읽어보면 여래나 보살이 연꽃에서 화생했다는 기록은 일체 없는데도 우리는 여래나 보살의 연화화생이라는 말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사용해왔다.

불화 같은 조형미술을 살펴보면 현실에서 보는 연꽃 모양에서만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가 다른 수많은 꽃에서도 탄생하는데 대부분 꽃 밑에 '물' 이나 '영기문' 이 반드시 있으며, 우리가 염화미소를 나타내는 도상에서 석가여래가 지물(持物)로 들고 있는 것도 자세히 보면 연꽃이 아니며 제2영기싹 갈래 사이에서 생기는 영기꽃이며 모란모양 영기꽃도 있다. 그런 까닭에 연화화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기화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꽃이 왜 아닌지는 우선 고구려 천정 벽화의 대연화(大蓮花)의 조형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조형은 원래 채색이 있으나 필자가 파악하기 쉽게 채색분석한 것이다. 고구려 삼실총 천정벽화 연꽃을 살펴보자.(그림 ①)

중앙에 씨방이 있고 주변으로 연잎 같은 것이 있는데 잎 모양마다에 제1영기싹들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잎 갈래 사이에서 보주 같은 모양이 생겨나고 그 곳에서 각각 제1영기싹들이 사방으로 발산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노란색의 큰 잎이 생기는데 각 잎마다 빗금들이 쳐있고 그 끝이 매우 뾰족하고 길게 뻗어나가고 있다. 다시 그 잎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역시 끝이 뾰족하고 길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형은 갈래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무엇인가 생겨나는 '제3영기싹의 연속적인 전개'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날카롭게 역동적으로 확산(擴散)하는 느낌을 준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꽃잎 같은 형태가 아니고 단지 꽃 같은 형태를 빌려서 표현한 영기문의 여러 가지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무한한 확산의 상징' 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형태에 붙잡혀서 중요한 영기의 속성을 읽지 못했던 것이다.

이 대연화는 만물생성의 근원으로써 천정에 표현된 것이며 그러기 위해 꽃 같은 형태에 제1영기싹이나 빗금들을 부여하여 강력히 영화시키고 있다. 그래야만 만물이 영기화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벽화 천정의 꽃이 연꽃으로 보입니까? 세상에 이런 연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거니와 '여래를 형상으로 보지 말라' 라는 금강경의 말과 같이, '이 연꽃도 형상으로 보지 말라' 라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여래가 무한한 생명의 확산이듯이 대연화도 무한한 생명의 확산이다. 그런데 이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의 씨방이다. 씨방 안의 만물 생성의 근원인 무량한 씨앗들이 점차 조형적으로 보주의 형태와 상징을 띠게 되므로 이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씨방이기 때문에 그 만물의 근원으로부터 중첩하며 사방으로 뻗쳐 나가는 것은 잎이 아니라 강력한 영기문의 확산이다.

연화총(蓮花塚) 천정벽화의 영기꽃도 마찬가지다.(그림 ②) 장천1호분 벽화의 연꽃에서는 중심의 씨방을 아예 커다란 보주하나로 나타내어 그 보주에서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영기문을 표현하여 보주의 무한한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③)

천정 벽화의 대연화(大蓮花) 혹은 천연화(天蓮花)는 10년 동안 주저하며 흡족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모두 현실에서 보아온 연꽃이라는 형상에 집착하여왔었는데, 마침내 그 형상과 오류에서 벗어나니 꽃이 바로 '우주에 충만한 영기' 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오늘 큰 깨침이 있었다. 여래와 영기꽃은 둘이 아니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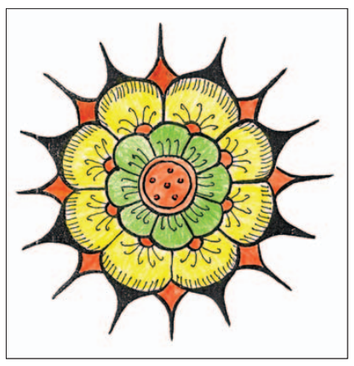


그림 ① 삼실총 천정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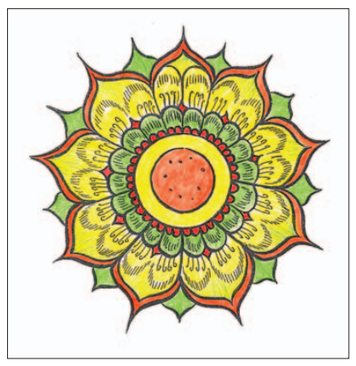


그림 ② 연화총 천정 벽화



그림 ③ 장천1호분 천정 벽화

藥이 되는 사찰음식

녹두전에 메밀국수 한그릇 '후루룩'



고사리 녹두전

△재료(4인 기준)

○ 불린 녹두 3컵, 물 1컵, 소금 1작은술

○ 고사리 100g, 숙주 100g, 느티만가닥버섯 50g, 신김치 100g, 청량고추 2개, 홍고추 1개

○ 간장소스 : 간장 1큰술, 다시마국물 1큰술, 매실청 1큰술

△만드는 법

① 녹두는 거피한 것으로 깨끗이 씻은 후 3시간 정도 불린 후 제물에 껍질을 벗겨 물과 소금을 넣고 믹서에 곱게 간다.

② 고사리, 숙주는 2cm 정도의 길이로 자르고 느타리버섯은 끓는 물에 데친 후 잘게 찢어 소금, 참기름 밑간한다.

③ 신김치는 속을 털어 내고 잘게 썰어 참기름, 깨소금으로 밑간하고 청량고추와 홍고추는 잘게 다진다.

④ 넓은 볼에 재료를 골고루 섞은 후 기름에 지져낸다.

⑤ 그릇에 담고 간장소스를 곁들여 낸다.

담백한 메밀국수

△재료(4인 기준)

○ 메밀국수 300g

○ 참나물, 오이, 김, 무즙

○ 맛국물 – 물 6컵, 다시마 15g, 무 50g, 건표고 3장, 생강 3쪽, 감초 1쪽, 양배추 50g, 말린 사과 20g

○ 맛간장 1/2컵, 매실청 2큰술

△만드는 법



① 냄비에 맛국물 재료를 넣고 1시간가량 불린다. 센 불에서 끓여 중불로 낮춰 20분 정도 끓인 후 건더기를 건져내 차게 식힌다.

② 참나물은 잎만 손으로 찢어 준비하고 오이와 김은 채 썬다.

③ 메밀국수는 끓여 얼음물에 헹궈 차게 준비한다.

④ 차게 식힌 맛국물에 맛간장과 매실청을 넣어 간을 맞춘다.

⑤ 그릇에 메밀국수와 오이, 참나물, 김, 무즙을 올린 후 국물을 부어 낸다.

변비 예방에 좋은 고사리

녹두는 예부터 백가지 독을 풀어주는 명약으로 원기를 보하고 오장을 조화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고 풍을 쫓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효능이 있다. 녹두전을 부칠 때는 충분히 불려 제물에 거피를 한 다음 믹서에 곱게 갈아 부드럽게 반죽을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반죽이 되직하게 되면 부치는 과정에서 녹두의 호화에 필요한 수분이 적어 딱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녹두나 콩 등 생으로 전을 부칠 때는 반죽이 일반 부침 반죽보다는 약간 무른 정도가 되어야 하며 넉넉한 기름에 부쳐야 맛이 난다.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쇠고기' 로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습열을 없애고 장을 윤택하게 하나 차가운 성질이 있어 성욕을 억제시키며, 정신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선비나 수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메밀의 전분은 소화가 잘 되는 것이 특징이며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미노산이 균형있게 들어 있는 영양가 높은 곡물이다. 비타민 P의 일종인 루틴을 함유하고 있어 모세혈관이나 뇌졸중 등을 예방한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 외에 탄수화물 대사에도 관여하는 비타민 B1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메밀은 샐러드로 이용하게 되면 산뜻하고 맛이 있으며, 메밀 삶은 국물을 마시게 되면 메밀에서 빠져나온 비타민 P를 섭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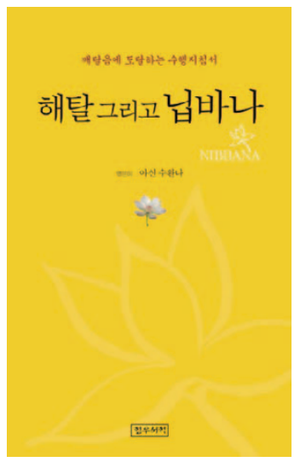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닙바나 화제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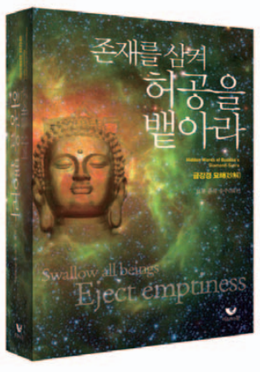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이뭐꼬? What is it? 일러라! Tell me at once!
하나 둘 셋, 이와 같아 넷이니라!
There four 1, 2, 3…



Swallow all beings Eject emptiness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금강경 묘해妙解
묘봉운륵 송주(頌注)
신국판 | 흑백 | 768쪽 | 28,000원

조사선으로 푼 漢 · 英 · 韓 금강경 수행지침서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 혜암(惠菴) 선사의 법을 이은 묘봉 스님(대전 죽림정사 주석)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을 담아 독자적인 견해를 게송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 금강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풀이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 · 英 · 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인 송주(頌注)를 "화장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 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고려의 화가는 수월관음도 속에 무엇을 그려놓았을까?



수월관음의 탄생
강우방 지음
글항아리 펴냄
3만5천원

책은 불화의 하나인 수월관음도 중 가장 완벽한 미학이라고 손꼽히는 일본 다이토쿠(大德寺)사 소장의 고려 수월관음도를 분석했다.

"수월관음도는 조형언어로 지혜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 예술가들은 조형언어로 지혜의 완성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불화는 조형 자체가 진리를 표현해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불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전의 내용을 표현한다거나 교화시키려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 조형언어를 해독하면 문자언어로 쓰인 경전에 기록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언가를 마음 깊이 전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 쓰이지 못한 암호나 기호 같은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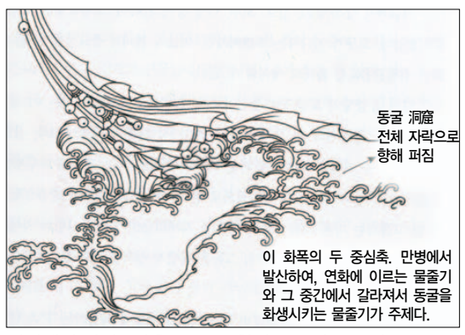
책은 요시무라 레이 교수의 연화화생론(蓮花化生論)과 이노우에 다다시 교수의 운기화생론(雲氣化生論)을 포함하고 있는 저자의 영기화생론으로 수월관음도 속에 글려진 영기문의 조형적 해석을 시도했다. 저자의 영기화생론은 생명의 시초인 제1영기싹이 생겨나서 그것이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다시 제2영기싹을 만들어내고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생명의 형태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다.

"고려불화의 조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면상의 복식과 복식에 표현된 공예품에 베풀어진 것들만이 무늬가 아니고, 그 밖의 전체 화면에 펼쳐진 자연과 인체 등 모든 조형이 무늬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무늬가 영기문(靈氣文)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체에 부여한 영기에서 관음보살이 화생하는 것이어서 '관음보살의 영기화생' 이라는 신비한 탄생의 광경을 보여준다. 일체에 영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영기화, 줄여서 영화라고도 한다. 이 책에서는 기(氣) 대신 영기(靈氣)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 를 굳이 '영기' 라고 부르는 까닭은 기를 조형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용, 봉황, 거북, 기린 등을 사령(四靈)이라고 부르는 데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기란 우주에 충만하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으로, 억지로 설명하자면 서양의 '에너지' 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는 자연과학적인 면과 함께 철학적 · 사상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 우주생성론의 중심 개념을 이루므로 단지 물리적 현상인 것만은 아니다."

불화속 조형언어 해독하면
경전에서 볼 수 없는 것 볼 수 있어
수월관음도에 내재된 놀라운 의문들
새로운 조형해석학 '영기화생론' 으로 풀어



중심에 있는 세 영수의 영물로부터 선재동자에게까지 물결(영기)이 미친다. 물결 모양 영기문이 갈라지며 연잎이 나오고 거기에서 선재동자가 화생한다.



만병에서 연화-관음, 동굴로 향하는 주된 물줄기.

저자는 불화뿐 아니라 일체의 불교 미술이 조형언어로 그려진 또 다른 차원의 경전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화는 교의를 담게 마련이다. 경전이 암송을 통해 그 진의에 닿는 수행의 도구이듯이 불화 또한 감상을 통해 깨달음으로 중생을 인도하는 경전적 속성을 지닌다. 말과 글을 통해 종교적 깨달음을 표현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로 바꿀 수 없는 깨달음, 언어적 표현 너머에 있는 어떤 진리를 그림을 그려 표현했다. 이번 책에 "하나의 작품은 하나의 경전이다"라는 부제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다이토쿠사 소장 수월관음도

책에서 저자는 수월관음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옛 화가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화면의 달빛과 거친 파도, 날리는 백의자락, 관음보살의 발 아래에서 여러 기물을 들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무얼 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다이토쿠 사 소장 고려 수월관음도에 내재된 놀라운 의미들을 발견해 내고 있다.

수월관음도의 도상적인 기원 문제, 수월관음도에 대한 경전을 포함한 여러 문헌의 기록들에 대한 검토 등 역사적 접근에 입각한 연구는 책에서 논하지 않고 있다. 놀랍도록 고차원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순전한 조형 자체의 구조' 를 밝힘으로써, 그림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 에서 '초역사적 보편성' 을 추구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따랐다. 과거의 일반적인 양식 파악과 도상해석학의 방법이 아님은 물론이고 저자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방법론과도 다르다.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조형해석학' 이다. 작품을 전체의 유기적 관계에서 파악함은 물론 미시적 관찰을 통해 그 세계에 숨겨진 조형의 구조와 그 구조 자체에 내재하는 상징을 밝히려 한 것이다. 조형의 이러한 성립과정을 단계적으로 밝히는 작업에서 중요한 것이 '채색분석법' 인데, 책에서는 그 여러 단계를 도판을 통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중도와 연기 깨달으면 매일 평화·행복

고우스님 강설 육조단경

고우 스님 지음 | 박희승 엮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2만8천원



고우 스님〈사진〉의 〈육조단경〉 강의가 책으로 나왔다. 〈육조단경〉은 선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텍스트로 육조 혜능 대사(638~713)의 법문집이다.

혜능 대사의 가르침은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육조단경〉은 이러한 육조 혜능 대사의 법문을 후대에 책으로 엮은 것인데, 부처님 제자의 어록 가운데 유일하게 '경(經)' 자가 붙는다. 선종의 종지(宗旨)가 담겨 있어 선 수행의 지침서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혜능 대사는 부처님 이래 33대 조사이며, 인도에서 온 달마대사에서 시작된 중국 선불교의 육조이다. 선종사상의 정립자라 할 수 있는데, 〈육조단경〉에 그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혜능 대사의 열반 1300주기(718. 음 8.3)를 맞아



〈육조단경〉 '힐링', '웰빙' 보다 근원적
누구나 '선'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출간된 책은 고우 스님이 2004~2005년 스님과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강의를 묶은 것으로, 고우 스님이 선의 생활화를 기치로 혜능 대사의 중도와 돈오 사상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하고자 출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철 스님이 돈황본을 구해 처음 번역하고 소개했는데, 제자들에게 책을 권하지 않았던 성철 스님도 〈육조단경〉만은 권했을 만큼 선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원전이다.

"혜능 대사가 설한 이 중도와 연기를 깨닫게 되면 매일매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물론 세상 어디에나 갈등하고 싸우는 일은 있다. 사회와 가정은 물론이고 더 축소해보면 개인도 자기 내면에서 갈등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육조단경〉에 있다. 이것을 〈육조단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육조단경〉은 인류의 행복지침서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무한히 행복하게 해준다. 여기에 육조단경의 가치가 있다."

혜능 대사가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한 말씀을 모아 놓은 것이 단경이다. 〈육조단경〉은 종교, 인종, 이데올로기, 민족,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중도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 놓은 것이다.

저자 고우 스님은 〈육조단경〉을 종교를 초월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고우 스님은 이 단경이 인류의 행복지침서라고 평가한다.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한 부처님이나 나무꾼으로 출가한 혜능 대사나 모두 깨달아 영원한 행복을 이뤘는데, 그분들의 깨달음이 바로 중도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우 스님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육조단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근래 힐링이나 웰빙 붐보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존재 원리를 중도로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혜능 대사의 육조단경을 쉽게 설명하려 한다. 선은 본래 '평상심이 도(道)' 라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를 어렵게만 여기기에 최대한 쉽게 풀어 선과 불교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저자 고우 스님은 선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선과 불교를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책을 통해 '중도 정견' 과 '일상생활에서 행복 찾기' 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우 스님 강설 육조단경〉은 성철 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원문 번역에 따라 33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강의하고 있다. 〈육조단경〉에는 여러 본이 전하는데 그 가운데 이 돈황본은 천여 년 동안 돈황굴에 비장되어 있다 발견된 최고본인 까닭에 유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첨삭이 없어 가장 정통한 육조단경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우 스님 강설 육조단경〉은 각 장마다 번역문과 한자 원문을 앞에 배치하고 그 뒤에 원문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8 ~ 9/3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육조단경 (고우 스님 강설)	고우	조계종출판사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택	조계종출판사
7	우리 모두는 부처다	종사은 잠앙 켄체	팡세
8	이것이 간화선이다	무비	민족사
9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10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남궁선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진정한 자유는 연기적 관계에서 찾아야”



직지, 길을 가리키다

이시우 지음
민족사 펴냄
2만 9500원

1972년 프랑스 파리서 열린 ‘책의 역사’ 전에서 ‘직지심경’이 발견됐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것을 전시회에 출품한 것이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금속활자본의 존재가 처음 공식으로 확인됐다. 독일 구텐베르크의 활자보다 70년 이상 앞선 것이다.

고려 공민왕 때인 1372년 백운화상이 저술한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 抄錄 佛祖 直指心體要節)’을 줄여 칭하는 ‘직지심경’은 중국 송나라의 전등록에서 역대 불조들의 법화를 뽑아 엮은 것이다.

1972년 공개된 직지심경 하권은 백운화상이 입적한 지 3년이 지난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상·하 두 권이 한 질인데 상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직지심경은 1900년 전후에 서울 주재 초대 프랑스 공사로 근무한 플랑시가 수집한 것으로 그가 죽자 경매에서 베베르라는 수집가에게 팔렸다가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됐다. 활자의 주조술과 조판술이 아주 미숙했던 고려시대에 관서(官署)가 아닌 지방의 한 사찰이 전통 밀랍주조법으로 주조해 찍은 것이기 때문에 활자 크기와 글자모양이 고르지 않고, 부족한 글자를 나무활자로 보충해 찍었기 때문에 인쇄상태가 조잡한 편이다. 하지만, 문헌에만 전해지던 여러 종의 고려 주자본 중 유일하게 전래되는 금속활자본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직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간 〈직지〉는 번역서 몇 권과 선을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전문 강설 교재만이 나와 있어 일반인들이 다가가기엔 큰 벽처럼 느껴졌다. 또한 선불교의 교과서라고 일컬어진 만큼, 선불교적 입장서 해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선문답하다’라는 말의 뉘앙스서도 느껴진 것처럼 ‘선’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 무엇처럼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하지만 이시우 박사(오른쪽 사진)의 〈직지, 길을 가리키다〉는 〈직지〉를 연기론적으로 풀어낸 점이 흥미롭다.



각 선어 번역과 저자 단상 적어
〈직지심경〉 연기론적 관점서 해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을 논리적으로 접근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 현대 사회에 적용할지, 연기론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어렵지 않게 〈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여러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 가르침이 우리가 나아가는 삶에서 길어올려진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직지〉원문 번역문과 각 선어에 대한 이시우 박사의 단상(斷想)들은 책 속에 갇힌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히 살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현대 사회에서 직지를 통해 볼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선불교에서는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지만, 다른 존재와의 연기적 관계가 무시되는 자유는 오히려 권위의식을 지닌 아상의 표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연기적 관계서 찾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주의 만유와 더불어 연기법에 따라서 인간 본연의 삶의 가치와 존재가치를 구현토록 하는 것이 선불교의 목적이 돼야 함을 강조한다.

이시우 박사는 특히 과거칠불의 게송 역시 연기에 따른 중도 사상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사람이 부처라는 인불사상으로 인간의 마음만을 중시하고 외물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른 주관과 외물에 대한 객관이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주객불이의 만불사상(萬佛思想)을 보이고 있다. 선사들이 자연의 외물에 불법의 진리가 들어 있음을 깨달음의 노래인 게송서 강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선사들은 근본적으로 만유의 연기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불교도 이제는 연기법을 바탕으로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논리적인 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분석 및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우주 만물이 부처이므로 이들과 더불어 공존 공생하는 만불사상(萬佛思想)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종교가 인간 세계에 국한된 채 정신적 내면의 세계만을 다룬다면 자연과의 연기관계가 소홀해지고 자연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파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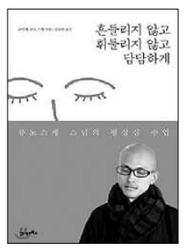
저자는 만일 이런 것을 인식 못하면 삶의 터전인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궁극에는 자연의 선택으로 인류가 지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인류를 위협하는 갖가지 환경 문제 역시 연기법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때 근본 해결책이 생기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코이케 스님의 ‘평상심 레슨’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 유윤한 역
21세기북스 펴냄 | 1만2천원



이 책은 2011년 아사히 문화센터에서 다섯 번에 걸쳐 강의한 ‘불교식 평상심 수업’을 정리한 것이다. 원제는〈평상심 레슨〉으로, 주된 요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주된 고통을 5가지의 큰 주제로 정리하고, 이를 일상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는 핵심 요소인 ‘명상’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자 한다. 저자가 서두에서 밝힌 바는 이 강연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불교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론이다. 석가는 인생이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네 가지 고통으로 가득 찬 일체개고(一切皆苦)의 길’이라 했다. 삶에서 영원한 것은 없고,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말씀이다. 불교 수행 목적은 이런 고통의 발생 구조를 꿰뚫어보고, 고통을 줄이는 거다.”

저자는 이를 위해 먼저 자기 자신과의 갈등을 다루는 법(제1장-자존심과 사귀는 법), 주변인과의 갈등을 다스리는 법(제2장-일, 친구, 가족과 잘 지내는 법), 그리고 희로애락과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는 법(제3장-불교식 감정 통제법), 삶의 최고의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다룬 제4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이 모든 갈등과 고뇌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혜안을 제시하고 있다(제5장-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아울러 각 장 말미에 각 장 내용을 요약한 도표를 통해 이해를 배가하고자 했다.

이 책의 장점은 류노스케 스님의 장점인, 다양한 현실적인 실례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예시를 통해 불교적 원리와 이론을 정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각 장의 다채로운 세부 제목을 통해 저자의 구체적인 서술 방식이 안겨주는 평온함을 접할 수 있을 것같다. 김주일 기자

집중명상과 선정…몰입된 명상 상태

사마타명상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 지음 | 이재석 옮김
아름드리미디어 펴냄 | 1만 3천원



이 책에서 스님은, 다시 한 번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사마타 수행에 대한 탁월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선정 수행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위빠사나와 사마타라는 불교 명상의 두 축을 하나로 아우르는 완벽한 청사진을 펼쳐 보인다. 빨리어로 ‘자나Jhana’라고 부르는 집중명상 또는 선정은,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어 깊은 고요와 집중을 이룬 명상 상태다. 이 선정 수행으로 우리는 불교 명상의 궁극 목표인 ‘완전한 자유(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 책에서 스님은 해탈에 이르는 선정 수행의 실제 단계들을 생생히 묘사함으로써 우리를 기쁨과 평정,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마음 상태로 이끈다. 아울러 수행자들이 각 단계에서 잘못되거나 편협한 길로 빠지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분명한 가르침을 베푼다.

이 책은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1~2장은 선정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집중과 선정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어떤 것이 올바른 집중이고 잘못된 집중인지, 집중과 알아차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정에는 어떤 이로움과 함정이 있는지 등을 설명한다.

둘째, 3~7장은 선정 수행의 준비 단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마타 명상에 들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 사마타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수련인 자애명상과 호흡명상,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인 장애와 족쇄, 사마타 수행의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한다.

셋째, 8~14장은 선정 수행의 실제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선정이 아닌 상태에서 선정 상태로 옮겨가는 전환점인 근접삼매에서부터, 실제 선정 상태인 세간 선정(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과 출세간 선정에 이르기까지, 각 선정 단계들의 상태와 특성, 요소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파스텔화 같은 스님의 산사스케치

산사로 가는 즐거움

글 현종 스님 | 공감 펴냄 | 1만4천원



이 책은 고요한 산사서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혼탁한 속세의 삶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작은 행복을 일깨워주는 현종 스님의 파스텔화 같은 산사스케치이다. 스님은 아낌없이 주는 자연 속에서 배우는 ‘비움’의 미학을 이야기한다. 또 수없이 죽어 간 생명들의 영혼을 동식물 천도재로 달래주며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의 소소하고 나직한 음성으로 들려준다. 자기계발 성격의 ‘~하라’는 식상한 법문 형식을 벗어나 인간과 자연, 생명존중을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을 찾아나서는 작은 울림의 서정적 생활법문으로 행복한 마음을 일깨워준다.

‘비움’이 화두인 시대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감정 속에서 바쁜 일상을 살지만, 우리는 늘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스님은 말한다. 자연 속을 거닐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것을 말한다. ‘카리스마 현종 스님’의 캐릭터를 ‘아빠와 같이 가는 현덕사 템플스테이’로 확산해 ‘소통하는 아빠,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자녀교육 사회운동을 목표로 한다.

‘힐링’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 키워드이다. ‘아빠, 어디 가’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생활에 지쳐 가정에 소홀하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진 우리 시대 아빠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을 꾀한다. 이들의 현덕사 템플스테이가 방영되면서, 예능감 넘치는 현종 스님은 일약 ‘스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현덕사 템플스테이에 관심 갖게 되었다. 거친 말투와 짜증, 과격한 성정의 이기적인 아이들에 지쳐 부모들이 산사를 찾아와 ‘마음 기행’을 바라는 현종 스님의 간절한 바람이 전달된 것이다.

김주일 기자

“세상 보는 관점 바뀌면 성공 가능”

성담스님의 확인하는 성공습관

성담 지음 | 셀프컬처리서치 펴냄 | 1만 3800원



“열망은 마치 사막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석유와도 같습니다. 석유는 아무리 많더라도 꺼내어 불을 붙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서대산에 효심사를 창건한 저자 성담 스님이 수행 생활의 깨달음을 책으로 정리한 설법집을 펴냈다.

스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치관과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행동에 따른 결과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의 생각은 ‘전체’로 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결국 ‘나’의 생각과 우주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다르니 사람의 생각과 나타난 결과는 일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선천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사고 구조를 갖고 태어난 셈이다. 더욱 재밌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을 갈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서 하는 판단과 행동이 전혀 엉뚱한 것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다. 첫째, 자연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을 해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면 된다. 법칙이 몸이 되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둘째, 당신이 자연 법칙을 깨달으면 된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나’와 ‘나 아닌 것’을 나누지만 실제로 그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어떤 결과를 얻을 때 자신이 기여하는 것은 불과 5%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우주이고 자연이다. 이렇게 깨달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하는 것이 곧 이루는 것’이 된다. 이 때 하는 것은 이전에 불안과 의문 혹은 낙관적 기대 속에서 하는 과는 전혀 다르다. 결국, ‘하는 것’이 ‘되는 것’, 그 자체이므로 ‘하는 것’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스님은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75-35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기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의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 개인지도,출장강의 – 직접 상담 후 결정
◆ 장소 : 본 연구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교육 : 우불 김철회 박사 < 직접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2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생활속의 〈금강경〉

금강경과 정치철학 ㊤…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정치가는 중생 제도하는 대승보살 돼야"

나만 힘들다면 그건 분명 당신만의 문제다. 하지만 너와 내가 힘들다면 그건 분명 정치적 문제일 개연성이 크다. 전월세 대란, 국정원의 선거개입, 종북논란 등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잡한 한국사회에서, 고통을 치유해야 할 사람은 정치인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일관성 없는 정책, 대책없는 포퓰리즘 등을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건 금석같은 말과 천금같은 원칙일 터. 반야부의 중심대승경이며 변치않는 단단한 지혜가 담긴 금강경이 말 많고 탈 많은 정치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공동체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정치와 불교와의 접점은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이끈다"는 금강경 속 부처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온고지신적 자세로 금강경이 현대 사회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통찰해보자는 의미에서, 본지는 이번 주 부터 '금강경과 정치철학' 을 지상중계한다. 매주 본각선교원에서 진행하는 '금강경 생활특강' 의 일부로 앞으로 금강경을 통해 문화, 법, 기업경영이라는 현대적 주제를 읽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주는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 금강경 속 풍부한 정치 텍스트와 만나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금강경과 정치

나가르주나(Nagarjuna, 龍樹)보살에 따르면 부처님은 세간세속제(世間世俗諦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관습적 진리)와 승의제(勝義諦, 궁극적 진리)라는 두 가지 진리(이제二諦)로 법을 설하신다. 그는 이러한 두 가지 진리를 모르고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분명히 부처님은 정치철학과 같은 세속제에 관해서도 설하신바 있다. 정치철학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 자유 · 평등 · 정의의 본질, 정치와 윤리의 관계, 전쟁의 원인과 평화구축 방법 등 인간이 집단생활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다루는 학문이다.

8만대장경 속에는 국가의 기원과 나라를 지키는 방법, 통치자의 덕에 관한 이론 등 정치철학적 의미를 가진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승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 정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시 상황에 맞는 세속제를 설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가 아니라 현대 정치철학을 말하려면, 세속제보다는 궁극적 진리를 말하는 금강경에 견주어 논하는 게 합당하다. 승의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나 세속제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세속을 벗어나 궁극적 진리의 세계, 즉 승의제에 도달할 것을 가르치는 경전이다. 따라서 "금강경과 정치철학" 강의를 통해 금강경의 내용이 정치철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부처님이 금강경을 통해 설하신 승의제를 기본으로 삼아, 현대 정치철학에 접근해 보는 것이다. 이는 금강경의 교설을 원용하여 정치철학이라는 세속제를 추출해 보는 시도임과 동시에, 정치철학이라는 세속제를 통해 금강경의 승의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풍부하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금강경을 공부하려면, 먼저 이 경이 세속제가 아니라 언어와 분별로 표현할 수 없는 승의제로 인도하는 경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승의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염불, 면벽수행과 화두참구, 주력, 간경 등 여러 방법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 중 경을 독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누구든 기원정사에서 1,250인의 제자들과 함께 금강경법회에 참여하고 있는 마음으로 경을 읽으면 읽는 사람과 부처님의 정신이 그대로 통하게 된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자꾸 읽다보면 나의 정신이 부처님의 가장 밝은 정신과 공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경을 읽는 파동 또는 진동이 우주의 근본에서 나오는 진동과 공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처님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수많은 재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복이 크다고 금강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

금강경과 국가

부처님은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셔서 부처님이 되셨다. 기원정사를 짓는데 숲을 기증한 사람은 기타 태자고,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누고 각 분마다 제목을 붙인 사람은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다. 그는 아예 태자수업을 금강경으로 받았다고 한다.

소명태자가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 이라고 이름 붙인 금강경의 도입부, 제1품은 부처님이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위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시고 본처로 돌아와 발을 씻고 좌정하여 정(定)에 드시는 일상생활을 소박하게 그려 놓았다.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와 하나가 된 성자(聖者)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부처님이 계시던 사위국을 살펴보자.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갠지스강 유역을 따라 서북쪽에 사위성을 수도로 하는 코살라(Kosala)와 동남쪽에 왕사성을 수도로 하는 마가다(Magada) 두 강대국이 있었고 주변에 16개국의 중소국(中小國)이 있었다. 많은 나라들이 군주국이었고 밧지, 말리, 사캬 등은 공화국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이 설하시던 당시의 정치적 환경을 살펴볼

궁극적 진리 담긴 〈금강경〉
세속제 · 승의제도 담겨
국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직관력 · 통찰력 길러줘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를 존중하는 풍토가 있었다. 부처님은 정치 간섭을 받지 않고 대규모의 승단을 거느리며 자유롭게 설법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국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나뉜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샤카는 공화국이고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시던 코살라나 법화경을 설하시던 영취산이 있는 마가다는 모두 왕국이다. 당시의 왕국은 오늘날의 권위주의국가와 유사하고 공화국은 오늘날의 민주공화국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주의 국가와 유사한 형태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전체주의는 핵무기와 함께 20세기의 발명품이며 서양정치 철학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군주정치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만 압제를 하지만 전체주의는 인간의 전 생활을 통제하고 생각할 자유마저 주지 않는다. 유태인 학살의 주범 중 하나인 아이히만은 남미에서 숨어살다가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평범한 사나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재판을 관찰한 20세기의 위대한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아이히만이 그렇게 된 것은 '생각하는 능력' 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전체주의의 통제는 사람들의 생각할 능력까지 말살했던 것이다.

공자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가혹한 정치(苛政猛於虎 가정맹어호)라고 했고, 20세기에 태어난 전체주의 정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인류에게 주었다. 하와이 대학의 럼멜(R. J. Rummel) 교수에 의하면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전쟁으로 3천 5백만 명이 희생되었는데, 이데올로기를 이유로 자기나라 정부에 의해 살해된 인명은 그 4배인 1억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독일 나치당에 의해 유태인들이 6백만 명이나 학살된 것을 비롯해 구소련의 공산주의 운동으로 6천 1백만 명, 중국공산당에 의해 3천 5백만 명, 북한 공산정권 하에서는 270만 명이 희생되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마오쩌둥 시기에 중국에서 희생된 인명은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금강경과 국가 지도자

기록을 분석해 보면 부처님은 여러 정치체제 중 공화국을 선호하신 것으로 해석되며, 왕조체제 아래서도 정치에 예속되거나 이와 맞서지 않고 바른 길로 정치를 이끄셨다. 그러나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땅은 중생이 윤회하는 6도(六道) 중 지옥, 아귀, 축생 등 3악도에 해당하여 부처님이 태어날 곳은 아니다. 지옥, 아귀, 축생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 사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장보살 같이 지옥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을 세운 대력보살이라야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런 곳에 간다.

금강경이 호국경전으로도 애송되어 왔던 것은, 우주의 진리와 하나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읽는 이에게 직관적 힘과 통찰력을 길러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하나하나를 보는 부분적인 지식보다는 전체적 국면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지도자에게는 이런 통찰력과 판단력이 더 요구되기에, 금강경이 호국경전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보살과 정치가

금강경은 제2품 '선현기청분' 에서 수보리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제3품 '대중정종분' 에서 부처님의 답변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보리 존자는 "최고의 깨달음을 향하여 발심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 부처님은 "대보살이 이렇게 마음을 항복받을지니 9가지 종류의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으로 인도하여 제도하리라는 원을 세우라"고 하신다. 한량없는 많은 중생을 제도하되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상을 남기지 말라고 하신다. 여기서 중생은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등 결과로 나타난 중생은 물론이요, 그 결과의 원인을 만든 마음속의 중생을 포함한다. 예

자기 구제 안 되면서
나라 구한다고 나서면 안돼
중생이 중생 제도 어려워
정치가는 방하착해야

를 들어 난생은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연습해서 그 결과로서 받은 몸이고, 태생은 의지하는 마음을 연습해서 얻은 몸이며, 습생은 감추는 마음을 연습해서 받은 몸이다. 또 화생은 잘난 척 하는 마음이 만든 중생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려면 마음속 원인 인(因)로서의 중생심을 제도하면서 동시에 결과로서의 중생도 제도해야 한다. 대승보살은 내 마음 네 마음, 안팎의 구별 없이 모두 제도하리라고 원을 세운다.

정치란 무엇인가? 공동체의 목표를 정하고 사람들 사이의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일을 하는 인간활동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정치꾼은 될 수 있겠지만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는 될 수 없다. 정치가는 대승보살이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려는 것과 비슷한 큰 원을 세운 사람이어야 한다. 20세기 독일의 위대한 사회학자이며 정치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엄중한 책임이 정치를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자기도 구제하지 못하면서 공동체와 나라를 구한다고 나서는 사람은 너무 많은 반면, 진실된 정치가는 드물기에 혼란스러운 현실이 초래되는 것이다.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제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는가? 수많은 금강경 해설서가 있지만 거기에는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해답을 한 사람도 없다. 중생이 중생을 제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니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런 중생을 부처님께 바치면 된다. "모든 중생을 남김 없는 열반으로 인도하여 제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안팎의 모든 중생을 부처님께 바치면 부처님께서 제도해 주시리라는 것이다. 바친다는 말은 드린다는 말과 같고 조주스님의 선문답으로 유명해진 "내려놓게(방하착 放下着)"라는 법문과도 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금강경의 대의이다.



▲**정천구 교수**는 … 한국외대서 정치학 학사를, 고려대 대학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부터 1983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영산대 초대총장을 지냈다. 현재 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금강경 독송의 이론과 실제〉 등 10여 편의 저서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연구〉 등 40여 논문이 있다.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禪大韓佛教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종단에서 종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종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 승적원부 (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임명장,사찰등록증,발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禪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 문의: (02) 959-1825
대한禪報신문사 문의: (02) 962-3467
불교종단사업부 문의: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의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를 빈 땅에 세울 때 서로서로 의지해야 바로
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일 어느 하나를 빼면 나머지 둘은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빼버리면 하나 또한 서지 못하게 되니
서로서로 의지해야 서게 되는 것이다.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010-8677-2861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우울증, 각종심리치료와 최면의 전과정 실기위주 속성요점 강의
• 배웠으나 활용 안되는 분 환영
• 교재 제공 (7회 완성) 출장가
•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부산 현불사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모든 고민은 네이버에서
"샤먼노트"를 검색해 보세요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사주학 성명학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빠른 이해 강의
용신 및 격국 중점강의
통변과 실전을 겸한 강의
수강문의 010-3711-5072
(수도권, 영남권)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포교원, 사찰 같이
불사하실 분 모십니다
(경북 봉화군)
* 땅은 현재 있음, 스님 및
무속보살님도 환영
011-717-53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대, 김해)
011-9514-3721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여 정진할
도반 및 비구니
스님 모심
010-4924-372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748-30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록명법 특강
전귀명은 부동산 투자성공하고
폭패파택살(김우중)은 부도나고 경문년에
오바마 대통령재선 천사통수격(박근혜)은
대통령됨. 마두대재는 창업성공 부자되고
봉황록귀는 부귀로 세계에 이름떨침.
범귀자 영장살자는 매사 중도좌절
명귀보궁 비살병투자는 남자친구한테
APT받고 비재성자는 복권당첨됨
쉽고 새로운 천년비법 최초공개!!
010-4022-2967
010-9469-7719

구 합 니 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아주작은
토굴, 암자 구함
* 전세, 매입 원함
010-5257-9339

신심있고 약간의
보시금으로
사찰운영 함께
할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2720-1580

향기도의 비밀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불사 함께 하실 분
주지스님,
사무장, 공양주를
모십니다
(부산)
051)248-2090

전세구함
신도가 어느정도 있는
도심사찰 한만기
살았으면 합니다.
지역,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010-4668-1284

빙의 치료 영가 퇴치
가출 청소년 치료
그 자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1-887-1894
010-7166-887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미륵존불, 불사를 도와주십시오
경봉스님 반야심경 1점, 월하스님 글씨 3점, 석주스님 글씨 2점,
서경보 스님 글씨 3점, 일타스님 글씨 2점, 청광선생 탈마, 독수리 병풍 2점.
(천경자 선생그림 1점, 중광스님 그림 1점 – 이조시대 탱화2점, 250년 이상)
위의 작품 15점을 불사에 큰 인연으로 도와주시고
설판하여 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경북 054)853-3855
시주보시금 : 국민은행 622-24-0064-982 /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0-1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홍익범패단 신입생 모집
기초과정 3개월
염불소리(천수경, 반야심경) 동음, 독경, 지도,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사찰운영법, 신도관리법, 각종예절법, 불교의 개론, 초발심 자경문
중급과정 3개월
종송, 도량석, 조석예불, 사시불광, 목탁불공, 신중불공, 시다림, 방생, 산신불공, 향수해례, 사성례, 거불, 상용영반(기제사), 봉송, 봉안게
상급과정 6개월
대령, 관욕, 신중청,39위, 상단, 지장청, 관음청, 삼보통청, 시련, 옹호게, 다게, 헌좌게, 행보게, 천도재, 사십구재, 각종의식 고혼소
특수과정 1년
불상점안, 생전예수재, 괘불이운, 수륙재, 설주이운, 다비식, 매장, 화장, 각종축문, 이장
작법과정 1년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나비춤), 도량게, 다게
모집인원 각과정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3년 12월 중
개강일시 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개강후에도 수시접수하여 12월까지 마감
제출서류 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2장
교육기간
① 기초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② 중급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6시 (2시간)
③ 상급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④ 특수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2시간)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에서는 승려후보, 예비스님을 위하여 원하시는 종단 알선과 대덕큰스님을 은사로 소개하고 사찰, 창건의 지도와 수계 득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강주이신 민지효 스님께 전화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010-4466-3575)
장소 : 김해불교문화원 3층법당 / 주소 : 경남 김해시 흥동 7-5번지
한국불교홍익범패단
전화 055)345-0211 / 불교문화원 055)322-0088

삼 보 양 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대) 1박스 20개.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9만원
3) 밀대 (중) 1박스 50개 7만5천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9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번호 : 615-82-71773 (한국불교재단)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010-5789-6630
사업부계좌 : 농협 302-0587-1926-11 이창민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 사업본부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 비 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수륙영가천도
조상영가 태아영가 천도
부산 ↔ 일본오사카
일본오사카 ↔ 부산
우환,우울증,신경쇠약,불면증,비만,알콜중독,
가족갈등,변비,악몽,가위눌림,중풍,치매,암예방 등
모든 어려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수륙천도재
선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관광이 아니고 천도가 목적임. 좋은 일이 일어남.
특 강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천수경 특강을 들어보시면
불교수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상 제사 잘 모시는 방법 지도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풍수지리 수맥탐지 정 태 철
010-2797-1633
인터넷 : 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불교 TV 꿈바위 활동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점심식사, 쌀, 라면 보시자는 기도해 드림
꿈 바 위 불 교 교 육 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구도자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 숫타니파타 -

삼보사찰안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양산 사찰 안내

- 총부지 : 약 1250평
- 법당 40평, 요사채방 10칸
- 산신각 및 다수
- 사찰뒤에 큰암산, 앞마당 계곡물 철철
- 버스 진입가능, 텃밭 300평
- 양도가 은행 5억 안고 5억에 인수

신도시 사찰안내

- 총부지 : 1200평(남향)
- 대웅전(목조) 24평, 삼성각(목조) 6평
- 요사채(슬라브 2층) 방6칸
- 백화점, 법원 300 M
- 총 양도가 : 9억 8천(절충가능)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포교원안내

- 위치 :해운대 시립미술관역 2번 출구
- 평수 : 60평 (여유 도량 40평 별도 사용가능)
- 구조 : 법당 1개, 방 3개, 화장실 2개, 창고 1개, 공양간, 다용도실
- 집기 시설 완벽
- 교통 : 버스정류장3분거리,지하철역1분거리
- 주변 시설이 편리하고 아파트 밀집 지역.
- 보증금 :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시설비 있습니다.

010-9380-7195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귤암리 202번지
- 규모 900평
- 가액: 평당 4만원 (40000)

011-286-7371
033)563-16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 2층 50평, 옥상, 지하 사용가능
- 삼존불, 지장, 신장, 산신, 용왕 탱화 소불 120불
- 대법당, 방1, 화장실 3
- 시설 비품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불경기에 시작하시는 꼭 하실분께
- 좋은 시설 드리고 싶습니다
- 월세는 상담 후 결정

010-2842-6532

사찰같은 포교원

- 위치 : 충남 천안시 최고요지
- 3층. 건물 중 2/3층. 약 100평
- 보증금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5천만원, 절충가함
- 16년 운영. 불사관계. 양도함
- 상기조건 적합하신 분, 전화요망
- 장난전화 절대 사절. 필요한 분

010-3630-32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포교원임대
- 6층이며190㎡ 시설완비
- 보증금4천만원에월7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시내중심가 위치좋음
- 즉시법회가능함

010-7347-1010(사찰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천마산 감천동 아파트상가 2층 약 60평
- 큰법당, 공양간, 샤워실 방3개
- 시설 특A급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800만원(조정불가능)

010-7576-1727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세종 첫마을에서 5분거리 금강이 내려다보임
- 대지 260평, 건평 62평, 2층 슬라브
- 육각정 포함
- 가액: 5억 5천만원

011-548-7485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천하명당 강화 마니산
- 경관 최고 바다보임
- 임야 4100평, 건축 허가 200평
- 전기 수도 완비
- 가액: 답사 후 절충

010-7390-8575

암 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 평수 : 340평
- 건물 3동
- 공항에서 10분거리
- 가액 : 7억

018-590-3583

사찰(급)안내

- 위치: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2억 8천만원(절충가능)
- 전세 1억 . 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 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010-5037-673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 3층건물에 3층
- 도심포교원 최적지,버스정류장앞
- 평수 40평(마당포함)
- 월세 1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보증금 합 2500만원

010-5496-6417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8억원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사찰부지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내 천등산
- 지목 : 전 10년전 4단식 계단 토목공사완료
- 산세수려, 청정계곡, 토굴이 있음
- 평수 2400평
- 양도가 2억 5천만원

010-5547-8799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생비량면
- 대웅전1동, 요사채1동 산신당1동
- 평수 약 1천평
- 전망좋음
- 가액: 2억 (추후 협의가능)

011-586-8696

암 자 안 내

- 위치: 전북 익산 미륵산하
- 평수:약180평,교통편리
- 삼존불,후불탱화,산신,칠성,신중.
- 주지실,상담실,차실,콘테이너2개
- 5층탑,미륵존불,주차장,전망좋음
- 해좌사향, 왕산왕향
- 가액 : 4500만원

010-9288-6889

포교원안내

- 위치: 의정부역 5분거리
- 3층건물의 1층, 30평, 마당 20평 법당, 삼존불, 산신각, 영단, 친견실, 공양간, 방2, 화장실2
-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천500만원
- 즉시법회. 절충가능

010-3293-3079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관읍
- 2층 건물 35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4851-6751

암자안내(동해)

- 위치 : 강원 동해시내(바다조망) 임야 3349(대지 500평)포함
- 건물 : 5동. 약120평
- 특징 : 유명한 약수물 있음 시내지만 산속같음
- 창건: 약 70년된 암자. 소쿠리터
- 보증금 : 6천만원 (전세)

010-2783-388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대로변 (상담 최고 적지)
- 평수 : 23평 (5층 건물 중 3층)
- 보증금 500/30
- 삼존불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단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70- 4038- 4252

임법당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대지 200평(문중땅)
- 건물 40평(지상권성립)
- 건물 5천5백만원
- 법당 후원물품일체 2천5백만원
- 완벽하게 갖춰짐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010-6651-6663

포교원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 4층건물에 2층
- 법당, 방2개, 공양간(약45평)
-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870-7498

도심사찰안내

- 송파 대로변 법당 50평
- 보증, 권리, 시설금 없음
- 운영하실 분 상담환영
- 직접 내사 후 결정바람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2)449-5315
010-2344-73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유곡동 78-47. 주택 4층
- 시설완비
- 건평 100평정도, 시설비 없음
- 전세 1억, 달세 없음
- 방문 오후1시 이후 가능

팩스 055)745-6633
전화 055)748-6345
010-9892-34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8억 3천만원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백 년 전 통 사 찰

- 위치 : 경남 김해 황매산 기슭
- 면도로 100M 산속
- 시설: 대웅전1동, 산신각 1동, 스님집무실1동, 방5개
- 공양간1동, 창고4개, 해우소 2칸
- 사찰부지 2500평, 주차장, 채소밭 약 300평
- 비구니스님대출가능
- 양도가액: 4억 3천만원
- 현지 답사, 굿당 따로

010-2670-4090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해수욕장(방생지)
- 대지 634평
- 건물 1층 60평, 2층 약 60평
- 통나무건물
- 가액: 5억 5천만원(평당 105만원)
- 대출금 3억 4천만(양도가 포함)
- 공시지가보다 저렴합니다
- 사정상 급양도

010-7139-5566
054-261-11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10분거리
- 대지 약200평, 요사채 300평(방 4개) 텃밭
- 주차장완벽, 사용면적 약 500평
- 전세도 가능
- 가액 : 8500만원

010-6562-6800

포교원안내

- 위치 : 영천 (북영천 IC 5분거리)
- 평수 : 2천평, 2차선 접 관광버스 진입
- 시설: 법당, 요사채, 공양실, 주지실, 조경탑, 연못, 기도실(펜션형)
- 가액: 3억 + 융자
- 동양 최고의 명당절터로 최고의 기도터

054)334-444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
- 3층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
- 시설은 최상급
- 시설비 2천 5백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010-8339-552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면적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5천

- 위치 : 경기
- 면적 : 2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가액 : 6억5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신축 사찰 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전세 6천만원
- 양도 : 3억 5천(대출금 1억 포함)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 및 화왕산, 군립공원대로변
- 평수 : 532평, 법당 30평 (목조단청), 산신각, 칠성각
- 요사채(60평), 화장실 2, 석탑, 주차장, 창고 , 150M 암반수
- 산 밑에 위치, 도로인접, 심야보일러, CCTV설치, 집기일절
- 가액: 3억 8천 5백만원(답사 후 조정, 평당 70만원 시세)
- 비품 및 생활용품일체

010-8664-8259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시장대로변
- 4층건물 중 4층, 화장실 및 옥상단독사용 , 온수펑펑
- 총 50평 중 법당 30평, 공양간, 거실, 주지실, 다용도실
- 특징: 지장석불설치, 엠프, 조명설치, 바닥양탄특별주문설치
- 즉시법회, 보3000, 월 45, 시설비3000(최신 전자제품 포함)
- 연등 150개, 소불 108불, 냉장고4대, 에어컨2대, CCTV설치, 집기
- 꼭 하실분 (방문절충가능)연락주세요

010-3468-392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체,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6동 주차장 완비
- 현재 추모관 성업중
- 가액 : 4억 8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5444-0807

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사전동) (199평)
- 25평 건축허가
- 포장도로 접, 전기 마을에서 약 600미터 위쪽 한적한 곳
- 가액 : 3,500만원

010-3288-131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군
- 평수 : 3000평 (800평 정도 부지 만들어져 있음)
- 도로 있고 정남향 경관좋고 옆에 계곡 있음
- 사찰, 전원주택, 교육시설 최적지
- 가액: 2억 7천만원

010-9368-9612

암 자 안 내

- 위치: 전북 익산 미륵산하
- 평수:약180평,교통편리
- 삼존불,후불탱화,산신,칠성,신중.
- 주지실,상담실,차실,콘테이너2개
- 5층탑,미륵존불,주차장,전망좋음
- 해좌사향, 왕산왕향
- 가액 : 4500만원

010-9288-6889

터 안 내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화리
- 상면 소재지(서울에서 1시간거리)
- 서울에서 시내좌석버스 있음
- 버스도 진입가능한 도로 있음
- 가평군이 시(市)승격 예정지역
- 대지 170평 : 전(田) 265평 =435평
- 평당 70만원
- 사찰이나 요양원건립 최적지

010-9259-0108번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 방2, 화장실,도시가스 거실, 공양간(옥상사용가)
- 삼존불, 영단, 탱화 (산신, 용왕, 신중)
- 보증금 1천만원 / 월50만원
- 시설비는 이사비용정도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542-22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건물중3층, 50평,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암 자 적 합

- 위치 : 경북 김천 대지 343평
- 퓨전한옥 30평(방3, 욕실2)
- 풍수전문가가 선정한 최고의 명당터
- 400여가구 면소재지 마을로 위쪽 한적한 곳
- 정남향, 원두막,황토방,텃밭 대형차 진입
- 스님 쉬는 공간, 암자, 선방 등 가능
- 시내에서 5분, KTX역 20분거리
- 주인직 3억3천만원(조정가능)

010-8477-49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 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 - 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 1억 7천만원

010-8900-4874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3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0-2501-3671

사 찰 안 내

옆에 맑은물이흐르고 붕어와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는 공기좋고 아름다운절

- 대지 포함 1.000평
- 사과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있음
- 위치: 경북 예천
- 가격 : 몽땅 3억

011-861-625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산동
- 지하철 2 ~ 3분거리
- 조그마한 사찰 전세 및 달세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전화상담

010-5667-5453
010-3574-3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 4층건물에 2층
- 법당, 방2개, 공양간(약45평)
-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870-749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
- 3층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
- 시설은 최상급
- 시설비 2천 5백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010-8339-5525

포교원 및 쑥뜸방안내

- 위치 : 일산, 3층건물 중 2~3층 전부사용(90평)
- 보증금 없음, 월세 70만원
- 시설비 3700만원(절충가능)
- 일산 인구밀집지역
- 비구니스님, 보살님이 운영하기 좋은 포교원
- 쑥뜸은 의료행기가 아니므로 누구나 할수 있음

010-2899-14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 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 - 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 1억 7천만원

010-8900-4874

도심속의 작은암자

- 위치 : 부산시내(북구) 주차용이
- 1층 와가 방2칸 약 26~30평정도
- 법당 : 삼존불, 신중, 영가단. 산신용왕 별도
- 국유지(철도부지) : 사용료 내고 있음
- 6천 8백만원(조절가)

011-575-9707

‘개인치유’ 사회로 확대돼야 진정한 불교명상



2013 불교평론 가을 학술세미나
‘명상 붐 어떻게 볼 것인가’ ㊦

“간화선 명상인가…영역논의 구체화 해야”…열띤 토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명상 또는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무엇을 치유하려는지, 무엇을 성취하려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종종 혼란이 일어난다. 깨달음과 윤리적 행위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도 이런 혼란과 무관하지 않다.

불교평론이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명상 붐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명상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서재영 박사(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7명의 학자들이 명상과 불교의 관계, 명상은 개인과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명상 붐 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명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증명하듯 200여 청중들이 참석, 자리가 없어 서서 듣는 이들도 많았다. 또 이번 세미나 자료를 담은 〈불교평론 55〉가 순식간에 동이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토론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발표자에게 던져지기도 했다.

정리=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평론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 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발표자들. (사진 왼쪽부터) 전현수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장현갑 영남대 명예교수, 서재영 박사(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 교수), 허우성 경희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박재현 동명대 교수, 오원칠 한산사 간화선 수행학교장.



내면 성찰이
사회적 고통 성찰과
자비행으로 이어져야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명상은 사회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가?

명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그것을 통해 마음의 평온 또는 고통의 해소를 의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 명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명상의 목적에 더해서 다르마의 깨침을 통한 열반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붓다가 강조하는 명상의 핵심은 ‘홀로 있는 것을 피하지 않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에 드는 것’ 이다.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낼 수 있다는 가르침이 사성제이고, 그 사성제에 이르는 수행법이 곧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요약되는 멈춤과 통찰의 불교 명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과 실천의 연계성을 연기(緣起)와 공(空)이라는 사회현상의 본질과 연결지으면서 사회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찾아 해소시키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고통은 탐욕을 근간으로 삼아 이기성과 고립성을 강화하는 사회체제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상은 이러한 사회구조와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자칫 개인적 고통의 치유라는 환상 또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는 ‘힐링(healing) 열풍’은 자칫 상업주의와 결합함으로써 곧 소멸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고는 불교 명상 또는 힐링이 본래의 연기적 기반을 상실한 채 고립된 개인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진행될 경우에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적절한 경고다.

불교 명상이 다른 명상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지점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일이 곧바로 자신과 연기적 관계 속에 있는 타자는 물론 가족과 국가, 지구공동체라는 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성찰과 연민, 그리고 자비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불교 사회윤리적 정언명법의 논리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분리된 자신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자신의 심리적 평안을 얻는데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불교 명상이라고 할 수 없다.



명상 “치유 주종관계 형성”
VS
禪 “중생본래 완결성 전제”

박재현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불교 수행과 명상, 접점은 어디인가: 禪을 중심으로

명상을 통해 심리적 고통이나 병리상태가 치유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분명 좋은 일이다. 다만, 명상이 치유라면 필연적으로 치유자와 피치유자 사이에 주종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종관계는 지속될수록 강화되고, 주종관계가 강화될수록 피치유자는 더욱 종속되고 나약해진다. 이것이 모든 치료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속성이다.

치유와 행복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병들어 있고 불행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전제가 없으면 치유와 행복이 목적으로 설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생이 자신의 중생성을 안타깝게 여기고 깨닫기 위해 애쓰는 것은 분명 장한 일이다.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이 안쓰러워 그 고리에서 벗어나 열반의 언덕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박수쳐줄 일이다.

그런데 대승불교 특히 선은 이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 정면으로 대적한다. 이런 식의 인식론적 전제는 중생을 더욱 중생스럽게 할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인식론적 전환을 모색했다. 불성과 돈오는 중생의 본래 완결성을 전제로 하는 인식의 혁명적 전환의 결과물이다.

돈오의 인간관에서 중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모조리 부처다. 남김없이 다 부처이니 목적태로 설정할 것이 따로 없고, 목적이 없으니 그것을 얻거나 거기에 이르기 위해 애쓸 이유도 없다. 심지어 그런 일체의 애쓰는 짓은 다 옳지 못하니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까지 공언한다. 돈오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치유를 모색하는 등의 행위는 이미 병들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병들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한, 치유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것은 결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치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명상의 논리와, 일체의 추구하는 행위는 모두 미망(迷妄)을 양산할 뿐이라고 보는 선의 논리 사이를 관통하여 흐르는 강은 아직 깊고 멀어 보인다. 선 수행과 명상의 접점은 아직은 희미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접점이 있어도 혹은 없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접점이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다는 사실에 있다.



명상 붐,
기존문화와 융합돼
전문화 과정으로 진화

인경 스님 (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 교수)

명상붐과 불교계의 대응

급격한 정보화 사회로의 이동과 함께 명상 붐이 확산될수록 현실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런 시대적 요청은 내부적으로는 전통적인 수련회를 템플스테이로 확대하였고, 승가교육의 개혁으로 이어졌고, 외부로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새로운 분야에 응용되면서 불교명상의 사회적 역할확대(청소년문제, 사회복지)로 연결되었다.

명상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모든 문화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공통된 인간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명상을 문화현상으로서 이해하고 특별하게 불교적인 관점으로 제한해서 이해한다면, 명상의 유입은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명상의 상담과 심리치료에 활용은 미국에서 1990년에 시작되어 국내에는 2000년 이후에 유입되면서 강한 충격을 주었다.

이 영역은 불교계보다는 상담학과 심리학계, 혹은 의학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2010년에 사띠의 번역(마음챙김인가, 알아차림인가)문제로 2차 사띠 논쟁이 발생했다.

외형적으로는 명상의 핵심개념인 사띠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불교명상이 심리치료 분야에 활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런 논쟁은 불교명상의 활용에 관한 논의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전통적 문헌적 관점에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유용성의 분야로 돌렸다.

또한 이것은 불교명상이 이웃 학문영역인 심리학과 결합되면서 ‘명상심리치료’ , 혹은 ‘명상상담’ 과 같은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새로운 분야는 대학과 다양한 전문학회로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구체적으로 대학에서는 명상과 관련된 학과(명상상담, 불교상담심리)가 설치되고 대학원에서는 전공분야(명상학, 명상심리)가 생겨났으며, 명상과 관련된 연구소나 학회(명상상담(치료)학회, 불교심리치료학회, 명상치유학회)가 설립되었다. 이제 명상은 단순한 대중적 명상 붐이 아니라, 기존문화와 융합되어 토착화되고, 연구되면서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전문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숭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한 벌 뿐인 옷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 인연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37)

숙리의 공덕

사위국 어느 장자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딸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흰 털 옷으로 몸을 감싸고 나왔다. 부모가 괴이하게 생각하여 관상을 보았더니 아주 길한 징조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장자는 기뻐하며 딸의 이름을 숙리(叔離 ; 양나라 말로 희다(白)는 뜻)라고 지었다. 숙리가 자라자 털옷도 몸을 따라 커졌다.

숙리의 빼어난 미모는 익히 알려져 있던 터라 원근에서 청혼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숙리는 혼인에 뜻이 없었다. 그녀는 출가에 뜻을 두고 있었다. 어느 날, 숙리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저는 출가하려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그의 뜻을 받아주었다. 그리고 부모는 이내 털옷을 들어내고 다섯 가지 옷(五衣 ; 비구에게는 3의가지게 했고, 비구니에게는 5의를 가지게 했다.)을 만들려고 했지만, 여인은 부모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 이미 완전하니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출가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부처님께서 가서 예배하고 출가하기를 청했다. 부처님이 그녀의 출가를 허락하시자 숙리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지고 입고 있던 흰 털옷이 이내 다섯 가지 옷으로 변하였다. 숙리는 대애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정진하다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도를 이루었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숙리는 본래 무슨 덕을 닦았기에 태어나면서 털옷이 함께 나왔고, 또 출가하여 도를 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 비바시 부처님 때의 일이다. 이때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이 공양을 많이 베풀었다. 단니기라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여 두 사람이 가진 것이라곤 오직 털옷 하나뿐이었다. 때문에 만약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서 그 옷을 입고 가면 아내는 발가숭이로 있었고 만약 아내가 털옷을 입으면 남편은 발가벗고 앉아 있었다.

권화라고 하는 어떤 비구가 다니다가 그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고 권하며 말했다.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는 어렵고 사람 몸은 얻기도 어렵습니다. 당신은 법을 들어야 하고 당신은 보시를 해야 합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다.

'바깥에서 사문이 우리에게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으며 보시를 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비록 우리에게 보시할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으로 보시를 할 수 있겠소?'

아내는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이 털옷을 보시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다.

'당신과 나는 오직 이 털옷 하나를 번갈아 입으며 살아왔소. 만약 이것을 보시해 버린다면,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고, 그리하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그냥 앉아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이오.'

부인이 말했다.

'사람이란 나면 죽음이 있어서 보시와 상관없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보시한다면 죽은 뒤에 희망



삽화 · 강병호

이나 있겠지만, 보시를 하지 않고 죽으면 마침내 고통을 당할 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기뻐하면서 말했다.

'죽을 것이 분명하니 그럼 우리 보시를 하십시다.'

아내는 나가서 밖에 있던 권화 비구에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보시 책에 우리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비구는 대답했다.

'만약 보시를 하시겠다면 지금 당장에 보시하십시오. 그대들을 위하여 축원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단니기는 말했다.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입고 있는 이 털옷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입었던 털옷을 벗어서 비구에게 주었다. 비구는 축원을 하고 털옷을 받아 부처님께 돌아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그 털옷을 가지고 오너라.'

비구가 부처님께 털옷을 드리자 부처님께서 손수 받으셨다. 그런데 그 털옷은 더럽게 때가 끼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던 왕과 여러 대중들은 마음속으로 부처님께서 그 때가 낀 털옷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의 마음을 읽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대중을 살피건대 이 털옷을 보시한 이보다 더 깨끗하고 큰 보시를 한 이는 없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중들은 모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자 왕의 부인은 마음을 내어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벗어서 단니기에게 보냈고, 왕 또한 비단 옷을 단니기의 남편에게 보내어 법회에 나올 것을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가난한 여인 단니기란 이가 바로 지금의 숙리 비구니이다. 그때에 청정한 마음으로 털옷을 보시하였기 때문에 91겁 동안 태어나는 곳마다 언제나 털옷과 함께 태어났고, 모자란 바가 없었다."(〈현우경〉 제7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㊲



사람 사는 모습

청학동 아이들을 보고

70이 넘은 지금도 나는 가끔씩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난다.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내 허물부터 살펴보라. 남의 약점 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라."

생전의 아버님은 평소 자식들의 인성에 마음을 많이 쓰셨다. 그래서 좋은 말이나 좋은 글, 또는 당신이 생각하는 소신들을 종종 일러주시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화분에 화초를 키우듯, 숲에 나무를 키우듯 아버지는 정성으로 자식들을 키우셨다. 그리고 그 자식들의 바른 인성은 어른들의 바른 언행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고 평소 당신의 몸가짐에도 마음을 많이 쓰시며 사셨다.

어느 시대나 자라나는 자녀들은 소중한 존재들이다. 작게는 한 가정의 문제이고, 크게는 한 사회와 민족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한 가정에 한 두 명의 자녀가 고작인 오늘날의 사회에서 자녀들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내가 자라던 시절과는 또 다른 문제들이 부모와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두 마디의 덕담이나 훈계가 훈육이 되고, 부모의 삶이 본보기가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집집마다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귀한 자식들이다

문명과 제도만으로 자녀교육 안돼

대한민국이 따뜻하게 기억되길

보니 냉정하고 객관적인 교육과 편달이 쉽지 않다. 그로 인해 과잉보호나 무관심 등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문제들이 사회전체로 쏟아져 나올 때 가정과 사회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청학동의 김봉곤 훈장과 그 집 아이들을 TV에서 보게 됐다. 김 훈장의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과는 많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 보통의 아이들이 누리는 문명의 이기나 환경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김 훈장의 아이들이 왠지 불쌍해 보일 수도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김 훈장의 아이들의 모습에선 그늘이나 불만을 찾아볼 수 없었다. 4남매의 아이들은 반듯하고 당당해 보였다. 나의 걱정이 쓸 데 없는 걱정이었다. 물론 TV를 통해 보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나의 걱정이 쓸데 없는 걱정인 듯 했다. 나의 자녀는 아니지만 왠지 가슴이 벅차고 내 아이들처럼 대견해 보였다.

아버지가 두건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한복을 입고 시골에서도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차림새에도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고마워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예의바른 모습은 도심의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도 있었다.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청학동 김 훈장의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 과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녀 교육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의 답만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청학동의 아이들을 보면서 문명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청학동의 김 훈장 아이들의 모습이 조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모든 아이들을 청학동으로 보내자는 얘기는 아니다. 오늘 날의 문명과 제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바라본다면 아이들을 문명과 제도 속에서 잠시 떨어져 있게 해보는 것도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절도 그와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깊은 산사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조용한 절이 청학동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문화 가족을 생각하며

TV에서 '러브인 아시아' 라는 프로를 보게 됐다. 꿈을 품고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들의 감동 사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내가 어릴 적엔 외국인이라고 하면 마치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신기하게 보였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세계가 한 지붕이다. 오고감이 자유롭고 사는 곳도 다양해졌다.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족이 많아졌다. 같은 나라 안에서 살아도 자주 볼 수 없는 가족들도 많은데, 하물며 머나먼 이국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형제를 만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보게 된 그들의 사연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의 애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이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 부모형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마치 내가 겪고 있는 듯 따라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사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묘소를 찾은 손주는 묘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다. 사는 모습은 다 비슷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가 보듬어 이웃이 되어주고 보살펴주어 그들이 더는 외롭지 않고, 그곳의 그리움을 이곳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은 모습만 다를 뿐 다 똑 같은 '인간' 이었다. 행복하면 웃고 슬플 땐 눈물을 흘리는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인 것이다. 말이 달라도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같은 것이고, 생김새는 달라도 눈물을 흘리는 눈빛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한 인류임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따뜻한 나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부처님 그늘에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을 일이라 생각했다. 타국에서 외롭고 힘든 그들에게 불교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불자로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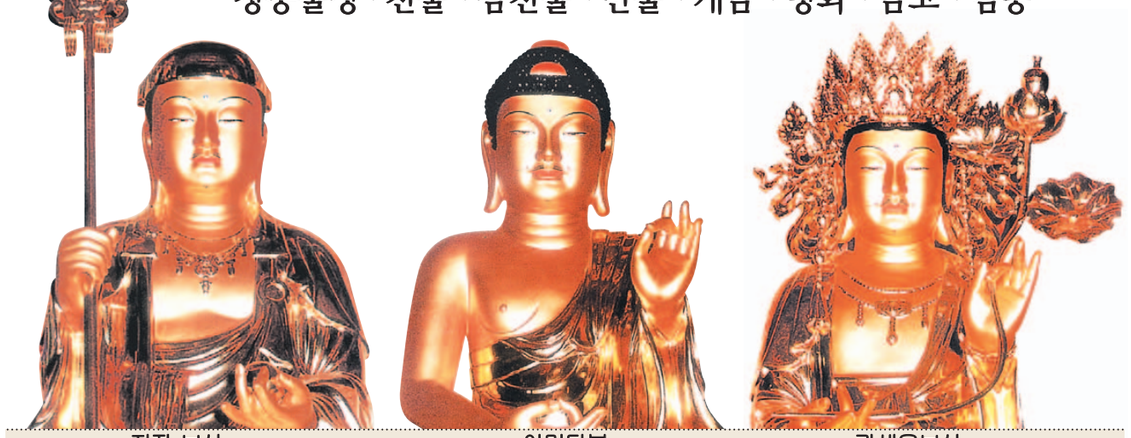
인터넷 검색창 : 지리산 토암사 검색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대행 스님

바다의 물처럼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그림 · 최주현

알음알이로 쉽게 말은 하지만…

문) 불법을 공부한다 하면서 행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 사실은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면 '둘이 아니잖아.' 하고 알음알이로 쉽게 말은 하지만 정작 저 자신도 행은 안되거든요. 열심히 해서 이 도리를 알고 싶은데 어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답) 사람마다 누구나가 다 둘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둘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데서 둘이 아님을 또다시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닌 것은 아나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흔히 말을 하기를 "둘이 아닌데 뭘 그래? 뭐 할 말이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들 시원하게 아주 말로 해 버리는데 물론 물도 얼음도 둘이 아닌 거는 알죠. 그 얼음과 물이 둘이 아닌 줄은 알았으나 그 씀씀이를 하고 돌아가며 배우는 이치, 상황에 따라서 물을 크게도 쓰고 적게도 쓰고, 흘러내리는 물이라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 가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렇듯이, 항상 그 물에 의해서 말갛게 씻을 수 있는, 씻는다고 해서 또 물에 항상 물건을 씻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갛게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는 우리가 선지들의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알아도 선지들의 그 큰 발은 너무 커서, 작다 못해 티끌 안에 우주가 다 들어 있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에이, 그까짓 걸 가지고….'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을 내는, '아이고,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뭘 그래?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걸. 그게 바로 그 도리인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알아 버리는…. 쉽게, 아주 간단하고 가볍게 그렇게 안다는…, 안다는 그 생각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죠. 선지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지금 급하게 오던 길에 아주 무겁고 요지부동한 돌이, 돌계집이 어린앨 낳았어. 그런데 지금 해산간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겠니? 너희들은 이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 한 길을 일러 봐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방편으로써 말씀하시는 거.' 하고선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더랍니다. 돌계집이 따로 있고 애 낳는 게 따로 있겠느냐고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해 버리기 쉬운 얘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분이 그 말씀을 한 말하고 그 대답하는 사람이 그 대답한 말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알고 대답하는 거하고 모르는 걸 대답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공덕이다 또 공덕이 못 된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살생도 안 하고 해하지도 않고 모든 일을 착하게만 하시는데, 범부들은 항상 죽이고 먹고 이렇게 살생을 해서 우리는 항상 지옥에만 갈 처지인데 부처님께서는 어찌 범부와 부처와 둘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지금 해가 만물을 다 비춰 주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고 저 서산에 지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니라." "그러면 그렇게 뜨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고 지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 거기에 부처입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자 들고 있던 걸로 탕탕 발목을 치더랍니다. 그런데 법상을 쳤는데 왜 발목을 쳤습니까? 그 한 대목이 관문입니다. 이 한 구절이 바로 일차적인 관문을 통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상을 쳤는데 어째서 발목을 쳤다 하느냐? 이 소식을 한 구(句) 일러 봐라 하는 뜻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실천이자 현실이자 과거도 미래도 없는 현실입니다. 깨달은 분이 없다고 하는 말, 바로 그것을 듣고 귀동냥으로 해서 사량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고 그래서 '아, 그거 그냥 둘이 아닌데. 그냥 무(無)야.' 하고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만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있다. 우리가 자도 숨을 쉬고, 깨도 숨을 쉽니다. 이게 그대로 참선입니다. 우리가 사량적으로 잘못해 놓고 또 뒤에 생각을 하고 거론을 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또 걸리는 법입니다. 잘못한 데다가 또 잘못이 또 거듭거듭 붙어요. 만약에 가정에서 잘못하든 어디에서 잘못하든 잘못해 놓은 거라면 그것 또한 자기 성품에 의해서 그것이 요리 용(用)을 하고 조리 움죽거리고 조리 생각해서 하고, 이런 것을 일일이 걸린다면은 그것은 더더기가 붙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도, '이건 주인이 하는 거니까. 다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잘못해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회피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도리가 쉬우면서도 까다롭고 까다로우면서도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니까 쉬운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마음은 허공을 갈 수 있고 허공을 돌 수 있고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있지만 육신으로서는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이 온 누리를 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게 쉬운 줄 알고 그냥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나 하나 깨닫는 데는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건 왜? 모든 게 진심스럽고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그전에도 말했지만 억겁을 거쳐 나온 그 습이 지금 현실의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모두 찰나찰나 놓고 가면, 우리는 한꺼번에 놔지는 게 아닙니다. 찰나찰나 놓고 가다가 보면 몰락 다 놓게 되는 것이죠. 또 그걸 놓고 깨닫는다고 해도 깨달아서도 찰나찰나 금방 그것이 다 체험이 가서 성불의 길로 드는 게 아닙니다. 찰나찰나 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지혜가 넓으면 저 바다의 물처럼 더러운 물 깨끗한 물이 다 들어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손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고인 물에 아마 더러운 물이 들어간다면 왈칵 뒤집히듯 할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생각해서 지혜를 넓히고 응용을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를 모두 이것이 어디서 나고 드는가 하는 참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을 기다리는 나무처럼 꾸준히, 항상 밑 빠진 구멍에 모든 것을 놓는다. 믿고 놓는다. 줄창 말을 하지만, 항상 먹고선 싸지 않으면 우린 부작용으로서 죽습니다. 싸야 삽니다. 싸야 살듯이 놔야 삽니다. 몸이 있을 때에

☞ 30면으로 계속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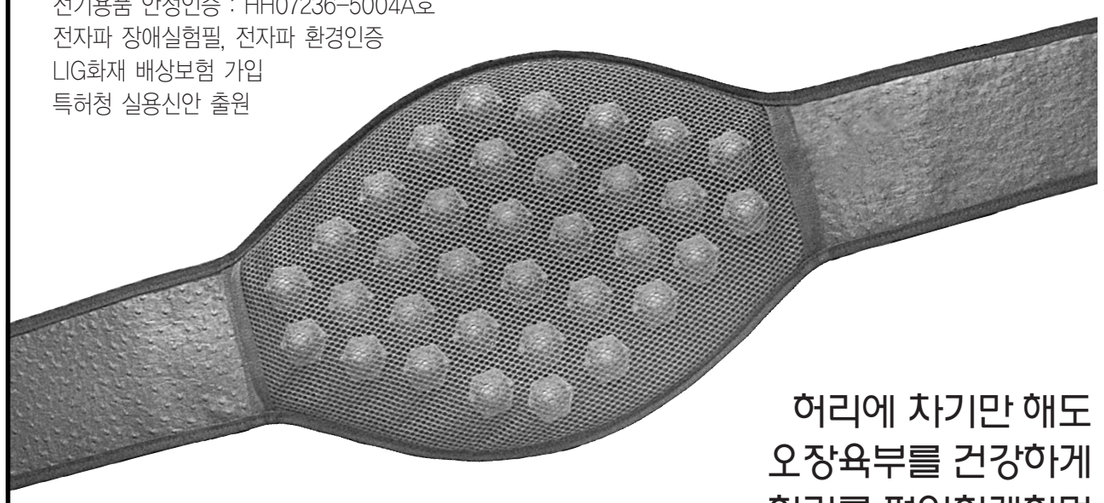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자기를 믿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체험해보세요

☞ 29면에서 계속

공부를 안 하면 세세생생에 여러분이 가슴 찢고 울고불고 참, 창살 없는 감옥처럼, 그리고 끌려가는 것처럼 자유스럽지 못하게 항상 지낼 터이니 어찌 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싶어요

문) 마음공부를 하려면 일단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이런 저런 분별심 때문에 무조건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고 갈 수 있을까요?

답) 나도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도 쉽고 그렇게도 빠르고 그런 게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데 어찌 그렇게 모두 믿지 못하고 그렇게 앨 쓰고 즐겁지 못하게 살고 울고불고 야단들인가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날더러 당신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진짜 왜 못 믿나. 그 생명이 그 생명이고 바로 그 몸이 그 몸이고, 그 행이 그 행이고, 그 사람이 만법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요. 전 어려서부터 그렇게밖에는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이상하구나.' 내가 살아온 걸로 봐서는 나는 남을 의지한 게 없고 그 못난 자기만을 의지를 했는데 어째서, 왜 자기를 못 믿고 의지 못하고 그럴까. 자길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했고, 자길 발견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 행과 법칙과 그 모든 게 나한테 주어져 있다는 걸 알고, 과거에 내가 어디서부터 거쳐 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찌 자기를 모를까? 왜 자기를 믿지 않을까? 그냥 깨닫고 안 깨닫고 그건 떠나서라도 왜 자길 못 믿을까 이겁니다.

문제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이거는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못 깨달아서 못한다, 깨달아야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난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없는 사람이 어떤 때는 자기의 손가락에 끼웠던 반지 하나를 빼 놓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소중한 그거라도 빼 놓을 수 있는 그 정성이 지극하겠지만 그거 하나 빼 놓을 수 있는 정성보다도 나는 자기를 좀 믿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 믿기 때문에 빼 놓는다는 겁니다. 참 이거, 내가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안 깨닫고, 그것이 본래 깨닫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언어도 붙지 않은 것이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어져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광대무변한 이치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수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스님, 아이고 이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우산을 쓰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딱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체험을 드리기 위해서 얘깁니다. 모든 걸 믿고 생활하는 데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자기한테 모든 일체 만법이 주어져 있다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것을 느껴 보지 않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지켜보지도 않았다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내 말은 거기에서 그랬습니다. "이거 봐. 모든 것이 환경에 따라서 이 공기와 바람, 또는 그 무중력의 전자력을 이렇게 중단시키면은 일로 바람, 그것이 오질 않아. 그것은 이 허공에도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울타리가 쳐질 수도 있고 울타리가 안 쳐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 맞아도 좋아. 그 비를 맞으면 외려 생기가 날 텐데." 거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보다도 더 빠른 인간의 참마음이, 그 참마음 한 점이 우주의 일체 만법을 우리 삶과 더불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스럽고 걱정이 없을 겁니까. 죽을까 봐 걱정할 겁니까. 더 잘살자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 전부 내가 아닌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려운 일 닥치면 점술인을 찾게 돼요

문)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무속신앙이나 점술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법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잘되는 쪽, 쉬운 쪽을 갈구하지, 어렵고 힘든 쪽은 거의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포교를 해야 할는지요.

답)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오히려 더뎌 가는 거고 그거는 기필코 빠르게 가는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주인공은 내 보디가드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때에나, 즉 말하자면 아프거나 그래서 관하면 의사로 찰나에 바뀌지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하면 관세음이 되고, 좋은 데로 간다 하면 지장이 돼 주고, 칠성부처가 돼 주고 지신이 돼 주고 용신이 돼 주고 허공신이 돼 주고, 별거 별거를 다 돼 줍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는데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바깥에 가서 묻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말을 해도 얼른 자기한테 하는 게 다 빠르지 나가서 하는 게 빠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는 곧바로 그냥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그렇게 듣느냐 안 듣느냐도 문제지만 올바로 나가는 게 못되고 또 빠른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와 내가 그렇게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내가 더 빠르지 누가 더 빠릅니까? 그래 정히 답답하면 '야,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세 번 부르고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아귀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말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에 가다가도 하고 앉았다가도 하고 섰다가다 하고 뭐, 그 누구하고 같이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재빨리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빠른 거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부처님에 직속, 즉 말하자면 통신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니면 제삼자가 자기를 대신 살아 줄 리 없고요. 그러니깐 꼭 여러분 개개인이 꼭 자기 아닌 자기를 꼭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통신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고 그런다 해서 나가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빠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다니면서 잘못된 거는 거기다가 관하시란 얘깁니다. 거기다 관하시면 그것이 슬금슬금 이게 돌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게 굴레 없는 수레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연기처럼 구름이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서 통신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기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도리를 다 알면은 뭐 천지가 뒤집힌다고 그래도 걱정 없지만 그게 스르르 이렇게 돌아서 해결이 돼야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뛰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관해서 언제나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든지.

집안에 유전되는 병이 있는데

문) 저의 선친께서 70에 천식으로 돌아가셨는데 저의 큰아이도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집안의 유전성인지요. 만일에 유전성이라면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에 괴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답) 그게 여러분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못났든 잘났든 우리가 이 세상에 생긴 자체가 바로 내 근본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종자가 있으니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깐 그 종자를 믿어야죠. 믿는다면 아무 문제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믿으면은 그냥 훌쩍 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유전성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그 앙금이 지워지지 않는 건 그냥 무조건 그냥 믿는다 이런다면은 그냥 그 앙금도 없어질 텐데, 이럭하면 없어진다는 건 아는데 그 앙금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깐 그 앙금마저도 없애려면 진짜로 믿어야 한다. 믿다가도 쪼끔 저거 하면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지요. 종 문서를 없애야 할 텐데 종 문서를 가졌다가 도로 놓았다 가졌다 도로 놓았다 이러니까 이것이 유전성이나 업보성이나 영계성 인과성, 모두가 주둔해서 그렇게 생긴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 그 말을 할 때에 내가 그랬죠. 이 누진은 바로 자동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깐 거기에 과거로부터 살아오면서 누적된 그 입력이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놓아 들어가니깐 그 입력이 자꾸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유전성도 녹아서 없어지죠. 그 앙금마저 없애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유전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유전이라는 거지 유전이라는 언어도 없을 겁니다, 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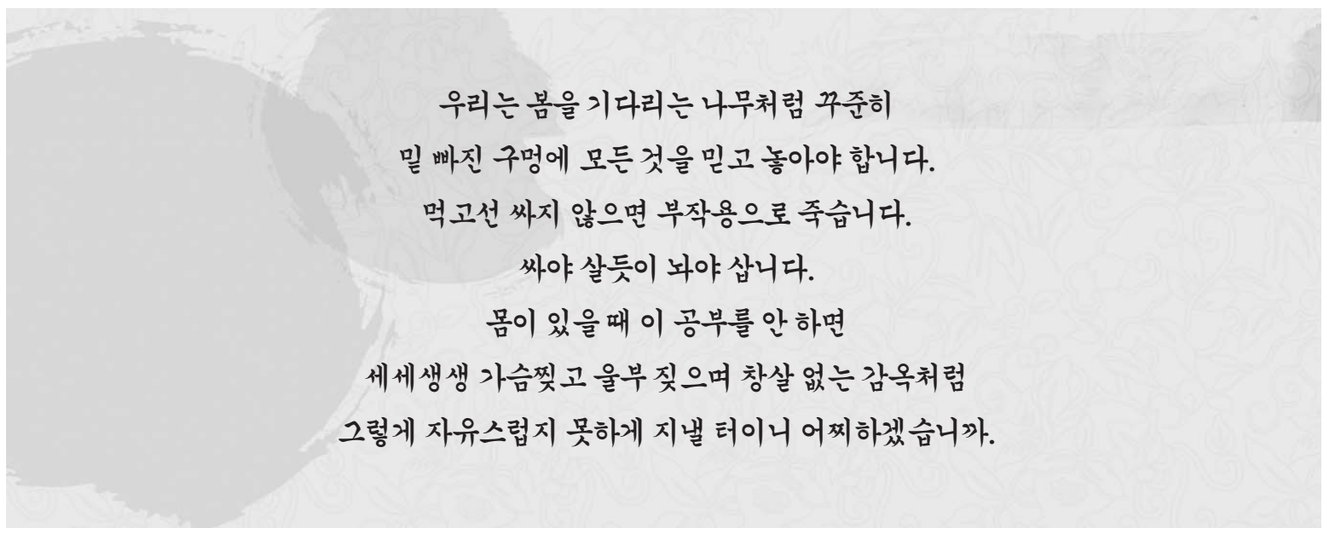
생명들의 줄어듦도 늘어남도 없다 한 뜻

문) 시대가 발전할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어떤 동물들은 멸종의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생명들의 줄어듦도 늘어남도 본래 없다고 하니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 그거는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그렇고 짐승이 최초부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도 벌레로부터 이렇게 생겨나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죠. 그런 거와 같이 짐승이 됐으면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됐어도 짐승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그 모습 고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뀌진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지죠. 만약에 토끼 그러면 토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개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돼지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소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 가지로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태어나고 권리도 주어지고 삶도 주어지고 모두 생김도 주어지고 모두 그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사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마음 하나 이게 마음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마음 아닌 마음을 진짜로 써야 된다, 마음 아닌 마음을 항상 둘 아니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여기 가서 이걸로 태어나고 저기 가서 저걸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태어나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하여튼 짐승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이렇게 되죠. 내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두 둘로 보지 말고, 그렇게 둘로 보지 않는 반면에 그냥 사랑 없는 사랑이 되죠, 자연적으로. 우리가 주인공 찾으려면 주인공 어디서 찾나 이러지 말고 자기 나무로 치면 뿌리라고 그러죠. 뿌리와 나무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게 편리한데도 주인공이 어디 있나 그러고선 찾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에, 항상 나무에 뿌리 붙어 있듯 그렇게 있으니깐 걱정하실 게 없단 얘깁니다.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규격 : 9.5cm × 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규격 : 8.9cm × 9.5cm

불자 세상보기

현 총무원장 선거의 문제는 '파당'



윤세원
인천대 교수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사실상 경선 체계로 굳어졌다고 교계 미디어들이 전하고 있다. 경선의 당사자들은 특정 종책모임들의 지지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라고 한다. 불교광장이 출범하고 추대위가 구성될 때까지만 해도 경선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총무원장 선거가 진행될 듯 보였다. 하지만 오월동주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숨겨진 의도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합의 추대의 꿈은 남가일몽이 되어버렸다.

문제의 원천은 파당이고, 파당의 관심은 잿밥이지 염불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참 좋은 이름이다, 종책모임. 종책모임은 총무원장 선거를 전후하여 종권 획득을 위한 파당을 미화한 표현이다. 온갖 미사려구로 치장을 해도 패거리는 패거리일 뿐이다. 선거라는 것이 아무리 파당을 부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불교 종단 내에서 종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와 실천방법의 제시도 없이 오르지 소임 때문에 생기는 파당은 파화합의 주범일 뿐이었다.

종단 내에 종책모임이라는 파당적 성격의 모임들이 생겨나는 것은 승가정신의 실종을 보여주는 일이다. 중생의 고(苦)가 안중에 없는 모임, 수행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출가자의 집단의 출현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쟁점은 추대가 아니라 현 총무원장의 연임문제 옮겨진 상황이다. 그것도 발단은 불교광장 내부의 입장 차이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리고 불교광장에 참여했던 일부 종책모임이 '자승 스님의 불출마 선언' 을 요구하면서 탈퇴했고, 전국 선원수좌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특히 수좌회는 자승 스님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묵언정진에 들어갔다. 선원수좌회의 임장표명과 묵언정진은 여타 파당적 성격의 종책모임들의 입장표명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촉구방법도 수행자답게 여법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연임저지 대상자의 표리부동한 처신은 한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의 처신으로 보기에는 아쉬움 많아 보인다. 투명하지 못한 행적에,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하는 기어 가까운 언행은 율장적 기준은 커녕, 건강한 상식의 사회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아마도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의 연관 검색어로는 '종단정치 · 종권창출 · 종단권력 · 이권밀약 · 계파 · 문중' 등이 될 것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말들에는 조계종 고위 소임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계종의 승가 구성원들은 종단이 권력 쟁취와 계파 간의 이익 배분을 위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종단과 종단 소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자기 과신인가? 자기비하인가? 조계종의 승가는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매번 반승가적 작태로 종도들에게 고를 안겨주고, 사회의 빈축을 사 왔다. 이는 불조께서 부촉하고 종도들의 공양과 외호로 갖추어지는 수행자의 위의를 스스로 포기해 가는 일이다. 조계종의 승단은 조계종단의 운영을 정치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신들을 정치가로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권위주의 시절의 정치가들처럼 특권을 가진 계층이라 온갖 범계행위를 자행해도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보다 더한 정체성에 대한 자기 비하가 어디 있겠는가! 단언컨대, 이건 훼불행위이다.

중생제도의 힘과 승가의 위의 및 권위는 지계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계를 지키는 행위와 율에 따르는 생활을 하는 무리를 우리는 승가라고 부르고, 그 구성원들을 존경하고 공양한다. 선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종법의 규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지 그 과정에 반승가적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종단 같은 상징성과 그 내실을 일치시키는 최소한 규범이다. 선원 수좌회의 입장표명과 묵언정진은 종단의 일과 세속사를 혼동하는 전도몽상에 대한 경종이고, 소임의 힘으로 지계와 수행을 좌지우지하려는 훼불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동참은 승가다운 승가에 대한 외호이다.

사부대중 칼럼

타악공연 '템스', 두 달간의 만행과 유감



부명 스님
백령도 몽은사 주지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데 반에서 불교를 믿는 친구는 혼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묻는 질문에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할머니들도 절에 오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다, 인연법이지 뭐."

전국의 어느 사찰 어느 스님, 어느 불자라도 붙잡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절들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근간이 불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시중의 문화는 근대화의 성장에 휘둘려 굴절된 문화로만 치달리고 있고 세월의 풍상에 산화된 역사와 전통문화는 박물관의 박제품이 되어 묵은 먼지만 켜켜이 쌓인 모습으로 박물관의 박제품이 되어 관람의 대상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되고 있다.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 위기의 불교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 곳곳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나름의 자각을 외면 못하고 일천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은 불교적 한류 트렌드를 구축해 문화선양을 통한 포교를 꾀하고자 '템스' 라는 불교적 소재의 새로운 장르의 타악 공연을 만들어 전년도 '이뭣고' 에 이어 금년에도 두 달간 공연을 하였다.

분명 희망의 빛과 길은 보였다. '템스' 는 지상파와 케이블을 넘나들며 매스컴을 탔다. 방송관계자의 표현에 의하면 뉴스와 방송에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란다.

다시 말해 불교적 공연 아이템인 '템스' 가 '이뭣고' 에 이어 2년 만에, MBC, YTN 뉴스, SBS 문화가 산책, KBS 코리아트렌드를 비롯한 일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수많은 호평을 받았다. 또한 공연을 관람한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공연전문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의 한편을 감당할 만한 공연이라는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 이를 놓고 볼 때 순진하게 그 모든 평을 전적으로 수용치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와 외형으로는 나름의 성공적인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본다.

하지만 공연의 이해득실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유료 관객을 조계사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이끌어오지를 못했고 그 결과는 참담하다 못해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불교 일번지로 불리는 조계사는 1938년에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창건된 도량이다. 하지만 불교적 소재와 테마로 기획, 제작된 힐링넌버벌 타악공연 '템스' 는 대한불교 조계종 역사기념박물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해야 할 책무를 지닌 그 도량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다.

불교계의 많은 분들은 운만 떼면 문화컨텐츠 개발에 투자를 해야만 불교의 미래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물론 말로만이다. 누구를 위한 종단이고 무엇을 위한 도량인가? 개인적으로는 수행자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대출과 채무, 그에 따르는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간의 심성을 최악으로까지 이끌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느꼈다. 마음 한 번 잘 못 일으킨 탓으로 몸 고생 또한 장난이 아니었다. 사성제의 고苦와 지옥地獄은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저 있을 뿐이었다.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불교를 스님 혼자 고민하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냥 평범하고 편하게 지내소. '다, 인연법이지 뭐.' 하는 핀잔 섞인 염려를 에둘러 듣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작심하고 시작한 일이었기에 후회는 없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눈에 드러나는 공연임에도 그곳에서 불교의 희망과 미래를 보려했던 그 뜻에, 공감과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해 주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주었던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없었다면 더욱 참담했을 일이었다.

'템스' 의 미래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기만 하다. 다가올 한국불교의 앞날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발원해본다.

공연기간 동안 힐링 넌버벌 타악공연 '템스' 를 아낌없이 후원하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社說

영문표기 등 '고려대장경' 세계화 나서자

"고려대장경에는 경 · 율 · 론 삼장 외에 에세이, 여행기, 주석 등 광범위한 불교 전적이 포함돼 있다. 삼장(三藏; Tripiaka Koreana)이 아니라 한국불교전적(Korean Buddhist Canon) 혹은 '고려대장경' 을 그대로 음역해 사용해야 한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가 9월 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고려대장경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체계' 를 주제로 열린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국제학술심포지엄' 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버스웰 교수는 대장경을 글자 그대로 '삼장(Tripitaka)' 또는 '세 개의 바구니' '세 개의 보관소' 로 부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버스웰 교수에 따르면 팔만대장경 같은 동아시아 장경은 '거대한 보관소의 경전' 이라 불렸는데, 인도 삼장의 범주에 가둔 듯한 영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고려대장경의 방대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Tripitaka Koreana' 라는 말보다는 간단히 'Korean Buddhist Canon(한국의 불교 경전모음)' 이라 부르든지 아니면 원래명칭을 그대로 음사해 '고려대장경' 이라고 불러야 한다는게 버스웰 교수의 말이다.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도 "고려대장경 연구에는 철학, 사회적 네트워크, 식물학, 물리학, 건축학, 고고학, 역사학, 정치학, 예술, 언어학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석학들의 대장경에 대한 이같은 새로운 주장은 한국불교의 상징인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이 될 것 같다.

실제로 고려 대장경은 일본강점기 연구자들이 대장경판에 담긴 역사적 실체와 문화적 가치를 상당부분 왜곡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려대장경이 우리 민족문화유산,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원천자료의 수집 · 정리, 학문적 연구, 실용화 · 대중화 작업이 보다 객관적이고 활발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대장경의 가치 복원은 한국불교의 미래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명상 붐 시대, 불교계의 역할은

지난해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힐링' 트렌드 이전에는 '웰빙' 열풍이 있었고 이를 통해 명상 산업들은 본격적인 대중화 · 상품화 시대에 들어섰다. 이미 명상은 수련 중심의 소수 동호회 차원을 넘어 음악, 서적, 부대상품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산업 단계로 성장했다. 실제 명상을 필두로 한 미국 내 마음산업 규모는 60억 달러(한화 8조원)에 이르며 매년 1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우 1980~90년대 일본 불교의 '젠(ZEN)' 열풍이 불면서 마음 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 같은 현상은 체계적인 매뉴얼화가 되면서 자기 계발 프로그램으로 보편화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국식 명상법이 산업화가 돼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9월 6일 불교평론은 '명상 붐, 어떻게 볼 것인가' 를 주제로 가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참선과 명상의 근본 목적, 깨달음과 치유의 대상과 방법, 개인과 사회에 주는 효용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는 2백여 청중이 모여 명상 붐을 실감케 했다.

실제 몇몇 발제들은 한국불교가 이 같은 명상 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 주기 충분했다. 특히 인경 스님은 "힐링 문화는 새로운 사조로서 중요한 사회적 흐름이지만 '마음 산업'으로 산업화되고 값싼 기분전환의 수준으로 떨어지면 거품에 그치고 만다. 명상이 현실적 문제와 연결될 때는 전문화돼야 하고 근본적인 본성과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찌 보면 마음 산업의 종가는 불교이다. 현대 명상의 토대는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치열한 수행법인 선(禪)이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은 채 대중적 치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한국전쟁 정전60주년

60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자비구현 인류화합
한반도평화대회

불기 2557(2013). 9. 27(금) 오후 2:00-5:00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기념공연
기념식
천도재

출연

황병기 · 이선희 · 인순이 · 바비킴 · 폴 포츠
혜민스님 · 이애주 한국전통춤회
레인보우 어린이합창단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外

사회 신영일 · 박칼린



한반도평화대회에는 각계각층의 주요인사가 참여합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MBC

문의 http://www.budpeace.org
kppf@budpeace.org
051) 508-3125, 3126
02) 739-9081